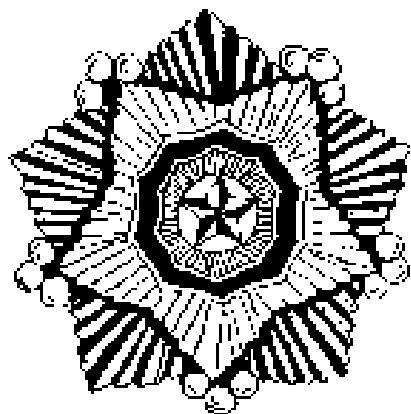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1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04)년 제1호

(루계 제 675 호)

◆◆◆◆◆◆◆◆◆◆ 차 례 ◆◆◆◆◆◆◆◆◆◆

소원의 열두달	4
병사들의 사진	5
크나큰 울림	6
설날의 소원	7
선군의 총대우에 밝아온 새해입니다	7
아동문학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8
보금자리	11
우리의 행복은 그 어디에	12
부러워하라	13
장군님과 병사들	14
불 빛	16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소설 《피바다》는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	17
전설적영웅에 대한 불멸의 위인찬가	22

놀라운 기억력	23
세 찬바람	24
전선주	36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긍지높은 찬양과 김조규의 시세계	36
명언해설	40
선군승리 행진곡	41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45
영근이삭	46
북쪽지방을 순행 하면서 (외 1 편)	55
온성에서	55
붓대의 사명을 다하고자... ..	56
후세에 길이 전해질 선군시대의 문학작품을	57
진격의 나팔소리와 같은 시를 쓰겠습니다	58
첫걸음부터	58
현실주제작품창작에 전념하겠습니다	59
필봉에 더욱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59
설날아침에	60
내 너처럼	61
샘은 깊은 곳에서 솟는다	62
날개	73
들에 내리는 눈송이	78
고려시기 《리상촌》을 그려본 작가 진화	79

소원의 열두달

김 형 준

하루의 소원이
한해로 이어지고
한해의 소원이
무궁세월로 펼쳐지는
인민의 소원 열두달입니다

정월의 설날아침
온 나라 인민이 장군님께 드리는
건강축원의 인사받으시며
설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시었으면...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2월의 탄생일날
서리꽃 하얗게 핀
백두밀영의 고향집에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3월의 봄날
양지바른 산기슭에
새로 지은 문화주택에 장군님 모시고
행복한 살림살이 보여드리고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4월의 봄명절 태양절은
인류의 영원한 봄명절 태양절!
장군님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으로 새겨주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5월의 새로 넓힌 들판에
모내는기계 푸른 주단 펼치고
강은 강마다 언제를 솟구어
타빈의 노래로 장군님께 기쁨드릴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6월의 산천엔 신록이 짙어도
가슴엔 타번지는 증오의 불길
미제가 이 땅에 덤벼든다면
총권 병사로 장군님 결사옹위하고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7월의 전승광장에
수령님을 모셨던 50년대 그날처럼
선군령장 경애하는 장군님을
운명의 영원한 수호자로 모시려는 한마음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8월의 열풍을 앞세우고
조국해방을 안고오신 수령님 모습으로
조국통일을 안고오실 장군님 우러러
통일환희의 노래가 3천리강토에 울려 퍼질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9월의 환호성은
영원한 인민의 심장의 메아리
우리 장군님을 변함없이 령도자로 모신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살아갈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10월의 붉은기
조선의 영원한 혁명의 기치
그 기발 높이 들고 장군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하나의 마음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11월은 가을을 걷어들인 들판에 첫 서리 앉으니
더욱더 깊어만 가는 생각
나라의 크고 작은 일 돌보시는 장군님
다시는 눈비내리는 농장길 걸지 마시라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12월은 《사향가》 흐르는
어머님의 고향 회령의 생가에
경애하는 장군님 찾으시어
어머님과 쌓이신 회포도 나누시었으면...
이것이 우리 인민의 소원중 소원입니다

아, 하루의 소원이
한해로 이어지고
한해의 소원이
무궁세월로 이어지는
인민의 소원 열두달입니다!

병사들의 사진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며 병사시절은 한생을 두고 긍지높이 추억할수 있는 영예롭고 보람찬 시절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군병사들은 총잡은 모습을 사진에 담기 즐겨하며 그 사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병사들의 이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꽃 피워주시는분은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주체89(2000)년 1월 24일이였다. 어느한 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예게시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몸에 일당백기상이 넘쳐흐르는 병사들의 림름한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다가 부대지휘관들에게 군인들이 군사복무기간에 사진들을 얼마나 찍는가고 문의하시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음임이어서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동행한 장령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에게는 병사시절에 찍은 사진이 얼마나 되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장령들의 대답은 각이하였다 하지만 가렬한 전쟁마당에서 홀려간 병사시절을 돌이켜보며 그때의 사진이 없거나 몇장 안되는것을 아쉽게 여기는 그들의 심정은 한결같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려깊은 시선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도 느끼는바이지만 조국보위에 청춘을 바친 병사시절이란 얼마나 잊지 못할 시절인가, 일생에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병사시절을 먼 후날에 가서 즐겁게 추억하자면 사진이 많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군인들이 병사시절을 자랑스럽게 회고할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찍어 주는것도 하나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예게시관의 사진들을 가리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진을 찍어서 영예게시관에만 붙일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한장 주고 고향의 부모형제들에게도 보내주고 모교에도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면 병사의 부모와 스승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동창생들은 또 얼마나 반가와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독사진을 뽑을 때 또 한장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소를 띠우시며 지휘관들을 둘러보시였다. 지휘관들은 호기심에 넘쳐 그이

를 우러르며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이 앞으로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면 애인을 만날수도 있다, 그때 애인에게 줄 사진이 있어야 한다, 애인에게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주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시였다.

참으로 다심하신 어버이사랑이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소문없이 애국의 삶을 바쳐가는 우리의 병사들의 장래까지 보살피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감격에 휩싸여있는 지휘관들에게 사진을 찍을 때 독사진만 아니라 분대, 소대의 집체사진도 많이 찍어야 한다고, 그래야 후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동무는 우리 분대, 우리 소대 누구인데 군대때 어떻게 잘 싸웠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다고 감회깊이 추억할수 있을것입니다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시절에 대한 추억은 집단주의와 애국주의, 동지애로 충만된 가장 고상한 사상감정입니다, 병사시절의 사진은 그것을 영원히 이어주는 소중한 재보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때문에 병사들에게 사진을 한장 찍어주어도 영원히 기념이 되게 똑똑히 찍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인민군대에 우리 손풍금수 왔네라는 노래는 있어도 우리 사진사가 왔네라는 노래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지휘관들은 전사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제때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사들에 대한 지휘관들의 사랑은 천부모처럼 세심하며 빈 구석을 몰라야 한다고, 앞으로 군대에 필립과 인화지, 시약을 충분히 보내주어 전사들이 사진을 더 많이 찍게 하며 그래서 사진사들이 병사들이 제일 기다리는 사람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예게시관에 나붙은 군인들의 사진을 또다시 보아주시면서 사진의 질을 더욱 높이라고, 미더운 우리 병사들의 얼굴이 더욱 똑똑하고 환하게 나오게 하라고 거듭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생활에서 사진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전사들이 사진을 찍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사

진마다에 보람찬 병사시절이 한껏 담겨지게 하자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을 새기며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세상에 사진이 생겨난지 오래여 사진과 관련한 하많은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평범한 전사들이 찍는 사진에 이렇듯 숭고한 뜻과 육친의 사랑이 담겨진 레가 언제 있었든가. 위대한 령장, 위대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총잡은 시절을 영원한 추억의 화폭으로 자랑스럽게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군병사들처럼 행복한 군인들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병사의 사진.

초소에서 자식들과 제자들이 보내온 그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와 스승들은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병사시절의 사진.

먼 후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병사들은 무엇을 가슴깊이 간직할것인가.

그들은 초소에서 찍은 자연깊은 사진들을 보면서 병사의 삶을 긍지와 보람으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아버지의 은정을 뜨겁게 추억할것이며 장군님의 영원한 병사로 한생을 값있게 빛내일것이다.

크나큰 울림

리진철

노래춤 흥겨운 설맞이무대들
잠들줄 모르는 행복의 창가들에서
희망의 부른 가슴들이
경건히 웃기를 여미는 새해 0시

사색깊은 컴퓨터들과
불길높은 용광로들에 잠시 교요가 깃들고
래일을 향해 뻗어간 두줄기 궤도우에
질풍같은 련차도 삼가 기적소리 낮추는 새해 0시

그 시각 쿵쿵 울려오는
발걸음소리... 발걸음소리
승엄함과 교요의 절정
태양의 성지에서 울려오는
성지층계에 나직이 울려도
무한대한 울림으로 하늘땅을 짝 채우는
우리 장군님의 발걸음소리

그 울림속에 어려온다
이 땅에 365일을 이끌어온 선군길이
그 선군길에 열려진 수백리 물길이
태양의 성지에 시원을 두고 물결쳐 노래하고
그 선군길에 받들린 언제와 공장들이
태양의 성지를 키돋움해 우리른다
전승의 광장, 경축의 거리들에 울리던 만세소리
그 울림에 메아리를 싣고 이 시각도 울려온다

그 울림속에 줄달음쳐온다

장군님 펼쳐주실 휘황찬 새해의 날과 달들이
새해엔 또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를 얼싸안을것이나
더 넓어질 전야 더 줄기찬 물줄기
더 높아질 언제와 공장들의 동음소리
더 가까워질 통일의 아침
더 밝아질 우리의 미래여

아 언제나 수령님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시며
내 조국을 빛내가시는 장군님의 발자국소리
수령님과 함께 흘러간 한해를 추억하시고
수령님과 함께 새해의 번영을 설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크나큰 울림이어

그 울림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인민의 가슴 어찌 높뛰지 않으랴
컴퓨터들은 앞을 다투어 비약의 지름길 열고
용광로들은 기세높이 번영의 불길 높인다
《붉은기》호 기관차는 기적소리 높이고
결사옹위의 수천만총대 하늘가에 번뜩인다

아, 새해가 밝아온다
민족의 무궁번영이 담보되는 태양의 성지에
우리 장군님 큰 자욱을 찍어가실 때
크나큰 그 울림에 받들려
선군조선의 새해가 밝아온다

설날의 소원

한 광 춘

건강하시라
행복하시라
아버이 우리 장군님
새해엔 더욱 젊어지시고
언제나 기쁨속에 계시라

우리르며
늘 마음속깊이 간직한 모습
새해의 이 아침엔
더더욱 몸가까이 뵈우고싶은
우리 아버지

그이는 오시리
간절한 소원안고
다함없는 축원속에
우리 지금
그이께로 끝없이 달려가듯

설눈이 내리는 산과 들을 지나
우리 집에 오시리
우리 일터에 오시리
지난해처럼 이해 설도 함께 쇠자고
우리 초소에 오시리

그렇게 눈덮인 령을 넘어
또 그렇게 비내리는 새벽길 헤쳐오시는
장군님품에 안기여
우리의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거니

가리라
빛이 되어가리라
우리 장군님
최전연 산발을 넘으시는 그 밤길에
봄바람되어가리라
눈보라치는 북방의 그 굽이굽이에

자욱자욱 따르는 우리 마음
노을이 되어가리라
비오는 저 하늘가 그 끝에라도
푸른 잎새 되어가리라
해별 따가운 저 들길 천리라도

하는 일이 모두가 그이의 기쁨이 되게
그이가 바라시는 모든것이 꽃으로 피게
뛰고 새우며 일을 하리라
결사옹위의 성새를 더 굳게 다지여
승리의 날과 날로 한해를 꼭 채우리라

또다시 크게 승리하자고
또 한번 불이 일게 비약하자고
진군의 퇴성 울리시는 최고사령관
새날의 첫 기슭에서
우리 심장이 뛸는 소원은 오직 하나

건강하시라
행복하시라
참으로 위대하신 분
우리의 조국이며 승리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여!

가사

선군의 총대우에 밝아온 새해입니다

리 남 준

제야의 종소리 울려오는 이 밤
못잊을 추억에 가슴뜨겁네
총대로 번져온 일력장들에
승리의 자욱만 새겨져있네
아, 우리의 새해는
선군의 총대우에 밝아오는 새해입니다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는 이 밤
끝없는 희망에 가슴부푸네
총대로 지켜갈 내 조국땅에

번영의 날들만 줄지어서리
아 우리의 새해는
선군의 총대우에 빛나는 새해입니다

백두산마루에 솟아오른 태양
선군의 붉은 노을 펼치여가네
총대를 앞세워 락원꾸리고
통일의 새 아침도 앞당겨가리
아 우리의 새해는
선군의 총대우에 영원할 새해입니다

아동문학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령도하시던 나날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대교육사상을 빛나게 관철하는데서 문학예술을 통한 교양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찍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발굴하시고 그를 혁명적아동문학의 근본초석으로, 영원한 본보기로 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린시절에 벌써 주체적인 우리 식 아동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본보기로 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시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조국의 품》**, **《우리 교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몸소 창작하시였으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달나라 만리경》**, **《까치와 여우》**, **《원숭이형제》** 등 흥미있는 동화작품들을 학생소년들에게 들려주시어 후대교양의 귀중한 채부로 혁명적아동문학의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우리 아동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 문학의 여러 형태와 함께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꽃피우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식 아동문학발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고 그 발전을 위해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아동문학을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그 사명과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우리 식 아동문학의 대를 튼튼히 세워주시는것은 주체적인 아동문학건설에서 이룩하신 가장 큰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작품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이다. 조국의 미래가 후대들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아동문학은 곧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로 된다.

고대,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동문학이 창조발전하여온 장구한 기간 아동교육교양에서 아동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중시하면서 이에 대해 많은 론의를 벌려왔다. 그러나 지난시기 문학예술의 한 형태로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여온 아동문학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견지에서 완전한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 더우기 아동문학에 대한 진보적인 리론들에서는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을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은 하였지만 그것을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고리로 보지 못하였으며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줄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는데로부터 출발하시어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심오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혁명전통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얼마든지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아동문학작품이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후대교육사상을 문학예술분야에 구현하시어 우리의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제시하여주시었다.

아동문학이 어린이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아동문학이 바로 후대들을 장차 주체의 혁명관에 기초한 높은 사상의식을 가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도록 하는데 풍부한 영양소로, 밑거름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려서 주입된 사상과 지식, 료리와 도덕,

정서와 관습 등은 사람의 의식속에 오래 남게 되며 그것은 그의 성장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더우기 새 세대들의 혁명적세계관을 그 골격이 설 때부터 옹계 세워주는 문제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있어서 근본요구로 된다. 여기에서 아동문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품은 철저히 새 세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심어주는데 즉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준비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주는데 첫째가는 사명을 두고 그를 형상에 구현하여야 한다.

아동문학은 새 세대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할뿐아니라 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준다. 때문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자기들의 학습 및 집단, 도덕 생활, 자연과 사회현상들을 담고있는 아동문학작품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체득하게 되며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으로 준비해나가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장래와 아동문학과 관계속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정식화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령도하시던 첫시기부터 아동문학창작에 전사회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으로써 주체적인 아동문학은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눈부신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킴에 있어서 아동문학이 지닌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근본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동문학을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성의 견지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아동문학에 대한 옹계 립장과 관점을 세워주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아동문학창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아동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그를 시원으로 하여 아동문학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세대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아동문학의 여러 형태들

에 옹계도록 하시고 그를 본보기로 아동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 아동문학이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은 어떠한것이며 그 형상수준은 어떠한 높이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불멸의 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창작하도록 아동문학의 주제방향과 형상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 아동문학은 주체적대를 튼튼히 세울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심을 구현하여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리며 그를 여러 형태의 작품창작에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신것은 우리 식의 아동문학 발전에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동문학의 특성을 옹계 규정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아동문학의 특성을 어디까지나 작가가 생활을 인식하고 문학작품에 반영하게 되는 과정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그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다.

인간과 그 생활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보고 평가하고 문학작품에 반영하는것이 아동문학의 기본특성으로 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아동문학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으로 된다.

인간과 생활이 어린이의 시야에 비껴들고 그의 시점에서 체험된것일 때 그것은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징이 구현되는 생활로 된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가는 언제나 어린이의 시점에서 생활을 보고 그의 시야에 비껴드는 생활을 그려야 한다. 객관적현실이 그 아무리 훌륭하고 의의있는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의 의식수준과 미감으로써는 도저히 파악하기 힘든것이라면 그것은 아동문학의 묘사대상으로 되기 어렵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동문학의 기본특징이 어린이의 시점에서 인간과 생활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는데 있다고 밝혀주시신것은 아동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새롭게 리해하고 창작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전적정식화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씌여지는 아동문학의 특징을 살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작품을 동심에 맞게 창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아동문학에서 동심구현은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며 아동문학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의 근본원천이다.

동심이 없을 때 그것은 벌써 아동문학이 아니며 아이들의 정서에 맞을수 없다.

아동문학작품이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되자면 거기에 동심이 잘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린이들이 그 작품세계에 쉽게 끌려들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 연령기적특성으로 하여 누구나 동심을 가지고있는데 그 동심에 공감되는 작품에만 끌려들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작품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있다 하더라도 호감을 가지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심을 구현하지 못한 작품은 아동문학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동심에 맞게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아동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동문학작가들이 소설과 동화창작에서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생활을 탐구하고 환상세계를 넓히며 동요, 동시창작에서 개념화를 극복하고 어린이들의 생활감정을 정서적으로 노래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동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동심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노래한 작품들에서 동심을 잘 살리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흠모하는 노래도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아이들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아동문학에서 동심을 옹계 구현할때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7(1978)년 4월 《학습터에서》, 《만경대의 고향집》, 《사랑의 무지개》 등 여러편의 동요작품을 지도하시면서 생동한 동심적인 형상을 통하여 심오한 사상을 밝히는 묘술을 작가들이 터득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주체77(1988)년 7월 동요목록 《우리 나라 영웅나라》를, 8월에는 동요목록 《9월명절 아침에 인사드려요》와 주체88(1999)년 6월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동요 동시의 모범을 창조하여 그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었다.

이리하여 《만경대는 꽃동산》,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정말 고운 옷》 등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시대 아이들의 사상감정이 동심적으로 생동하게 표현된 수많은 아동문학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되게 되었다.

보금자리

리진협

그것은
못잊을 추억이 애뜻이 움트는 봄날
하많은 생각에 끝없이 고요해지는
그런 때에만 마음 포근히 자리잡는
그런것
그러한것이 아니었다

레사로웠던 나날에는 너무도 몰라
때 일찍 잊고
때없이 바라며 살던 사랑과 그 은혜
눈오고 비오는 날의 요람과도 같아
내 지금은
한없이 애어린 녀이 되어 우리러 사는 품

더없이 사랑하고 애무하노라
그대 사회주의
내 삶의 보금자리여
따스한 날 차디찬 날 가림없이
그리도 자애롭고 은정깊어
그대에게 시련이 와도 함께 살고
그대 품에서는 풀죽을 삼키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마음

수령님 안아오신 우리 세상이었어라
그것은
산당지기 막바지인생이던 내 할아버지
세상 처음
세월을 딛고 선 거인이 되어 태어나던 땅
남의 집 아이보게 내 어머니
팔려가 갇히었던 대문을 박차고 나와
세상 처음
력사의 대돌우에 당당히 오르던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 봄과 인연맺고
행복한 날과 달이 찾아온 세월
천만번 흠이 된들 잊으라
통학배, 통학렬차, 치료비행길
등대섬 세 아이도 《왕궁》의 주인이 되고
어촌이며 광산 내 사는 심심두메
그런 곳이면 더더욱 걸음바빠
사랑을 수놓아 받들어주는 그 많은 삶

마음 절로 따듯해지나니
차거운 이 행성을 때때로 둘러보는 마음
자랑에 들먹이노라
유독 우리만이 누려오고 누려가는
이 아름다운 삶
우리 장군님 지켜주시는 세상이어라

한뼉 흙밖에 모르는 나같은 농사꾼을 불러
세상 처음
선생으로 스승으로 받들어준 별세상
세상 처음
정권이 집이 되어주고
땅이 어머니가 되어
별목공이며 탄부의 시중을 드는
인생의 비옥한 대지
인간사랑의 참세상

보아라
열번 다시 허리띠 조일지라도
예대로 열려있을 탁아소와 병원
공원과 극장, 휴양소의 넓은 문
원구름 내리는 방목지의 푸른 등판과
힘차게 돌아가는 타빈의 동음
그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웃으며 솟구쳐올리는 강성대국...

무엇으로 감히
이 열렬한 사랑을 식힐수 있단 말이나
불같은 인정이
내 보금자리의 들보로 얹히고
기둥처럼 내 삶을 받들고 선 땅
우리 장군님
사랑의 총대우에 굳건히
수령님의 그 사랑을 실어 축복하시는 땅아
아, 사회주의 내 나라 사회주의!

그러한것이여라
행복과 운명을 다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며 받들고싶은것
죽어서도 한줄기 바람결이 되어
또다시 쓰다듬고싶은
그리도 정답고 애뜻한 품

나의 보금자리여라
천만이 살고
억만이 숨쉬대도 하나같이 행복한
가없는 봄누리 인생꽃밭
그 품에 태어난 행운만으로도
그 기꺼움 온 우주를 채우고 남는
오, 김정일장군님의 사회주의 내 나라
여기가 나의 보금자리다
김일성민족이
무궁토록 살아갈
영원한 보금자리이다!

우리의 행복은 그 어디에

해마다 설이 오면 먼저 찾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오늘도 숭엄하게 안겨오는 그 영상 우러르며 한 계단한계단 오르는 나의 생각은 때없이 깊어진다.

바로 10년전 설날, 그날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가다듬고 텔레비존앞에 온 식구가 모여 새로운 격정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았다. 그날 아침 붉게 핀 꽃송이를 정히 안고 이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던 나는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곱씹어볼수록 아침에 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가슴속 깊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깨끗한 랑심을 안고 만수대로 오르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격조높이 노래한 한 시인의 진정에 비겨볼 때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무릇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한다. 하거늘 그 행복의 높이는 얼마만이며 그 행복의 참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도 행복을 원한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가? 물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서는 이 땅우에서 저 맑고 푸른 하늘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수 없는 우리 인민이기에...

하지만 나는 그때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사는 이 고귀한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며 파사로운가를 미처 다는 몰랐다. 복속에 살면서 그 복의 가치를 다 모르고 사는것이 진정 행복이라는것을 후일에야 깨달았다.

넉넉이 설날이 오면 우리모두에게 새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밝은 앞길을 밝혀주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해 신년사가 마지막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청청 푸르기만 하던 저 하늘에 우뢰울고 번개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7월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절통한 마음처럼 이 나라 산천도 몸부림쳤다.

거성이 떨어졌다고 지구가 깨여진것 같다고 세계도 통탄했다.

그래도 믿을수 없었다. 아니 믿고싶지 않았다.

검은 구름이 층층이 덧쌓여 폭우로 쏟아지던 하늘이 건듯 열린 7월의 그달 금수산의사당(당시)을 찾은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오로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80여성상 기울여 오신 온갖 로고가

쌓이고 쌓여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려 언뜻 잠드신 듯 싶으신 우리 수령님의 숭엄한 그 영상 우러르는 나의 뇌리는 무딘 쇠뿔뿔이에 맞은듯 했다. 밖을 나서니 저 푸르른 하늘이 왜 노랑계만 보이는지, 온몸의 피가 땅속으로 새어나가는듯 싶은 허탈감을 가까스레 다잡았다

《아버지!》라는 말도 불러보지 못한 돌이 되는 애 어린 시기에 부진을 잃고 귀밑머리에 서리불린 오늘까지 오직 우리 수령님만을 어버이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온, 그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온 나는... 아! 나는 그때 난생처음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다.

실은 내 당해보지는 못했어도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육신의 고통이 이렇게도 아프랴.

육신의 고통만이 아닌 나의 온 심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듯 싶은 이 처절한 아픔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다. 아니 참지 못할 아픔이었다. 내 인생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 숨막히는 처절한 아픔을 그 어디에도 호소할수 없는것이 또한 고통이었다.

한생의 길을 끝추 가라고 일깨워주시며 손잡아 따듯이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을 어버이로, 아버지로 모시고 즐기게 살아온 나는 그이의 고귀한 가르치심이 어린 래년 신년사의 그 다심한 음성을 다시는 듣지 못한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미여지는 아픔을 참을수 없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우리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대원수님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부르던 그때의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값높은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무겁게 걸음걸음 옮기는 만수대 높은 언덕에서 나의 생각은 또다시 새롭게 번져진다.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당한 국상을 세계는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고 원썬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진지가 무너지기를 지켜보았다.

그때야 나는 사람은 환갑이 되어야 철이 든다는 옛 사람들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아픔이 힘이라는 철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것이다.

누구보다도 가장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 바로 준엄한 그 시각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한뜻으로 일떠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

게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천지를 진감하는 이 폭풍같은 호소는 우리 인민만이 아닌 온 세상에 선대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불같은 열정의 폭발이었다.

불같은 그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산악처럼 일떠섰다.

세계는 물론 원썬들도 우리를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 갑시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또다시 새해를 맞게 되는

그 시각 다시는 들을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안타깝게 그리던 바로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뜨거운 가르치심을 주시었던 것이다. 장군님의 서한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나는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 강행군도 역척같이 걸어왔다. 아니, 우리 인민모두가...

깊어지는 생각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동상앞에 정들여 고이 마련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며 마음속으로 절절히 뇌인다.

《어버이수령님! 우리 장군님따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힘차게 곳곳이 가렵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안고서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본사기자

부러워하라

김영옥

부러워하라

아늑한 불빛아래 흥그러운 좌석아닌

눈덮인 초소에서

나는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거니

부러워하라

총가목을 틀어잡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병사를 부러워하라

이제 아침해발 퍼지기도전에

환한 웃음 지으시며 우리 장군님

내가 선 초소에 찾아오시리

나는 그이께 영접들어 총! 경례드리리

꿈결에도 뵈고싶던 우리 장군님

그이께 제일 먼저 새해인사올리고

축원의 꽃다발도 먼저 올리는

이 영광을 부러워하라

내가 부르는 노래

어머니는 보아주지 못해도

장군님께서 보아주시는

오, 이 기쁨을 부러워하라

총알처럼 다져진 훈련모습 하나하나

내가 만든 서툰 설음식에도

밝은 미소 지으시는

병사만이 누리는 이 자랑을 부러워하라

슬하에 천만자식 있어도

조국을 지키는 병사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시며

설날이면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는 장군님

부러워하라

세상에 위대하신 오직 한분

그이의 무한한 축복을 받으며

그이와 행복한 설을 함께 맞는

병사! 장군님의 병사를 부러워하라

장군님과 병사들

백 하

1211 고지

하늘우의 1211고지
중대병실 뜰가에 선채
나도 가까스로 치미는 오열을 누르고
부대장도 더 말을 잊지 못해
두눈만 습벅일뿐...

명절로 흥성이는
하늘끝 이 뜨락에
장군님 들어서신 그때는
푸짐한 명절식탁도 물리고
다시 점심 파배기를
기름가마에 담그던 때

오시는 그 길로
찾으신 주방
기름튀는 소리 즐거이 들으시며
《명절아침을 잘 차려주었소?
병사들에게 무얼 먹였소?》
중대장이 신나서 쏘는
갖가지 군침도는 명절음식
그 한가지한가지 기쁘게 들으시며
만족해하신 아버지장군님

그제야 그만 마음이 놓이신듯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환히 웃으시었네
병사들 명절식사를 알아보시기 위해
여기 최전연 막끝에 방금 들어서신듯
그 풍성한 식탁앞에 앉은

고지의 아들들을 보고싶으시여
어둑새벽 먼길을 다우쳐오신듯

《새벽 4시에 떠났소
너무 바빠 아침밥두
못해가지고 떠났소》
《네?》
부대장도 중대장도 병사들도
그만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럼 아침식사도 아직...》
아 소리없이 후두둑 눈가에
떨어지는 방울방울...

명절날의 1211 고지 아들들이
어서 보고싶으시여
도중식사조차 못싸가지고
아침도 건느시며
철령을 넘어 직동령을 넘어
달리고 달리신 아버지의 천리길이어
적진을 눈앞에 두고
오르고 오르신 사랑의 굵이굵이여

내 흐려오는 눈길로
저 아득한 대지를 내려다보나니
하늘가의 이 봉우리
어찌하여 이리도 높던가
아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사랑 하늘끝에 솟아
그 이름 1211고지여라

가장 작은 창고

나는 들어보지 못했노라
최고사령관이
중대의 일일창고에
들어가보았다는 말
그 어느 나라 이야기에서도

허나 가신 곳마다
장군님 먼저 찾으시는 곳

중대식당에 붙어있는
조꼬만 방, 일일창고

해빛도 비치들지 않고
갖가지 냄새가 뒤섞여 풍기는
일일창고에 내 서서
뜨거웁에 젖어 보고 또 보노라

중대살림이 갖춘
참나무나물, 말린 고사리
기름단지, 식초통, 고추가루봉지
주련이 놓인 작은 독들엔 씨불이였구나
가지, 오이, 마늘...

우리 장군님 기쁘시여
하나하나 만져보시고 꺾쳐보시고
열어보신 독들, 단지들...
알뜰한 중대의 살림살이

들려오누나 그날에 장군님
메주장통의 뚜껑을 여시고
구수한 냄새풍기는
장맛도 친히 보시며 하신 말씀
-평양에서 만든 장보다
더 맛이 좋습니다

낮은 천정아래
찌렁찌렁 방을 울린

푸른 열매 맺힌
무성한 감나무아래
밝게 웃으며 맞는
단발머리 애어린 얼굴들
내 귀여운 딸들을 만난듯
사뭇 사랑스러웠노라

허나 바다가에
그대들 제손으로 꾸린 소금밭에서
하얀 소금 한줌 천재
다시 그대들 얼굴 여겨봤노라
너무도 엄청난 꿈을 품은 그대들
그 어느 사내대장부들인들
그 생각을 따르라

놀라웠노라
그대들 해안포진지에
번개같이 나는 훈련모습들
불이 이는 그 눈빛들
내 전화의 날 인천앞바다가에서
결사의 포탄을 안고 섰던
옛 전우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듯

사나이들도 익히기 어려운 포를 말고
애어린 처녀들 포병이 되어
이 로병의 한가슴을

그 호탕하신 음성
그 어떤 우람찬 전투장비를 보신대도
그처럼 기뻐하셨으라

아, 일일창고, 일일창고,
가장 작은 창고
허나 가장 풍성한 창고
장군님 보내주신 콩기름, 건간장
온갖 부식물과 조미료가 가득찬
사랑의 창고

나는 여기서 보노라
우리 병사들 날마다 끼니마다
끝없는 그 사랑을 자양분으로 받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일당백 냇이 됨을
바로 이 조꼬만 방에서
무적의 힘이 억세게 일어서고있음을
바로 이 일일창고에서
크나큰 승리가 시작되고있음을

녀성 혁명가들

뜨겁게 휘저어놓은 녀성해안포병들아

내 그만 냇을 잃은듯
그 자리에 굳어졌노라
그대들의 훈련장에서
태동하는 날바다에 화살같이 꽃히어
온 바다를 손안에 거머쥐고
창파를 누비는
그대들은 용맹의 수리개들

내 고백하노라
딸들을 바라보듯
귀여움을 품고 보던 내
놀라움과 경탄에 넘쳐 그대들을
끝없는 선망의 눈으로 우러르노라

나는 보았노라
이 세상 가장 용감한 녀성투사들
위대한 장군님 키워주신
이름높은 감나무중대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이여!

까치봉에 환희의 폭풍이 이다
최전연에도 막끝
까치봉마루에 입대배낭을 내려
몇몇해가 흘러도 그대들은

산을 내려보지 못했다

마치 한바다의 무인디아와도 같이
인적이 끊어진 나무와 수풀속에서
그대들이 맞선 첫 싸움은
적막과 고독과의 싸움

다만 구름과 안개비와 바람소리뿐
초소의 풀대사이로
적의 헌병초소를 노려 피를 태우며
말없는 결사의 순간순간
한몸으로 조국의 안녕을 지켜선 곳

그대들 가장 큰 고통은
장군님 뵈고싶은 마음을 참아가는것
밤이면 텔레비죤화면앞에서
최전연을 찾으신 장군님사랑에
더운 눈물을 삼키다가도
문득문득 소스라치던 생각은 무엇이던가

그리워 그리워
가슴이 재가 된대도
여기 까치봉
이 험한 까치봉에만은
우리 장군님을 모실수 없지!
입술을 깨물던 다짐
굳어지고 또 굳어지던 다짐

헌데 이 어인 일이신가
철쭉꽃 붉게 덮인
하늘끝의 까치봉정점
지휘감시소에 소문도 없이
우리 장군님 오르셨다!

최전연에도 한끝
가사

머나먼 전선의 아들들을 찾아
깎아지른 백수십굽이
아찔한 벼랑턱을 누비고 또 누벼
까치봉마루에 오르셨다

울컥
뜨거운 눈물을 쏟고 또 쏟으며
까치봉에 환희의 폭풍이 터졌다
아버이장군님
까치봉의 자랑
김광철영웅중대의 병실에도 들러
영웅의 수첩도 따뜻이 보여주시고

하늘중천
몽실대는 구름우에서
그대들을 모두 대견스레 곁에 세우시고
장군님 까치봉을 통채로 들어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나니

이제는 병실에 들어서도
모포를 펼쳐보시는 장군님모습
식당에 들어서도 간장병 드시고
색갈을 살피시는 장군님모습
깊은 밤 감시소에 서도 수고한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장군님모습
달이 가고 해가 가도
까치봉은 온통 그날의 그 격동뿐

아 장군님
까치봉의 천년 적막을
순간에 훑날려 보내시었네
산정의 고독을 영원히 깨쳐주셨네
인적이 끊어진 하늘우에
장군님 환희의 세계를 펼쳐주셨네

-최전연에서-

불 빛

차명숙

인민들 단잠에 든 마을을 지나
천리 먼 전선으로 불빛흐르네
장군님 야전차의 그 불빛어려
이 강산엔 희망찬 아침이 밝네

병사들 기다리는 전선 끝까지
험한 령 넘고넘어 불빛흐르네

장군님 야전차의 그 불빛안고
온 전선엔 무적의 총검설레네

내 나라의 번영위해 몇천 몇만리
선군의 그 한길에 불빛흐르네
장군님 야전차의 그 불빛따라
최후승리 앞길이 밝게 열리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소설 《피바다》는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

고 철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기초 축성시기에 문학예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기하시고 그이의 현명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혁명소설 《피바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옮긴 기념비적대작이며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원작에 충실하도록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가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것은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장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그대로 잘 살리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피바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입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4.15문화창작단에서는 수령님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장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옮겨놓았습니다.》

주체소설문학이 자기의 본보기작품을 내세우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 해명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에게 참다운 투쟁의 길,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는 이러한 문제가 주체사상적내용으로 제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렸다해도 주체소설문학의 본보기로 될수 없다.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 있다.

원작이 그러하듯이 장편소설 《피바다》에서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심오한 종자를 천명하고있다.

작품의 종자속에는 일제강점하의 우리 나라의 비극적현실이 반영되어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과 비극적운명이 담겨져있다. 이와 같은 종자로부터 작품에서는 혁명이란 무엇이며 왜 혁명을 해야 하는가, 혁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제로 설정되며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라는 위대한 반제혁명사상과 무장폭동의 진리가 심오하게 밝혀지고있다.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은 주인공인 어머니의 성격장성과 정, 세계관형성과정을 통하여 깊이있게 해명되고있다.

소설에서는 순박한 주인공이 착취받고 압박받는 과정에 세상물정에 눈뜨게 되고 세계관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며 나중에는 낯은 사회를 뒤집어엎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깊이 형상하고있다.

남편없이 한시도 못산다던 어질기 그지없는 주인공 순녀가 원쑤일제와 그 식민지통치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혁명투쟁에 나서기까지에는 가지가지 피맺힌 생활체험이 쌓이였다. 원한에 찬 피바다속에서 그처럼 민던 남편 윤섭을 잃고 의지가없이 시련의 가시덤불을 헤치며 세자식을 거느리고 살아가야 할 순녀의 기막힌 처지는 순박한 그에게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누구보다도 장렬하게 가지게 하였으며 혁명투쟁에 나설 각오를 굳게 다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작원 조동춘의 적극적인 영향밑에 혁명의 진리를 깨달은 순녀는 귀여운 막내자식인 을남이를 원쑤들에게 잃으면서까지도 혁명조직을 구원하며 총을 들고 폭동에 참가하는 높은 혁명적세계관의 소유자로 되는것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천대받는 우리가 살길은 혁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해야 원쑤를 갚고 나라를 찾을수 있으며 장차 잘살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유격대가 총을 들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가고 우리들이 목숨걸고 싸워갈 때 피바다에 잠긴 우리 나라는 반드시 독립될것이며 해방의 새 아침은 밝아올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을 합시

다. 혁명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이것은 왜놈을 죽치고 성시를 해방한 마당에서 주인공 순녀가 군중들앞에서 한 연설이다.

소설은 어머니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피압박대중에게 있어서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투쟁의 진리와 함께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으며 이 땅위에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는한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반제혁명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특히 장편소설에 관통되어있는 총대중시사상은 선군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력사의 교훈을 안겨주고있으며 혁명소설의 커다란 사상예술적 감화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있다.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시고 력사에 의해 그 진리성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원리이며 혁명의 법칙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망국노의 쓰라린 가슴을 허비며 수난의 피바다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것은 손에 총대를 쥐지 못했기때문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피의 교훈을 일제군경들의 무차별적인 《토벌》만행에 의해 피바다에 잠긴 마을과 특히 주인공의 남편 윤섭이의 희생장면을 통하여 절절하게 보여주고있다.

달삼이를 비롯한 한패의 마을사람들이 묶이여오는것을 본 윤섭이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손에 찬 삽자루를 들고 무작정 놈들에게 달려든다.

(아, 총이 있었으면... 내 손에 총이 있었으면...)

윤섭이는 놈들에게 체포되어 노가지나무에 높다랗게 묶이여 화형당하기 직전에도 자기가 죽거나 산다는데 대해서는 가뭇 생각이 없고 다만 내 손에 왜 총이 없느냐 하는 의문만 가슴을 쥐어뜯고싶은 안타까움속에서 케고 또 케는것이였다.

(우리 손에 총이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혀죽지는 않을것 아닌가. 왜 우리는 총을 못가졌단 말인가...)

윤섭이는 확확 번져오는 불길속에 휩싸이면서도 뜨겁다는것을 느끼기전에 가슴이 아팠다.

(원통하구나, 불쌍한 조선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 피바다속에서도 우리 조선사람은 울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도 총을 잡고 싸워야 한다. 총을 잡고 저 원썩놈들과 싸워야 한다!)

윤섭이의 이 피맺힌 원한은 주인공 순녀와 원남이, 갑순이 등에 의해 풀려진다. 소설에서는 상동지구의 혁명적인 군중들이 유격대의 뒤를 따라 총을 들고 폭동에 떨쳐 나서 왜놈들을 죽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총대

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격조높이 강조하고있다.

이처럼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오늘도 선군시대를 빛내여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되새겨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로,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가 주체소설문학의 본보기로 되는것은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고있기때문이다.

소설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묘사문학이다.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초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행동과 사상감정, 자연 및 사회력사 적환경과 생활세부 등이 모두 작가의 객관적인 묘사에 의해 주어진다. 또한 작품에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립장, 묘사대상에 대한 작가의 사상미학적인 분석등이 모두 객관적인 묘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묘사야말로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소설에서는 영화나 가극에서와 같이 노래를 비롯한 여러가지 효과를 동원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묘사를 더욱 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원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의 초고를 몸소 보아주시면서 소설에서는 형태적특성을 살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작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기는데서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살리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였다.

장편소설 《피바다》의 첫 장면을 보기로 하자.

원작을 옮긴 영화문학에서 《음산한 날씨 금방 소나기가 퍼부으려는자!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비오기전 바람이 수림을 흔들며 지나간다.》는 지문이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있다.

《유난스러운 날씨 였다.

봄이면 꽃이 피고 새가 운다지만 이해의 봄은 야단스럽기만 하다.

우르르 하고 시꺼먼 구름이 달음박질쳐오더니 하늘땅이 온통 캄캄해졌다. 둔덕의 풀밭도 부처산기슭의 나무숲도 막 몸부림을 치며 설레인다. 기르마

고개밀 연자방아간에서는 무엇이 와지곤하고 부서져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옆의 세그루 백양나무는 방금 넘어질듯이 몸을 뒤편에서 마침내 그 우듬지에서 까치둥우리가 허물어져내렸다.》

이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편소설에서는 영화 문학과 달리 달음박질치며 엉키고 서리는 검은 구름과 세찬 바람, 무엇이 와지곤하고 부서져나가는 소리, 지어는 나무우듬지에서 허물어져내리는 까치둥우리가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유난스런 봄날의 번덕스러운 날씨를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을남이를 달래는 갑순이의 모습도 그러하다. 소설에서는 너무나 속이 상해 커다란 눈이 오목해지고 입술이 까실까실 말라든 그의 얼굴표정과 발버둥을 치며 우는 을남이의 악을 쓰는 모습을 엿갈려 그리면서 눈앞에서 보는것처럼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다.

장편소설 《피바다》가 소설로서 읽을 맛이 있고 새로운 감동을 주는것은 이처럼 묘사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에서 묘사는 《토벌》을 당한 다음 별재마을로 찾아갈 때 내가에서 원남이가 갑순이에게 아버지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나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올 때 발구를 타고오는 장면, 갑순이가 죽은 을남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같은데서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의 초고를 보시고 이러한 장면들은 이미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준 장면이기에 소설에서도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소설에서 별재마을로 찾아가는 도중 어린 원남이가 갑순이에게 어머니앞에서 아버지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장면을 보기로 하자.

장편소설에서는 이 장면에서 영화나 가극과 달리 세부묘사를 통하여 소설의 특성을 살리고있다.

그것이 바로 갑순이가 이제껏 치마말기에 정히 간수했던 분지나무잎사귀에 대한 묘사이다. 갑순이는 그 때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못해 그 슬픔과 고생속에서도 아버지가 좋아하는것을 보고싶어 분지나무잎을 소중하게 품속에 간수하여왔던것이다. 이러한 세부는 영화나 가극에서는 주어지지 않고 장편소설에서만 그려진것이다.

장편소설은 바로 이러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어머니와 원남이 그리고 갑순이의 내면심리를 서로 교감시킴으로써 그 감동성을 높이고있다.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 역시 장편소설에서는 소설의 묘사적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사실상이 장면만 놓고보아도 영화나 가극에서는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와 같은 노래가 심금을

울려주니 감동이 크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쓸수 없다. 그대신 장편소설에서는 자기의 묘사적가능성을 충분히 살려 이 장면을 다른 예술형식들 못지 않게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어머니를 발구에 눕히고 돌아오는 언덕길은 정다운 길이였다.

하얗게 피어서 쇠여버린 억새꽃이 바람에 날리어 얼굴을 간지럽혔다. 빨간 저녁노을이 곱게 비낀 한쪽 언덕에는 각색 들꽃이 피어나고 그우에 고추잠자리가 낮추 떠돌았다. 으스름은 자꾸만 먼곳을 메우며 다가왔지만 보라빛구름을 뚫고 마지막잔광이 어머니가 누운 발구우를 따뜻하게 비추어었다.》

이것은 감옥에서 나온 어머니를 발구에 눕히고 돌아오는 언덕길에 대한 자연묘사이다. 장편소설에서는 들국화 만발하고 노을이 붉게 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 그리고 어머니와 갑순이, 을남이의 내면심리를 보여주는 묘사를 통하여 깊은 정서와 감동이 넘치게 하고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되고 어머니에게는 새삼스럽게 아이들이 애뜻하게 느껴지는 감정세계, 눈길만 마주치면 울어버릴것만 같은 감정세계를 흐트러진 어머니의 귀밑머리에서 하얗게 세여버린 머리칼을 찾고 눈물이 그렇게지는 갑순이와 언덕에 핀 들국화를 정신없이 꺾어 어머니앞에 안기는 을남이의 행동 그리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내면심리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만약 이 장면을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감동적으로 묘사하지 못했다면 장편소설에서는 영화나 가극에서와 같이 큰 감흥을 주지 못했을것이다.

을남이의 죽음장면만 보아도 해금독주의 절절한 선율에 이어 대관현악과 대방창으로 무대를 울려주는 혁명가극과 달리 장편소설에서는 감동적인 묘사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는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소설과 뒤생활

원작을 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옮기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뒤생활을 잘 하고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옮긴 장편소설의 초고를 몸소 보아주시고 소설에서는 소설의 특성에 맞게 더 전개할것은 전

개하면서 뒤생활을 잘 파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원작을 다른 문학예술형태로 옮기는 경우 뒤생활을 판다는것은 원작의 심오한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해 원작에 그려지지 않은 생활을 매개 문학예술형태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탐구하여 그리는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특성을 살려 뒤생활을 파고들으로써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독자들이 지루감을 느끼지 않고 읽을 맛이 있게 하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인공 순녀와 그의 남편 윤섭이의 과거를 뒤생활로 파고있다.

순박하면서도 강의한 어머니의 성격과 그의 사상적인 성장과정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처지, 어떤 계급적인 토대에서 자란 인물인가를 생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얼마든지 전개하여 그릴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는 자기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순녀와 그의 남편 윤섭이가 배나무골로 옮겨오기 이전의 생활을 뒤생활로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고 철이 들기전부터 황희도네 집 부엌데기로 일해야 했던 순녀의 기막힌 생활처지, 비록 아씨가 입다 버린 꿰어진 저고리며 단이 너털너털했던 토스레치마를 걸쳤지만 부엌데기라고는 믿기 어려울만치 복상스럽고 이쁜 순녀의 용모, 그가 황희도네 집에 머슴살이를 들어온 윤섭이를 무서워하면서도 마음끝리게 된 처녀시절이야기며 황희도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섭이와 순녀가 동네어른들앞에서 랭수 한사발을 떠놓고 성례를 올린 이야기 그리고 이듬해 겨울에 첫 애기 원남이를 낳고 황희도네 천대에 더는 참을수 없어 하루밤 불쑥 보짐을 해지고 천암령을 넘어 배나무골에 이른 이야기가 생활적으로 구수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편 소설에서는 이러한 뒤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주인공 순녀의 성격의 전모를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는 파고든 뒤생활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인간다운 면모도 감동깊이 그리고 있다.

그 실례로 명찬이의 뒤생활을 들수 있다. 명찬이로 말하면 말끝마다 《도대체》 소리를 입버릇처럼 옮기는 《담배북청》으로 이미 영화와 가극을 통하여 독자관중들에게 알려진 개성적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그가 덤비기는 하지만 갖은 태와 멋을 부리며 그처럼 노래를 멋들어서게 한다는것을 사람들은 장편소설을 보기전에는 미처 몰랐을것이다. 소설에서는 왜놈 《토벌》대가 닥쳐왔다는것을 마

을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총창에 찔리우면서까지 종을 치는 그의 희생적인 행동의 밑바탕에 어떠한 생활감정이 흐르고있었는가에 대해 깊이있는 해명을 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명찬이가 지난해 봄에 옷동네에서 인물 잘나고 목청끝기로 소문이 난 시월네를 안해로 맞이했으며 금방 옥같은 첫 아들을 보아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그의 뒤생활을 파고있다.

이러한 생활이 깔려있기에 기르마고개에서 달삼이와 함께 번을 서면서도 명찬이는 삼대독자의 최씨집안 대를 이을 아들자식의 이름지을 궁리를 하는것이며 왜놈 《토벌》대가 기여들어온것을 보고 종을 쳐야겠다고 깨닫는 순간에도 눈길을 사랑하는 안해가 갓난 아들을 끼고 누워있는 다정한 마을쪽으로 돌리는것이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에서는 뒤생활을 파고들으로써 명찬이의 희생적행동의 밑바탕에 흐르는 인간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감동깊이 그리고있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는 제1부의 1편과 2편 사이를 영화적구성을 그대로 따라 《세월이 흘렀다》라는 자막 하나로 비약시켰던 초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2편 첫 머리에 유격대원으로 자란 달삼이의 생활을 통하여 시대적변천과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정을 생활적으로 개괄해줌으로써 소설적인 맛을 돋구고있다.

이처럼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의 종자에 맞게 전개할것은 전개하면서 뒤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소설의 특성을 훌륭하게 살리고있다.

생활과 밀착된 심리, 감정, 주정토로

장편소설 《피바다》가 원작을 옮긴 영화나 가극 못지 않게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소설의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작가의 주정토로가 생활과 밀착되고있기때문이다.

문학작품이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생활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죽음과 같다.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창작초기만 하여도 작품은 이러한 결함들을 일부 내포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결함들을 고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거나 생활과 밀착되지 않는 심리, 감정, 주정은 아무리 잘 그렸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장편소설 《피

바다》에는 주인공 어머니의 심리와 감정을 비롯하여 작가의 주정토로와 주어진 이야기들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 될수 있었다.

장편소설에서 남편 윤섭이를 원수들에게 잃은 어머니의 심리와 감정을 더듬어보자.

작품에서는 이 한장면에서도 주인공 순녀의 복잡하게 엉켜진 내면심리를 생활과 밀착시켜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해부하고있다. 남편을 잃고 슬픔과 절망속에서 몸부림치는 순녀의 설움과 그런 슬픔속에서 복잡하게 갈마드는 지나간 생활에 대한 가지가지 추억, 남편없이 살아가야 할 앞날에 대한 불안과 위구, 그런속에서도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돌려지는 애뜻한 정,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리라는 굳센 마음 등을 서로 엮바꾸 어가면서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에서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진 주인공 순녀의 심리가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안겨오는것은 그것이 그의 성격과 생활체험에서부터 스스로 흘러나온것이기때문이다.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럴수만 있다면 남편과 나란히 무심히 땅속에 묻혀 죽고싶은 충동, 생전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가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본 일까지 가슴에 맺혀 후회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볼수도 없게 남편의 시신을 제 손으로 물어버린것이 한으로 되는것과 같은 주인공의 생각은 남편없이는 한시도 못산다던 순박한 그의 성격과 흘러간 생활체험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온 진실한 감정인것이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의 심리묘사에서 감정의 실미리와 색깔을 정확하게 잡고 수시로 엮바꾸어지고 영키는 다양한 색채의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나감으로써 주인공을 산 인간형상으로 잘 부각시키고있다.

모든것이 귀찮고 남편과 나란히 땅속에 묻히고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가도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끓여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나고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다시 남편생각이 솟구쳐서 증증해졌던 슬픔이 왈각하고 넘쳐오는것은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로서, 남편없이는 못산다던 순박한 안해로서의 가식이 없는 진실한 감정의 흐름인것이다.

이처럼 상편소설 《피바다》에서는 이 장면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묘사에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인 정황과 생활체험에 맞게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있게 그리고있으며 심리의 구체적인 세부에 이

르기까지 섬세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범벅을 먹는 장면만 하여도 원남이와 갑순이의 성격과 습관상 차이를 강조해주려던 나머지 작가가 자기 말을 불필요하게 늘어놓았던 초기의 부족점들을 고치고 범벅을 먹는 남매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들을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체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작가의 주정토로도 생활과 밀착되게 적절한 대목에서 진실하게 주고있다.

어머니의 출옥장면을 보면 어머니와 아이들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인정세계를 여러가지 묘사수법으로 진하게 그리면서도 여기에 작가의 주정토로를 생활적으로 밀착시켜줌으로써 장면의 사상에술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아니다! 어머니가 왜 서럽단 말인가!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이상으로 어머니의 고생을 가슴아파해주는 식솔이 있다! 그렇다!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있다. 비록 어리지만 어머니에게는 을 남이가 있다, 갑순이가 있다.

작가의 이 주정토로가 정다운 집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새 생활을 개척해나갈 어머니의 굳센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있다면 그뒤로 이어지는 작가의 말,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에 가장 미더운 품, 혁명의 품이 있다는 격조높은 주정은 그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어머니와 아이들은 억세게 혁명의 한길을 걸어나가리라는것을 힘있게 시사해주고있다.

이렇듯 장편소설 《피바다》는 주인공 어머니를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작가의 주정토로를 생활과 밀착시킴으로써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었으며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살려 높은 사상에술적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주체소설문학의 고전적본보기로,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선군혁명문학의 왕성한 창작과 그 성과를 담보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문학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소설을 본보기로 삼아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전설적영웅에 대한 불멸의 위인찬가

-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두고 -

최명희

새해가 왔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속에 밝아온 새해의 이 아침,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힘찬 사회주의진군을 고무추동하며 가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정성환작)이 시대의 장엄한 메아리로 힘있게 울려 퍼진다.

천고밀림 흰눈우에 첫 자옥 새기시며
빨찌산 일가의 뜻을 이은 장군님
백두산 김대장의 붉은기 날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항일전의 그 나날을 장군님 추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밀림의 눈이 내렸네
사회주의 지켜서신 오늘의 김대장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적진에 번개치며
위대한 백두전법 전선길에 빛내시네
조국위해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가요는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빛내가시려 오늘도 빨찌산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전설적영웅으로 열렬히 노래하고있는 찬가로 하여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였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눈보라속에서 천연의 설경을 봄날의 꽃바다처럼 삼고 설한풍을 요람으로 하여 빨찌산의 아들로 이 세상에 전설같이 오시여 천고밀림에 첫 자옥을 새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 선군혁명천만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훌륭히 부각하고있다.

가사는 인민의 다함없는 축복을 받으셔야 할 우

리 장군님께서 인적드문 태고연한 밀림속 귀틀집에서 탄생하시던 력사의 그날을 깊은 추억속에 뜨겁게 받아안게 하고있다.

특히 《천고밀림 흰눈우에 첫 자옥 새기시며》의 구절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크고작은 천조박들과 자기들의 솜옷에서 한줌두줌 뽑아낸 솜으로 쪽무이포단을 만드는 빨찌산녀대원들, 조선에 대통운이 났다고 백두산거목에 광명성탄생의 환희의 기록을 남기던 그날의 항일혁명투사들의 걱정 모습들.

인민의 마음, 인민의 축복을 대신하듯 신기한 자연현상을 펼쳐던 백두산대자연의 황홀경...

가사는 위대한 빨찌산장군의 거룩한 첫 자옥을 깊이있는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면서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려가시는 우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시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옥을 이어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진두에 거연히 서계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철령과 351고지, 오성산과 1211고지, 초도와 판문점으로 이어진 선군혁명령도의 그 나날 어느 한 시도 수령님을 잊으신적 없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으셨던 초소에 가시여선 수령님의 현지도사적비부터 먼저 찾으시고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내이실 철석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시던 위대한 신념의 세계를 함축된 가사형상속에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동해에서 서해로, 조국의 북단 자강땅에서 남단의 최전연초소으로 총횡무진하시며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우리 혁명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백전백승할것이라는 필승의 혁명적신념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천고밀림》, 《백두산 김대장》, 《항일전의 그 나날》, 《위대한 백두전법》 등의 언어 표현을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위인

상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또한 노래의 매절 마지막행에서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빨찌산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힘있게 강조해주고있다.

이처럼 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안으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백

두산의 기상을 안은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뜻깊은 시적형상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신 30돛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는 새해 아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빨찌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것이다.

혁명일화

놀라운 기억력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이 한창이던 때였다.

관계부문 일군들이 고심하는 문제가 있었다. 릉에 안치할 혁명렬사들을 확정해 보고드려야 하겠는데 좀처럼 문건을 완성할수가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전에 주신 방향에 따라 해방전에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뿐아니라 해방후에 사망한 투사들까지 포함하여 아는것 안을 잡은 대상이 30~40명정도였는데 겨우 이름만 적어놓은 대상이 태반이였다. 아무리 간단히 한다고 해도 생년월일, 난곳, 사망년도 정도는 밝혀야겠는데 해방전에 희생된 련사들에 대해서는 거의나 아는것이 없었다.

그래서 문건을 올리지 못하고 일군들이 애타하던 주체62(1973)년 8월 9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성산 주작봉의 릉건설장을 몸소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퇴약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릉건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련사릉에 안치할 대상선정 사업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문건을 그때까지도 완성하지 못한 일군들은 자책으로 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는 일군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펼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활달하신 필체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잠을 안자고 혼자 생각해낸 사람만 해도 60명이 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술한 일군들이 머리를 짜고 문헌고를 뒤져가면서 여태껏 안을 잡은 대상이 기껏 30~40명에 불과한데 그이께서 하루 점심시간의 짧은 시간에 60여명의 련사들을 생각해내신것이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드신 종이에 혁명렬사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 매 사람의 생년월일이며 난곳, 사망년도는 물론 혁명에 참가한 년대, 지어 전사한 날자와 장소까지 적혀있는 것이였다.

그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 40명 련사들의 이름을 더 적어보내주시면서 필요한 자료들까지 함께 보내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로부터 어언 수십년 세월이 흐른 때였다. 하지만 산천이 변하고 강산이 뒤바뀐 그 세월의 풍상속에서도 혁명전우들의 고귀한 생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기억력이 남달리 뛰여 나서만이 아니다. 혁명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잊을수 없는 혁명전우들에 대한 한없이 고결한 의리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때문이다.

세찬바람

석 유 균

1

밤은 깊어만 갔다.

자정이 찍 지났으나 세차게 불어치는 초겨울 바람은 더 기승을 부렸다.

휘유스름한 달빛아래 거뭇하게 보이는 숲은 째-째- 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고있었다.

이 땅에 포연을 몰아온지도 어언 세번째 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인민군대의 드센 타격에 련속 참패를 당한 미제와 그 추종국들은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전선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것은 무기와 탄약이었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간파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 전선에 걸쳐 놈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길 작전적방침을 펼치시었다.

전시생산을 늘일 긴급대책을 세우기 위한 꼬미사(지도소조)성원으로 영평지구에 내려온 산업성 책임부원 류명국은 오래간만에 송배전소 소장 유현을 만났던것이다.

이 지구의 공장, 탄광지배인들과 추가생산과제를 놓고 토의를 거듭할수록 명국의 마음은 저절로 무거워졌다.

놈들의 폭격으로 혹심하게 파괴되고 많은것이 모자라는 조건에서 현재 생산을 보장하는것만도 아참차다는것이 첫눈에 알리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해도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 적시며 적들을 죽치고있는 전선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만이 아닌 전시물자를 생산보장해야 한다는것은 미룰수 없는 긴급한 과제였다.

증산과제를 보장하기 위한 원료, 자재량들을 시급히 산출해야만 하였다.

차거운 바람이 몰아치는 산길로 사산송배전소 소장 유현이와 함께 말을 타고 부지런히 밤길을 다그치고있는 류명국의 생각은 저절로 깊어졌다.

협의회가 끝난후에도 영국은 공장지배인들과 만나 생산보장문제를 토의하느라고 퍼그나 늦어서야 숙소에 돌아왔다.

오래간만에 만난 기쁨속에 저녁식사를 같이 치른 뒤에는 송배전소로 돌아간줄 알았던 유현이 그때까지도 숙소에서 말뚝잠을 청하면서 명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따로 만나게 된 명국은 반가움뒤에 놀라움이 뒤따랐다.

협의회에서 추가동력보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는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선 자리에서 선선히 대답하였다.

다만 변압기유(기름)만 보장해달라는것이였다.

그의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온것만 같아 꼬미샤위원장인 산업성부국장이 그루를 박았다.

《추가동력을 제때에 보장하겠다고 좋소. 이것이 전시증산에서 관건적인 문제이기때문에 동무네가 요구하는것이라면 될수록 우선적으로 풀어주겠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자재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추가로 제기하오.》

직업적인 타성때문인지 원래 성미가 꼼꼼한 유현이 수첩장을 펼치고 부지런히 계산하며 추가로 받은 과업을 세심히 따져보고는 무거운 안색으로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직 30대에도 이르지 못한 젊은 나이였으나 몇 년사이 눈귀에 잔주름이 생긴것을 보니 그도 퍼그나 고생이 많았던것 같았다.

그러던 그가 그사이 필요한 자재를 새롭게 산출해가지고 찾아온것 같았다.

아니면 자기 마음처럼 하루밤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회포를 나누고싶어 왔는지?... 의문과 반가움이 뒤섞인 가운데 명국은 그의 손을 끌었다.

《추가자재는 래일 토론하구 자. 이리 와 앉게.》

내성적인 성품그대로 말없이 명국의 눈치를 살피던 유현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형님, 늦었지만 나하고 같이 갑시다.》

뜻밖의 말에 명국은 첫 순간 영문을 알수 없었다.

《형님이 여기까지 왔다가 집에 들리지 않으면 큰 어머니(명국의 어머니)가 섭섭해할것입니다. 반나절이야 시간을 낼수 있지 않나요. 달두 밝은데 같이 갑시다. 올 때에는 우리 말을 태워보내겠으니가요.》

그의 뜻밖의 간청에 명국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은근히 끌리었다.

그가 부득부득 이끄는 바람에 명국은 속구구로 왕복 50리길을 타산해보는데 곁에 있던 부국장까지도 등을 떠밀었다.

《류동무, 어머니를 만나보우.

공장들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원료자재를 산출하자면 반나절은 품이 더 걸릴게요.

실사 그새 일이 제기돼도 우리가 맡아 처리할테니까 걱정말구 어머님을 만나보고 오오.》

반나절 말미를 얻은 명국은 유현이가 타고온 말에 같이 올랐던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전 그들은 선교리에 있는 사택마을의 앞뒤집에서 살았다.

금속공학을 전문한 류명국과는 달리 전기관리국에서 일하는 유현이었으나 전기기수검정시험을 치르면서부터 더 자주 찾아와 그의 서가에서 기술서적들과 문헌들을 자주 빌려가기도 하고 공학부문의 어려운 공식들을 끈덕지게 물으면서 끝까지 해득하기가 일쑤였다.

명국은 젊은 나이에 탐구심도 강하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약전공학을 파고드는 그가 기특하게 여겨져 언제나 너그럽게 대해주곤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 달포만에 그만 미체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한낱한시에 부모와 어린 두 동생마저 잃고 혈혈단신이 되어 인정이 그리워진 유현은 명국을 형님처럼 따랐다.

인민군대가 파죽지세로 놈들을 쳐부시며 재진격하던 시기 병기국에서 복무하던 명국은 급기야 산업성으로 소환되 었다.

강제에 피난갔던 가족과 함께 평양길에 올랐던 명국은 그때 하루밤을 묵게된 산골마을에서 뜻밖에 유현을 만나 서로 기뻐 손을 놓지 못했다.

전기기술자로서 초모에서 제외된 유현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희생된 사산송배전소 소장의 후임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시 말수가 적었던 그는 무거운 책임감때문인지 성미가 더욱 파목해졌다.

새벽밥을 먹고 길떠나려 서두르는 류명국을 막아선 유현은 몇번 갑자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형님, 미국놈들의 비행기들이 밤낮으로 폭격을 들이대는 평양에 가족을 데리고갔다가... 혹시 불행이라도 당하면 어쩔려구요.

산골이긴 해두 제 나라 땅이니 쉽게 맘 불일거예요.

내 큰어머니를 성의껏 돌보겠어요.

명옥(명국의 누이동생)동무두 고중출신이니까 우리한테선 요긴한 일을 할수 있을겁니다.》

명국은 젊은 나이에 풍파를 다 겪은 살람처럼 생각을 깊이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려는 그의 의향을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했으나 낮이 선 산골마을에 혈육을 두고 떠난다는것으로 하여 저으기 마음이 무거워졌던 명국이였다.

아까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초벌안부는 물었으나 2년만에 찾아가는 길이어서 영국은 그리움이 앞섰다.

《우리 어머니넹 펍 늙으셨겠지. 명옥이는 어떤가.

... 일은 제대로 하나?》

《큰어머니두 그사이 펍 늙으셨어요.

어려운 싸움을 하는 때이니까 고생이 막심하지요.

그래두 큰어머니는 기력이 이전보다 더 왕성해요.

... 우리 마을은 물론이려니와 이 근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큰어머니손을 빌리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오죽하면 이 소장이름은 몰라도 조산원 김복레라면 읍거리에까지 소문났겠나요.》

좀처럼 말이 없던 그에게서 오래간만에 속부드러운 말을 들으니 명국의 마음도 어지간히 풀리였다.

어머니가 산골에선 귀한 미역을 구해왔다가 산모들에게 요긴하게 쓴다는것이며 20리 떨어진 와대마을에 새로 생긴 전상자병원에도 자주 찾아가 때로는 며칠이고 눌러있으며 준의의 일손을 돕곤 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유현은 슬며시 말머리를 돌리였다.

《명옥동무두 우리 송배전소에선 큰어머니 못지않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바쁜 통에도 어찌나 이악하게 파고드는지 약전은 몰라도 강전에서는 이젠 이 소장도 찹찌먹게 되였으니까요.

원래 고중때 수학을 잘한것 같아요.

그 어려운 력률공식도 인차 해득하는걸 봐서는 ...》

파목하던 그답지 않게 말이 해퍼진 그를 보며 명국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긴장하게 맞물린 드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짜내여 밤길을 가게 한 자기 변명을 하느라고 서두르는것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혹시 어느 책에서 본것처럼 마음속 아픈 고충을 안고사는 사람일수록 속아픔을 감추려고 말을 많이 한다는 웅심깊은 사람의 은근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착잡한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가늠해보던 명국은 웃음섞인 그의 마지막말에 놀랐다.

《명옥동무가 이제는 말도 곧잘 탑니다.

선로반에 말을 처음 가져왔을 때 그놈이 녀자라고 얼마나 갈겠는지 두번이나 떨어졌댔지요.》

《그래, 크게 상하지는 않았나?》

《웬걸요. 고중때 체육을 해서 그런지 여유있게 모로 떨어져 일없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말을 못타게 했지요.

그래두 선로감시를 갈 때마다 얼마나 졸라대는지 내가 지고 말지요.》

너그럽게 웃는 그의 말을 듣느라니 어언듯 전쟁전에 있었던 일이 즐거운 마음으로 떠올랐다.

어느 명절날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록두목을 하겠다며 명옥이에게 앞집에 가서 망돌을 빌려오라고 했다.

이윽고 한꺼번에 망돌을 랑손에 들고 들어선 명

옥을 보고 어머니가 놀라와하자 그는 첫마디부터 불이 부었다.

《앵이, 무슨 남자가 그래요.

궁상스레 책을 한책상 펴놔으면 공부나 할게지 전기고대까지 꺼내놓고는 때고 불이고... 냄새만 피우면서...》

납땜 냄새가 크게 없겠지만 그는 끝살을 찌프렸다.

《망돌 두개를 한꺼번에 들고 오느라고 빠근했던 게로구나. 그 사람 탓할게 있나.

네가 하나씩 가져올 노릇이지.》

어머니는 넓게 피어나는 미소를 감추려고 가볍게 눈을 흘기자 명옥은 볼부은 소리를 했다.

《나도 처음엔 하나만 들고 마루방을 나서려했지 요뎁. 그런데 어느새 눈치했는지 전기고대를 끄고 뒤 따라서더군요. 그래서 아예 내가 한꺼번에 두개를 다 들고 나왔어요. 돌미륵같은 사람손을 빌리기 싫어서요.》

《그런 소리 말아. 그 사람이 전번에 조립한 라지오가 짹짹 소리나더라.

이번에는 5구라지오를 조립한다는데 재간이 여간만 아니야...

아무려면 너같은줄 아냐.》

딸을 청원하는 어머니의 말에는 유현에 대한 믿음이 은근히 실리었다.

《내가 어쨌다구요?》

《으흐... 그렇게 윈새끼만 꼬다나면 네 손해지 뭐냐.》

웃음을 거둔 어머니는 부러 정색해졌다.

《너자라는거야 네 형님처럼 얌전해야지.

오지랍이 넓게 돌아치면서 아무데서나 웃고 떠들고... 체신머리없게 놀지 말구 좀 채심해라.》

《흥, 이 넓구 밝은 세상에서 뭐가 모자라서요... 웃으며 즐기는게 생활인데 나라구 혼자 궁지구 살겠어요.》

그렇게 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다구.》

《프쯔... 너같이 치마벗구 맨날 뿔이나 따라다니 다가는 외눈이 아니면 절름발이가 태우지 않나 바라.

누가 속바른 너자루 치부하겠다더냐.》

《호호, 별걱정 다하세요. 이담에 두고 보세요. 나 보담 키도 한뼘이나 크고 멀끔하게 생긴 부드러운 호남아가 적 나서지 않나.》

《호호, 저런 더퍼리를 누가 휘어잡겠는지 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옷방에서 류명국은 모녀가 속삭이는 말을 들으며. 혼자 웃던 때의 일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미소가 그려졌다.

평양1녀고에서 통구림 공격수로 인기를 모으면서도 오고가는 일을 다 참견하며 부산을 피우던 명

옥이를 보고싶은 마음이 향수처럼 젖어들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즐거움과 웃음만을 안고살아온 그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때없이 짙 눈물을 흘리며 퍼그나 변했을테지. 과연 변모되었다면 어떻게?

아무리 그려보아도 가슴이 가지 않았다.

그 웃음, 그 활기가 퇴색되지 않고 활기넘치던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하지만 맑고 투명한 그에게 지금 명국은 자기가 안고있는 비통한 사연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알알했다.

아무리 가슴아파도 숨길수 없는 사연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지금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전쟁전 어느 가을날이 어제일처럼 생각났다.

강쪽에 밀려나간 작은 돌바위에서 겨울날 먹이를 찾아드는 송어를 낚으려고 낚시대를 깊숙이 드리우고있는데 도란도란 아래편에서 하는 말이 소슬바람에 실려오고있었다.

《형님, 대동강물이 맑다못해 얼마나 푸른지 이걸 담그면 금시 파랗게 물들것 같아요.》

흰 빨래감을 든채 말하는 명옥을 보며 눈웃음을 짓던 안해는 짐짓 웃음을 거두며 한마디했다.

《어서 담그랴요. 누이한테는 흰 브라우스보다 파란색이 더 어울릴것 같은데 물들면 뭐래요.

더 고울텐데.》

그 말에 명옥이도 손에 든 빨래감을 물에 담그고 행구었다.

그리고는 건듯 들어 물을 짜보고는 제멋에 겨워 아부재기를 쳤다.

《애개개, 파란 물이 들줄 알았는데... 더 희여졌으니 어쩌나.》

《호호, 그것 보랴요. 암만 그래두 희고 깨끗한 본색이 어데 가겠어요.》

누이만 해두 덜통하다거니 남자번지기라거니 말해두 깨끗하고 다감한 그 성품이야 어데 가겠어요. 호호.》

입을 가리며 웃는 제 울케의 목을 그려안으며 명옥이는 강반이 들썩하게 크게 웃었다.

《호호, 우리 형님이 제일이야. 언제 봐두 내 마음을 꼭 알아준다니까...》

난 그래두 정말 파란 물이 들었으면 했어요.

그러면 두벌웃을 입어보는건데...》

안해는 그의 소원을 잊지 않은것 같았다.

설밑에 가서 생활비에 상금까지 탄 안해는 푸른 머리수건을 명옥이에게 사다주었다.

《어마나... 형님두 참... 내가 이걸 어떻게...》

그것을 쓰고 거울앞에 나섰던 명옥은 기뻐 어쩔줄 모르면서도 속다른 소리를 했다.

《아니, 너야 아직두 학생인데. 그게 네 형님한테

어울릴게다.

그 감색 머리수건이 변변치 않은데.》

결에서 보던 어머니가 머리수건을 잡아채서 머느리 한테 돌려주었다.

명옥은 못내 섭섭해하는 기색이었다.

그 눈치를 췌 안해는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소곤거렸다.

《일없어요. 키도 마음도 이제는 다 큰 누이한테 이런 시원한 색이 어울려요.》

안해는 부디 명옥이의 옷갈피에 그것을 찢어넣었다.

명옥은 그것을 고이 간수했다가 놀러갈 때면 쓰고나서 제 동무들한테 자랑하곤 했다.

그런 안해가 지난여름 8.15대폭격때 부상자들을 업어나르다가 재차 날아든 놈들의 비행기총탄에 절명하였다.

불타는 애육원에 뛰어들어 부모없는 어린 남매를 그대로 품에 안은채...

그 일을 알면 명옥이가 얼마나 가슴아파하랴.

아니, 머느리를 딸보다 말없이 더 내세워주려 원심심하며 아껴주던 어머니는 가슴찌지게 통곡할것이다.

생각할수록 명국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밤이 깊어 삼태성이 기울어서야 그들은 달빛에 거뒸하게 보이는 야산 산락에 붙여지은 반토굴집앞에 이르렀다.

유현은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답지 않게 집에 들어갈 생각은 않고 볼 일이 있다면서 말을 타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2

살 한장 겨우 깔아놓은 반토굴집은 초라하였으나 모녀의 알뜰한 체취가 그대로 풍겨났다.

반가움이 앞서 떠들썩해진 집에 들어선 명국은 눈물부터 흘리는 어머니를 보자 속에 품고있던 말을 제대로 할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동생의 살뜰한 정을 오래간만에 나누는 명국은 저도 모르게 코허리가 매워왔다.

어슴푸레한 광술불에도 어머니의 머리가 하얗게 바랜것이 눈아프게 안겨들었다.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은채 그를 쓰다듬어보며 흐느끼던 어머니가 목이 메인채 덤덤히 안부를 물었다.

《머늘에는 어떠냐?》

《우리 형님이야 어디 가도 칭찬이니 여전하겠지요?》

명국은 목이 메여 미처 대답을 못하고 덤덤히 눈길을 떨구었다.

어머니의 말보다 명옥이의 간절한 물음에 더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리라는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였

다.

중말이었던 머리를 쌍태로 뺨아늘인 퍼그나 준수해진 명옥이가 인차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물었다.

《형님은 잘 있겠지요? 정말 보고싶네.》

기대어린 그의 눈길에 그만 가슴이 섬찝했다.

상봉의 기쁨도 채 나누기도전에 비통한 소식으로 그들의 어린 마음을 후벼낼수 없다는것을 직감한 명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냈다.

《음, 잘들 있다. 그저 여기 걱정뿐이지.》

하는수없이 영국은 가슴아픈 소식만은 뒤로 미루기로 생각했다.

문안이 오고 가는 가운데 뿌연 불빛에도 명국의 모색을 눈여겨보던 명옥은 차분히 가라앉은 어조로 혼자말처럼 뇌이었다.

《오빠도 얼굴이 펴 축갔어요. 힘든게지요.》

《힘들다뿐이겠니. 모두 피를 흘리며 어려운 싸움을 하는데... 본시 약질인 머느리는 어떻게 견디는지 원... 다친데는 없냐?》

또다시 걱정을 앞세우는 어머니의 말에 명국은 아픈 마음을 참으며 하는수없이 탄전을 부렸다.

《우린 일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명옥이가 전쟁통에 혼기를 놓치면 어쩌겠느냐고 걱정이던데요.》

몇달전에 안해가 하던 말을 다시 뇌이는 명국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었다.

그 말을 들으며 다감한 정이 어리는 명옥이의 그 옥 한 눈가에 물기가 번들거리었다.

《내가 형님한테 걱정만 끼쳐드리던걸 생각하면... 이제 만나선 용서를 빌고싶어요.》

정깊은 그 말을 피하려 명국은 여기엔 폭격이 심하지 않느냐고 슬며시 물었다.

명옥은 웃으면서 산골이여서 걱정이 없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지난달에도 폭격에 끊어진 고압선을 잇다가 두 젊은이가 전기에 감전되어 희생되었다고 실토정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오빠에게 공연한 걱정거리를 말한다고 명옥은 말없이 어머니를 흘겨보았다.

그립던 오빠에게 단란한 가정의 기쁨만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애모쁜 명옥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피어났다.

명옥은 고리짝에서 종이에 쓴 파란 머리수건을 꺼내었다.

《형님한테 전해줘요. 내가 상탄것이예요.》

《그만 뒤라. 이런것이야 처녀들이 써야 곱지.》

명국은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산골에서야 뭐래요. 아무리 폭격이 심해두 평양에야 사람들 눈이 많잖나요.》

맙시고운 우리 형님한테는 처녀처럼 어울릴거예요.》

명옥은 한사코 그것을 내밀었다.

《받아두렴. 저두 생각이 깊어 아껴두던것인데.》
어머니까지 두둔해나서며 그것을 가방에 넣어주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다감한 처녀답지 않게 더퍼리처럼 여겨지던 동생이 어려운 시기에 어찌면 그리도 속이 깊어졌는지 명국은 즐거운 생각에 끌려들었다.

아니 그의 성품보다도 말투까지 달라진것이 더 놀라왔다.

명국은 안심치 않아 또다시 여기 형편을 물었으나 명옥은 한시코 손을 내저었다.

《우린 일없어요. 소에선 모두 우리 소장때문에 걱정이지요워. 위험한 일이 생겨도 침식을 소에서 하다나니 제 먼저 알고 뛰어드니까요.》

《하긴 그 사람 고생도 말이 아니지.》

왜서인지 입맛을 다시고 난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 뜻을 알고싶어 명국이 되물자 어머니는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사람이 왜 점점 달라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번에 폭격이 심해서 찾아가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노상 말 한마디 없던 그 사람이 글썽 사람들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큰소리치는걸 난 처음 봤구나.》

《그건 어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었어요. 우리 소장인들 발편 잠 자는줄 아세요.》

《젊은 나이에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까 책임이 무거워져 그러겠지요.》

오래간만에 들어보게 되는 모녀의 즐거운 심경이에 명국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그러면서도 유현에 대해 노여움을 풀지 못해하는 어머니보다도 오히려 그를 두둔해나서는 명옥이를 새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날이 새기전에 눈을 좀 붙이라고 아래목에 자리를 깔아주는 어머니의 권고에 잠을 청하면서도 그 생각이 떨어지지 않았다.

헤여진지 2년밖에 안되었으나 너무나도 많은것이 변모되어 10년 세월이 흐른것 같지만 여겨졌다.

무참한 파괴로 많은것을 잃어버린 어렵게 된 생활보다 그속에서도 즐기치게 살아가는 그들이 더 크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새 잠이 든줄 알았던 명옥이가 살며시 일어나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오빠, 요담에 올 땐 형님사진이라도 하나 가져다주세요.》

저세상사람이 된줄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만 움해있는 그한테서 또 다른 말이 나올가봐 저어되어 명국은 눈을 감은채 고개만 끄덕이었다.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숨소리를 들었는지 명옥이는 어둠속에서 또 속살거리었다.

《오빠, 우리 형님을 아껴줘요.

지내보니 얼굴 마음 다 고운 우리 형님같은 사람은 없어요.》

《걱정말구 네 처신이나 바로 해라.》

명국은 년장자답게 통명스레 속 빈소리를 했다.

《내 걱정은 말아요. 나두 이제 전기기수시험을 치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대학에 가서 약전을 배우고 싶어요.》

《너자가 무슨 전기공학을...》

《아니예요. 알고보니 전기문세가 얼마나 깊이있구 재미있는지 오빠다는 몰라요.》

《납땜냄새가 역하다고 골살 찌프리던 때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약전을 배워?》

《어마나, 내가 언제요...》

창호지로 스며드는 달빛속에서도 곱게 눈을 흘기는 명옥이 열여덟살 처녀시절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래서 명국은 한마디 더 보냈다.

《궁상스레 때고 붙이고 하는 일이 네 성미에 맞겠냐?》

《참 오빠두, 말보다 생각을 깊이 하는게 얼마나 좋아요. 궁상스럽다니요?》

《음, 그랬었구나. 난 그런것을 모르구 네가 그런 사람은 질색인줄로만 알았지...》

그말에야 깨도된 명옥이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으려고 이불깃으로 입을 가리웠다.

《오빠두 참, 그런걸 언제 다 알았나요.》

《내가 그런걸 어떻게 알겠냐 그저 생각뿐이었지.》

명국은 비주름히 웃으며 돌아누웠다.

정말 그가 전기공학의 신묘한 세계에 끌렸는지 아니면 사람마음에 끌렸는지 오묘한 풀이를 해보면서 명국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날이 흰히 밝아서야 눈을 뜬 명국은 옆자리들이 비어있는것을 보고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가 어느새 지어놓은 새벽밥을 먹고 명옥이는 벌써 출근하였다는것이다.

조밥에 시래기국 두부찌개에 김치가 전부였으나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지어준 아침밥을 달게 먹은 그는 누빈 솜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밋밋한 산타에 의지해서 지은 반토굴은 첫눈에도 겨울을 나기에는 어수선했다.

한쪽에 무겨놓은 새초무지에서 실한것을 서너단 플라 지붕부터 엮으려 했다.

했으나 뒤따라나온 어머니는 한사코 말렸다.

《그만 뒤라. 낮참엔 가야 할텐데 그새 다문 한 두 시간이라도 눈을 좀더 붙이렴.

유현이 그 사람이 주인도 없는 빈 집에 한달구지

실어다왔으니 시간을 내서라도 제 손으로 엮어놓을 게다.》

어머니말대로 소장이 째깍이 도와주겠지만 모녀의 살림이어서 남자손이 갈데가 많았다.

다시금 도끼를 찾아든 명국은 강대를 패기 시작했다.

얼마후 멀리 검푸른 하늘가에서 먼 우뢰처럼 웅글은 소리가 울려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그라망편대가 날아들며 폭음이 울리었다.

《에그, 저 <까마귀>들이 벌써 날아오누나.》

가시물을 들고 나온 어머니가 남모르게 걱정했다.

《올해 여름부터는 어찌나 폭격이 심해졌는지... 저 육실할놈들이 매양저수지언제를 폭격하는 바람에 하루밤사이에 술한 사람들이 수장되었단다.

저놈들때문에 송배전소사람들도 퍼그나 애를 먹지.》

밤눈에는 미처 가려보지 못했지만 외진 산골에도 폭격의 흔적이 사방에 드문했다.

어머니말에는 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의 신상에 위험이 미칠가봐 저어하는 위구가 진하게 서려 잔 걱정을 앞세웠다.

《명옥이야 그래도 소장이 곁에서 돌봐주겠지요. 너무 걱정마세요.》

남자 못지 않게 뛰어다니는 명옥이라 해도 매사에 빈틈없고 침착한 소장이 곁에 있으니 착실하게 돌봐 주리라는 기대로 명국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했으나 어머니는 첫마디부터 고개를 저었다.

《말두 말아. 어려운 때 본심이 나타나다더니 날마다 달라지는게 그 사람 마음이야.》

어찌 알겠니. 본시 말이 없는 사람이니 나두 처음에는 날이 갈수록 시무룩해지는걸 보구선 어려울때이니 일이 힘들어 그런가보다 했지.

하지만 근간에 와서는 말만 적어진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눈치가 달라졌어.

제 어머니 다음으로 여기던 나한테까지 그러니 명옥이한테야 여복하겠니.》

《참 어머니두, 별말을 다 하시누만요.

유현이야 사람이 진국인데 바쁘데 시간이 없어 그러겠지 아무렴 어머니를 피하겠어요.》

어머니를 위안하느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명국은 마음 한구석이 켕겨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니, 그럴만한 일이 있었나.

너한테야 뭘 숨기겠나. 지난 여름에 여기에두 비행기가 줄폭탄을 쏟아부어서 송배전소사람들이 모두 떨쳐나 열흘나마 피해복구에 떨쳐나선적이 있었지.》

그는 서글픈 심정으로 그때 일을 자상히 말하였다.

그날도 김씨(어머니)는 딸의 저녁밥만이 아닌 때

식을 설치군 하는 유현을 생각해서 그가 좋아하는 수수지짐까지 지저가지고 송배전소로 찾아갔다.

산굽인돌이를 돌아 뒤문쪽으로 향하던 김씨는 주춤해졌다가 저도 모르게 덮걸음 돌아서 애술포기에 그만 제모습을 가리우고말았다.

작업총화를 짓는지 여러문명 모여선 사람들앞에서 유현이가 뜻밖에도 다급한 말마디로(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수는 없으나 저녁바람에 실려 열띤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열을 올렸다.

더우기 뒤편에 서있는 나이 지숙한 배전반장과 앞줄에 명옥이가 고개를 꼭 숙이고있는 모습을 멀리서 띄여본 김씨는 가슴이 후두두 떨리었다.

필경 그네들이 말밥에 오른것이 분명했다.

(저 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처음 보게 되는 일이어서 퍼그나 놀랐던 김씨는 한동안 진정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흩어진뒤 뒤따라 가보니 명옥이는 배전반에도 없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배전반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어색한 낯으로 말이 없이 고개만 저었다.

여기저기 찾아보던곁에 나무가지를 잔뜩 찍어다 위장해놓은 대형변압기뒤에서 눈물을 짜고있는 명옥이를 보았다.

황급히 눈물을 훔친 명옥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제 어머니를 보고는 고개를 외로 틀었다.

다그쳐 캐고들자 한참만에야 겨우 《제가 배전반을 비웠했어요.》 하고 잣아드는 소리로 한마디 말만 할뿐 종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도 콧직한 저녁밥꾸레미는 기꺼이 다 받았다.

은근히 부아가 난 김씨는 소장을 찾아가려 했으나 너무 야박한것만 같아 발길을 돌리었다.

어두운 길을 터벅터벅 혼자 걷는 김씨는 목에 가시가 걸린듯 속이 내려가지 않았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도 당돌하던 애가 고개도 들지 못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보아도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그가 말썽이나 부릴것 같지 않았다.

김씨는 왜서인지 민음이 상실당하는듯 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 때까지 걸어온 자기 인생의 갈피를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처녀시절 마을에 박물집을 지고 와서 입심종계 녀두리를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던 장돌뱅이에게서 들은 말까지도 불쑥 생각키웠다.

조물주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가 궁리하던 끝에 자기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적어도 자기처럼 키우려한다는것이다.

하지만 후날 시집가서 두자식의 어머니가 된 김씨는 문득 그 말을 새겨보며 귀한 자식들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릇 어머니들은 귀한 자식을 키우면서도 매를 드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했다.

일본놈들의 총칼에 무참히 숨진 남편의 의로운 뜻대로 비둘기같은 남매를 더 잘 키우려고 남모르는 눈물도 더 많이 흘리었다.

홀어머니로 남보다 더 애끓는 정을 쏟아부으며 모지름을 썼는데... 그래서 해방후에 나라의 땃땃한 역군으로 자라난 아들을 대견하게 보며 그만이 아닌 딸까지도 마음에 았을 티마져 내 먼저 삼키며 제 마음껏 나래쳐보라 은근히 부추기곤 하였다.

제 마음껏 배우고 생활을 즐기라고... 현대 나라가 어려워진 지금에 와서 남의 말밖에 오르다니 생각할수록 김씨의 마음은 허전해졌다.

그 마음을 다 잡지 못해 제 딸만이 아닌 유현이한테도 노여움이 이어져 그를 만나면 전후사연을 캐여 물어보려했던것이다.

덜통한 성미에 잘못이 있다면 제 누이동생처럼 조용히 타일려주면 좋지 않느냐고, 다 큰 처녀를 못사람들앞에서 꾸짖다니 그러면 처녀의 인품이 어떻게 되겠는가고 따지고싶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유현을 조용히 만날수가 없었다.

(그때 일을 눈치채서인지 그도 조용히 만날 자리를 피하는 눈치같았다.)

그런 선입견이 김씨에게는 두억시니같은 의혹으로 혹처럼 부풀게 하였던것이다...

멀리 산너머로 흘러간 세줄기 송전선을 지켜보며 김씨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송전선이 저쪽으로 지나갔으니 그 사람이 오다가다 들리곤 했는데 근래에 와선 걸음이 떠지는것만 같다.

하긴 내가 없을 땐 빈집이라도 겨울나이준비랑 땀 나무랑 저렇게 해놓긴 하지만 예전처럼 오손도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길 않는구나. 어찌다가 길에서 만나두 인사말이나 할뿐이지 눈치 무딘 내가 봐두 슬쩍 피하는것만 같다. 저두 인정이 그리운데 무엇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원...》

마지막말을 더듬는 김씨는 슬며시 저고리고름을 눈가에 가져다댔다.

어머니의 서글픈 이야기를 듣고보니 명국이기도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오기도 종시 집에만은 들어가지 않은 유현의 처사가 다시 생각되었다.

(급한 일은 무슨 급한 일,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면 4~5시간이나 나를 기다렸다가 재밤중에 데려왔을라구?)

기쁨이란 여럿이 나눌수록 커진다는데 모녀와의

반가운 상봉에 유현이가 없었던 아쉬움이 또다시 돌이켜졌다.

했으나 명국은 헌헌한 어조로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어머니두 참, 놈들이 지금 이런 산골까지 폭격을 들이대는 판이니 시간을 따로 낼 짬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그게 뭐 우리 탓이라더냐.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마음이야 끝은대로 있어야지.》

김씨의 푸념을 들으며 명국은 더 세관게 나무를 켰다.

일이 어려워 진다 한들 유현이의 마음이 이그러졌으리라고는 선뜻 믿고싶지 않았다.

나이들면 노여움도 많아진다고 김씨도 자기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는 명국을 시통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더 보냈다.

《요새는 점점 더 낮이 시퍼래서 다니니 옆에 사람들 마음이 편하겠나.

우리 명옥이를 또 울리거나 않는지 그게 걱정이야.》

《그래두 그 사람은 명옥이 칭찬만 하던데요.

그 애가 전기문제가 밝아져서 자기두 한시름 놓인다구 하더군요.》

《하긴 그 애는 그저 우리 소장, 우리 소장하면서 그 사람일이라면 쌍지뽕이를 쪼고 나서니 무슨 놈의 감투끈인지 나도 모르겠다.》

명국은 어머니의 푸념을 너그러운 웃음으로 받아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못 생각을 깊이하며 한마디 더보냈다.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봐라.

마음속에 무엇이 웅겼는지 그걸 알아야 풀게 아니냐.》

《알겠어요, 어머니. 오해라도 있다면 풀어야지요.》

어머니를 위안하는 말만이 아니었다.

명국은 떠나기전에 유현을 다시 만나리라 마음먹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의 살뜰한 마음으로 힘을 주고 믿음을 줘야 할게 아니겠느냐고. 더우기 나이 많은 어머니까지도 노엽혀서야 되겠느냐고 한마디 따끔하게 침을 놓고싶었다.

나무를 다 패놓고난 명국은 퍼그나 떠오른 해를 가늠해보면서 주섬주섬 떠날 준비를 했다.

집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던 명국은 밖에서 나무가리를 쌓던 어머니의 말에 불쑥 문밖을 나왔다.

《아니 저 애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야. 아까 검산쪽에서 폭격소리가 들리더니...》

명국은 어머니의 눈길따라 동구쪽을 바라보았다. 먼지를 뽕얇게 일으키며 명옥이가 말을 몰아오고

있었다.

3

명옥이가 네굽까지 놓으며 남자못지 않게 말을 몰아오는것을 보고 명국은 놀랐다.

명옥은 땀안에 들어서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물부터 찾았다.

《오빠한테 보내는 말이에요.

시내까지 타고가서 우편국(체신소)에 가져다주세요.》

그러면 저녁녘에 채송원이 다시 이리로 타고 온다는것이였다.

말고삐를 받아친 명국은 어머니에게 언뜻 작별인사를 남기고나서 훌쩍 말에 올랐다.

그때에야 명국은 헤어질 때 마음속으로 버르던 안해의 미보를 전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하긴 다급하게 떠나게 된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을 마시고 나오던 명옥이가 작별인사대신 말에 매달리며 따라나서는것이다.

《오빠, 날 등너머 썸터까지만 태워다줘요.》

《아니, 오던 길을 되돌아선단 말이나?》

거기는 너의 송배전소하고는 반대쪽이 아니냐?》

명국은 놀라와 그를 돌아보았다.

《어찌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검산리쪽으로 갔는데...》

《어휴, 그놈의 폭격에 선이 또 상한게로구나.》

번번이 당하는 일이어서인지 어머니조차도 첫마디에 알아채고 근심하였다.

그 말에 명국은 닥침 놀랐다.

《배전반에 빨리 가서 전기를 꺼야지 배전공이 자리를 뜨면 어찌겠다는거냐.》

《나두 몰라요. 우리 소장은 정전시키지 못하게 하니깐요. 그래서 걱정이지요 뭐.》

《안돼, 전기를 안다면서두 그래, 당장 가서 전기를 꺼라. 누가 뭐라면 국의 지시라고 해라.》

무작정 떠나는 오빠의 말에 명옥은 금시 울상이 되였다.

《우리 소장이 검산선만은... 절대로 끄지 못하게 하는걸 난들 어떻게 해요.》

(그럼 산줄작업을? 목숨을 내대는 위험한 일을?...)

명국은 뇌리를 치는 다급한 생각을 하면서도 안타까움에 젖은 명옥의 얼굴에 땀방울만이 아닌 눈물까지도 방울져흐르는것을 피곳 보았다.

(처녀의 자존심으로 그렇게도 도담하던 저 애가 어찌면 샌님같은 유현이에게 꿈쩍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다니....)

명국은 불시에 속이 불끈해졌다.

명옥은 얼굴이 상기된 그를 보자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리였다.

명국이 역시 그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말머리를 돌리면서 빨리 가서 정전시키라고 다시한번 이르고는 말을 몰았다.

그제서야 명국은 동생에게 따뜻한 위안의 말로, 작별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더우기 그와 헤어지면서 되돌려주려던 푸른 수건이 아직도 자기 멜가방속에 그대로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

학교에서나 집안에서나 못사람들에게 떠받들리우며 웃음만을 피우던 그 서늘한 눈가에 눈물이 방울져내리는 명옥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져렸다.

뜬 쇠가 달면 무섭다더니 오죽했으면 명옥이까지 안타까와 눈물지으니 그러고보면 어머니의 말도 한갓 늙은이의 잔걱정갈지 않았다.

전후사연은 어떻게 빨리 유현을 만나야 한다.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것만 같은 위구가 점점 더 짙게 서리였다.

송전선을 따라 말을 달리는 명국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소잔등같은 고개를 넘어 드넓게 펼쳐진 등판을 가로질러간 송전선을 따라 세차게 말을 몰았다.

분화구와 같은 폭탄구멍이들이 듚성듬성 나진것을 보며 명국은 고요가 깃든듯 싶은 외진 산촌에도 전쟁의 여파가 세차게 불어오고있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말을 몰아가던 명국은 잡판목이 우거진 야산어귀에 이르러서야 유현을 찾아보았다.

방금 파헤쳐진 폭탄구멍이, 전주대아래켠에 박힌 손바닥만 한 파편, 그보다 파편에 맞아 송전선 한선이 절반나마 끊어져 탈리며 신음소리처럼 웅웅거리어었다.

동선통구리와 바줄, 삽과 곡괭이가 놓인 옆에 앉은 유현은 고개를 짓속인채 투박한 승주기를 신고 있었다.

놀라움을 늦군채 명국은 애써 태연한 기색을 지으며 혼연히 물었다.

《여기서 혼자 뭘하나?》

그제야 고개를 들며 힐끗 마주보는 유현의 눈길은 온곱지 못했다.

아마도 멀리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는 그를 지켜보면서 그 역시 불쑥 나타난 명국을 못마땅하게 여긴 모양이 였다.

《형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언제나처럼 유현의 어조는 조용했으나 되묻는 눈길은 쫓쫓해졌다.

소나무에 말고삐를 매어놓고난 명국은 태연한 자

세로 다가갔다.

《가던 길에 자네를 좀 만나려구...》

혼자서 뭘 하려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전주대를 보강할 지지목과 받침대를 찍어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지요.》

미소어린 명국의 대범한 자세에 기가 질려서인지 유현이는 고개를 숙인채 맥빠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끈끈하게 차비를 서두르던 그는 전주대에 오르려고 서둘렀다.

《조금만 기다리게. 이제 정전을 시킨 다음에 선을 이어야지 혼자서 산줄작업을 하다가는 큰일 날려구 그러나.》

그를 피끗 돌아보는 유현은 대뜸 한마디했다.

《어느 세월에도 기다려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면 짧은 패들이 제 먼저 전주대에 오르겠다고 하겠는데요.》

《명옥이한테 다짐했으니까 이제 정전시킬거네.》

고개를 떨구던 그의 낮빛은 퍼렇게 질러였다.

《뭐라구요? 안됩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이 선만은 정전시키지 못해요.》

누구보다 자기가 명옥을 믿는다는것이다.

하긴 집에서 실개천 건너 한마장밖에 안되는 송배전소에 벌써 두번을 가고도 남았을텐데 아직도 정전시키지 않는것을 보면 명옥이도 그가 못박아놓은 말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명국은 은근히 속이 뒤틀렸으나 그의 감정을 서둘러 건드려놓아 손까지 떨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의 여유만은 잃지 않고 조용히 말하였다.

《전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네. 정전시키고 일을 하게. 전번에도 산줄작업을 하다가 짧은이가 들썩이나 목숨을 잃지 않았나.》

본의 아니게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는지 고개를 픽 돌리는 얼굴에는 어느덧 찬서리가 불리우는 듯 했다.

《형님은 전선에서 이 시각에도 결사전을 하고있다는걸 알겠지요.》

우리도 역시 여기서 소리없는 전쟁을 하고있어요. 여기서 제 한목숨 위하러는 사람이 없어요.》

땡땡하게 맞서는 어조만이 아닌 시퍼렇게 돌변한 그의 안색에 명국은 은연중 어머니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가슴속에 엮갈리던 생각이 하나로 이어지며 준엄한 현실이 누그러지고 부드러웠던 그의 성미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하였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명국은 《아무리 엄혹한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끝은 마음을 잃지 않아야 사나이지 성미마저 이지러지다니.》 하는 생각이 울컥 치밀었으나 다시금 애써 자제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무 덤비지 말게. 기껏해야 한두시간만 정전시

키면 넉넉할걸 가지고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뭘 한두시간때문에 목숨을 내댈 생각은 아예 말게. 이젠 성의 지시라는걸 명심하게.》

《성의 지시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시를 어길 량심의 의무가 있어요.》

《뭘? 량심?》

순간 격해진 명국이 그를 쏘아보며 두어걸음 다가섰다.

했으나 더는 다가서지 말라고 못을 박는듯 유현이 내뻗친 손탁에 밀려 몸을 휘청이였다.

(이렇게도 매정스러운 사람이었던가.)

그러니 고정한 어머니의 한을 사고 웃음이 헤렸던 우리 명옥이까지 눈물을 찔지.)

어머니의 한숨어린 말이 뜨겁게 들려오는듯 싶어 명국은 숨을 죽인채 그를 지켜보았다.

(자네가 이런 사람인줄은 정말 몰랐네.)

했으나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으려는듯 엉금엉금 걸어가던 유현은 전주대를 부여잡으며 창공을 올려다보았다.

세찬 바람이 불어치는 음울한 창공으로 지나간 세 줄기 고압선을 지켜보는 유현은 전주를 부여안으며 승주기의 한 발을 걸었다.

순간 명국은 모든 생각을 잊고 그에게로 급히 다가가 무작정 그의 옷자락을 잡아끌었다.

《안돼, 정신있나. 그러다 무슨 일을 치려구.》

《놔요... 정 이러면...》

한팔로 전주대를 감아안은 유현은 명국을 한팔로 드세게 밀쳐버렸다.

그 서슬에 두어걸음 비칠거리며 뒤걸음질치던 명국은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에게 눈을 떼지 못하였다.

《자꾸 이러지 말아요.》

이 선으로는 평양으로 전기가 흘러요.》

《평양으로?!》

그의 서리찬 눈길보다도 평양이라는 말에 놀란 명국은 자기도 모르게 입속말처럼 되뇌며 그를 지켜보았다. 유현의 세모진 눈이 차츰 풀리며 투명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내비치였다.

(그래요. 형님!)

(평양?! 그럼 이 선으로!...)

(최고사령부로 전기가 흘러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시각에도 작전대앞에 서계실거예요.)

(!)

(나만이 아닌 우리모두가 한몸이 그대로 끊어진 선을 이어서라도... 한시각이라도 정전시킬수 없다는것이 우리모두의 마음이지요.)

말보다도 더 많은 뜻이 고개치는, 심장의 박동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두눈에 피보다도 더 진한 그의 진정이 그대로 흐르고있음을 지켜보는

명국의 마음도 그에 감전된듯 후터워졌다.

명국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왜서인지 안정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듯 두다리의 백이 풀리었다.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뛴던 영국의 마음도 서늘한 리성의 바람이 불어친듯 차분히 정화되어 유현에게 다가섰다.

(내가... 내가... 무슨 생각에... 무슨 일을 치지고?...)

막심한 후회가 뒤따르는 그의 마음은 유현이와 함께 전주대에 오르고싶은 생각이 앞섰다.

그 뜻을 눈치채고 가볍게 고개를 젓는 유현의 밝은 눈빛은 마음속생각을 그대로 내비치었다.

《형님, 이 산줄작업만은 손실은 두손이 맞붙으면 더 위험한걸요.

형님이야 이제 가서 할 일이 많지 않나요.》

《유현이! 그런 말은 말게. 종이장도 맞들면 가법다는데...》

명국은 불현듯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형님은 통구리(동선통구리)를 줌 올려줘요.》

흔연히 유현은 전주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유현을 지켜보는 명국의 가슴에는 불덩어리를 안은듯 뜨거워 졌다.

전주꼭대기에 오르자 허리에 동이였던 바줄로 전주대에 든든히 비껴매고난 유현은 땅에 드리운 바줄을 당겨올렸다.

바줄끝에 매놓은 동선통구리를 두손으로 받쳐 올려주며 명국은 목메인 소리로 당부했다.

《조심하라구.》

《참, 형님두. 내 재간을 잘 알지 않나요. 산줄 작업에선 나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법 호기까지 부렸지만 명국의 마음은 그래도 초조해지지만 했다.

탈아든 선을 채지있게 뻗지로 감아킨 유현은 맵시있게 손을 돌려가며 선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공중에 매달려 능란하게 몸을 돌려가며 일하는 솜씨는 땅우에서 올려다보아도 교예사의 재주를 련상시키는듯 했다. 차디찬 맞바람이 불어치는 전주 꼭대기에서 침착하면서도 힘을 들여 동선을 꼼꼼히 이어가는 유현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발이 내돋았다.

아직도 전선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도 염라왕국에서 온 사자의 부름과도 같이 들렸다.

자칫 한번 실수에 목숨을 내대야 하는 어렵고도 위험한 순간이었다.

최고사령부로 가는 전기를 단 한시간이라도 멈춰서는 안된다는 무거운 책임이 온몸의 활기로 어려자그마한 드림도 없이 능란하게 움직이고있는 유현의 모습을 지켜 보는 명국의 마음속에는 뜨거운것이 무득히 고여올랐다.

흐르던 시간마저도 멈춰선듯 숨소리마저 죽인채

줄아드는 마음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명국의 등골에도 땀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명국이 보기에다 위험한 작업고비는 넘긴것을 알수 있었다.

뒤거둠을 깨끗이 하고는 애자의 먼지까지 닦아내는 유현의 여유있는 마감일손에조차 명국은 긴장을 풀지 못했지만 번쩍 뇌리를 치는 생각에서만은 벗어날수 없었다.

죽음을 맞받아나가는 저런 의지의 인간이, 뜨거운 인간이 무슨 일로 어머니를, 명옥이를 아니 다감한 너인들을 모질게 대했는지...

명국은 도무지 리해할수 없었다.

이윽고 오를 때처럼 침착하게 전주대를 내리는 유현을 보고서야 명국은 긴 숨을 쉬며 그에게 다가갔다.

땀줄기가 흐르는 얼굴에 그래도 먼저 웃음을 피우면서 유현은 넉지시 손을 내밀었다.

《형님, 담배 한대 주시우.

웃사람한테 버릇없이 안됐지만...》

《안되긴. 전주대에 올랐을 땐 자네가 웃사람처럼 보이던데. 허허...》

롱기어린 그 말에 웃음을 지은 유현을 보며 명국이 소리내여 웃었다.

명국이기도 구쥔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려 순진한 그 웃음에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한껏 조이였던 긴장은 순시에 날려버리는듯 했다.

언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어성을 높였던가 싶게... 아니 명국은 한손의 장갑만 벗어진채 맛스레 담배 연기를 들이키는 유현을 한아름에 덥석 안아 마른 풀밭에서 마음껏 뒹굴고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유현은 명국에 대한 걱정부터 알세웠다.

《형님, 빨리 가야지 않아요.

네가 공연히 바쁜 걸음을 잡아두었는데...》

《웬걸, 아직도 시간이 넉넉하네.》

명국은 만사름이 놓인듯 풀밭에 퍼더하니 주저앉아 등관으로 련련히 뻗어간 전주들을 다감한 눈길로 바라보고있는 유현이와 마주 앉았다.

《형님, 날 용서해주고 떠나요.

버릇없이 큰소리친게 어쩐지 웅이처럼 박힐것만 같아요.》

헉헉하던 얼굴이 애어린 처녀처럼 발그레하니 상기된 유현은 마주보던 눈길을 어쭈게 떨구었다.

《사람두 별걸 다 가지구 그러누만...》

명국의 대범한 말이지만 유현은 무겁게 숙인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요. 형님은 잊어버린다해도 난 여한을 안고 헤어지고싶진 않아요.》

《허허, 사람두. 별걸 다 가지구...》

명국은 허구프게 웃었다.

실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를 엄혹한 시련을 앞에 두고 헤여지기가 못내 서운했다.

그래서 그는 유현이 앞에서 웃고싶었다.

잠시 고개를 들지 않고있는 유현을 보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조용히 뇌이였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날세.

제 처신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제야 유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명국은 한마디 보냈다.

《자네 손탁이 센줄 이번이야 알았네.

드살이 센 명옥이까지 울리면서.》

그러자 유현의 얼굴에 한줄기 음영이 비꼈다.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그를 지켜보며 명국은 자기 일에 성실한 그가 남에게도 성실히 대하리라는 기대가 들어 스스럼없이 속내를 터놓았다.

《말이 난김에 한마디 하세.

이번에 와보니 명옥이일로 더 마음쓰게 되누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구 공부까지 했다는 애가 아직두 물덤병불덤병하면서 채심하지 못하고 돌아치다가 남몰래 눈물까지 흘린다니 원...》

그러자 유현은 몸을 일으켜 그와 나란히 앉으며 제 변명처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힘든 때이니가 무슨 일인들 없겠어요.

어려운 일에 남자들처럼 몸을 잠그려 하다가 서로 얼굴을 붉힌적이 가끔 있지요.

전번에도 배전반을 비운채 산줄작업에 나섰다가 나한테 말을 좀 들었지요.》

그가 산줄작업에 나섰었다는 말에 가슴이 섬적해진 명국은 한발 더 내디디며 그의 동정을 살폈다.

《그렇게 푼수없이 돌아치니 마음놓게 됐나. 너자의 미덕은 분별이라구 했는데 그걸 잃고 덤벼치니 말이네.》

《걱정말아요. 나도 그를 고중때만 해도 랑만적인 기분에 들뜬 멧쟁이처럼너로만 보아왔지요.

알고보니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하긴 지금까지도 그의 깊은 속을 다 모르지요.

사람은 환난을 겪어봐야 진속을 알게 되구 의로운것은 어려움속에서 참되게 버려진다는게 그를 두고 하는 말같아요.》

진지한 빛이 어린 그의 얼굴에서 명국은 눈을 떼지 못하였다.

유현은 남자 못지 않게 속이 깊고 생각이 많은 명옥이 앞으로 큰일을 하리라고 두둔해나섰다.

사려깊은 눈빛에서 그의 진정을 읽은 명국은 마음이 후터워져 스스럼없이 속마음을 터놓았다.

《오래간만에 집에 왔다 살뜰한 말 한마디 변변히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 생각이 많아지네 여하튼 자네가 옆에 있으니 잘 도와주게.》

명국의 곡진한 당부에 왜서인지 유현의 얼굴에는 자책의 빛이 서서히 어리였다.

《형님, 이제와서 형님한테 뭘 숨기겠나요.

내가 그를 믿듯이 그도 나를 믿는다는걸 난 알지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와지는 때가 많지요. 차라리 서로 속을 깊이 몰라 덜통하게 대하군 하던 때가 그렇기두 하지요.

어렵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나서려고 하니 나도 마음놓지 못하구 조심하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까지 치게 됐지요. 본시 내 성미가 못된걸 어찌겠나요.》

명옥이의 눈물을 본 그날에는 온밤 자기도 잠들지 못했다는 유현의 말을 들으며 명국은 생각이 깊어졌다.

서로의 믿음만이 아닌 아껴주고 위해주는 고결한 마음이 깊어져 두사람의 선택의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리라는것을 명국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유현에게 믿음이 갈수록 마음 밑굽에 얹게나마가라앉은 앙금마저 다 털어놓고싶었다.

《아픈 말속에 정이 있다고 하지 않나.

젊은 사람들이야 서로 리해하지만 어머니만은 노엽히지는 말아주게.》

《뭐 큰어머니까지요?》

꿈쩍 놀란 유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눈길을 모으며 말이 없던 그는 말고삐를 풀었다.

《형님, 갑시다. 내가 둔덕까지 바래줄테니까요.》

앞서 걷는 그의 얼굴은 점점 거뭇게 질려있었다.

묵묵히 앞서 걷는 그를 보며 공연히 아픈 마음을 건드렸다는 후회까지 들었다.

《어머니도 이젠 나이도 많으니 공연한 일에도 노여움을 사게 될거네. 그런 일에 너무 속을 쓰지 말게.》

왜서인지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의 말로 하여 마음 한구석에 얹어두었던 노여움마저 스스로 풀고싶은 명국이 었다.

하지만 그 말에 유현의 자세는 더 굳어졌다.

《아니지요. 다 내탓이니까요.》

무뚝뚝하게 단마디로 대답한 그는 고개만 짓숙일 뿐 더 말이 없었다.

산마루에 올라 골짜기와 큰길로 갈라져야 했다.

말고삐를 넘겨준 유현은 사려깊은 눈길로 영국을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로 여한을 안고 헤여질수야 없지요.

다시 못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자네 무슨 새빠진 소린가?》

《모두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데 나라고 살아남는다고 장담할수 없지요. 남자들끼리니 뭘 주저하겠나요.》

그 말에 명국은 말에 오르려다말고 그를 돌아보

았다.

《그러지 말게. 우린 너무도 많은걸 잃었구 아픔을 당했네. 우리가 승리하는 날 보란듯이 새 생활을 펼쳐야 할게 아닌가.》

명국은 당부하듯 그의 두어깨를 흔들었다.

그를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유현의 고개는 무겁게 숙이고 갑자르며 말하였다.

《형님이니 말하지요. 인정이라는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정을 붙이기도 힘들지만 그 정을 떼기가 이렇게도 힘든지 나두 몰랐어요》

《정을 떼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명국은 놀라와 되물었다.

《어찌됐어요. 내 마음속에 더 응어리고싶지 않은걸요. 사나이로 났다가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치는거야 의롭지요. 하지만 혈육처럼 정이 깊어진 사람들이 나로 하여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 애절한 눈물을 흘리게 하고싶진 않아요.》

그의 말이 명국의 흥벽에 쩌- 하니 부딪혔다.

《응?! 그래서 살뜰한 정을 떼자구!...》 너무도 놀라운 현실에 억이 막힌 명국은 눈앞이 뿌옇해졌다.

그 뜻을 아는지... 유현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였다.

《내 형님이니 말하지요. 큰어머니가 나로 해서 원심을 쓴다는걸 왜 모르겠나요.》

그전에는 그 살뜰한 정에 자꾸만 끌려들었다면 지금은 왜서인지 죄스러운 마음이 앞서요.

항차 이 덜통한 녀석이 잘못되면 그 다감한 정에 못이겨 큰어머니가 눈물만이 아닌 피를 쏟을것만 같아서요. 그래서...》

《그래서 정을 떼자구? 그래서 멀리한단 말인가? 참 가혹하군.》

찾아드는 소리로 혼자말처럼 뇌이던 명국은 불시에 돌아서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마음을 크게 먹게.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지 않겠나. 승리는 꼭 우리것이니네. 그 날도 멀지 않았네.》

《그날이 오면 형님, 내 큰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겠어요.》

두눈에 그렇하게 어리던 물기가 속깊은 정을 담아 점점 더 고여올랐다.

《무슨 소릴... 우리 어머닌 자네의 속깊은 마음을 알고도 남을걸세 허허.》

유현의 어깨를 다독거려주는 명국은 강인한 마음을 안고있는 그를 더 위해주고싶었다.

전시증산을 위한 추가전력을 보장하느라 명국이 보기에다 여러가지 자재가 요구될것이 대번에 알리였다.

명국은 그에게 각종 전선류나 변압기, 애자를 비롯해서 필요한 자재를 잘 타산해보라 하면서 늦어

도 래일 저녁까지 산출된 자재명세를 올려보내라고 다시금 권고했다.

그러자 유현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타산이고 뭐고 있어요. 어제 말한대로 변압기유만 보장해주면 돼요.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우리까지 손을 내밀면 어찌됐어요. 요긴한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전선에 보내야지요.》

다른것들은 자체로 구해서 쓰겠지만 변압기유만은 회수할 원천이 없다고 말했다.

안타깝게 뇌이는 그 말속에 명국은 그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졌다.

그는 어떤 어려운속에서도 반드시 추가전력을 보장할것이다.

아니, 그만이 아닌 여러 공장들에서도 증산과제를 빠짐없이 넘쳐수행하리라 기대가 커졌다.

믿음어린 그를 지켜보던 명국은 불현듯 이런 속깊은 사람한테는 가슴아픈 일도 나눌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는 어깨에 멘 가방을 열고 푸른 수건을 찢아 종이를 꺼내었다.

《이보게, 아무래도 내 대신 자네가 어려운 일을 해줘야겠네. 이걸 우리 명옥이한테 전해주게 될수록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보아가면서 말이네.》

푸른 머리수건을 본 유현은 대번에 꿈쩍 놀랐다.

《아니, 이거야 형수한테 주려고 명옥동무가 아끼던것인데요.》

《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네.》

《예? 형수가요?》

핑- 논가에 물기가 도는 유현의 눈을 피하며 명국은 안해의 비보를 그대로 말해주었다.

《참, 형님두... 그런 아픔을 안고있으면서 두...》

《됐네,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 아닌가.》

두사람은 뜨거운 마음을 서로 나누며 헤어졌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힘으로 바꾸자고 하던 유현의 말이 다시금 들리는듯 했다.

그 말에 이어 명국은 언제인가 명옥의 수첩에서 본 글이 되새겨졌다.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켰고

사람은 우리를 받들어주었거니

싸움에서 용감하라

승리는 용감한 사람들의것이다

글 뜻을 새롭게 음미해보는 영국에게는 싸움이 아무리 어렵고 준엄해도 승리의 새봄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이 굳어졌다.

세찬 바람을 맞받아 명국은 네굽으로 말을 몰았다.

전선주

김 조 규

겨울이면 늙은 네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눈내리는 날이면 너 혼자 길거리에 장승처럼 우뚝
서있다. 전선주, 너는 땅속에 다리가 묻혀 걸을수
없는 고정된 너의 《로고쓰》(리성을 의미함)를 슬
퍼함이나? 아니면 세상 더럽고 추악한 모든것 휩쓸
며 내닫는 바람을 부러워함이나? 한밤에도 너는 잠
들지 않고 뽕뽕거리는 뜻모를 소리를 창문 덧문 굳
게 빗장한 내 사색의 성채안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눈보라 기승치는 이런 밤이면 의례 밀림에서 총
소리가 울리고 우등불이 타올랐으니 매맞아죽은 아
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와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
이 그 불길속에 황황 타고있음을 말없는 천년원시

림인들 어찌 모르랴? 거목들은 어깨를 비비며 불길
을 일으키고 말라 시들은 락엽은 그 몸을 불에 던
지고 나무가지들은 하늘높이 불꽃을 내뿜는 그 소
리를 전선주, 너는 통신하며 밤새 뽕뽕거리는게 아
니냐?

총을 멘 그의 아들딸들이 잃어버린 고향땅의 한
줌 흙을 가슴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조상네 옛 기억
을 찾아 선혈로 흰눈을 물들이며 백두산밀림속을
걸어가고있으니 전선주, 너는 그속 전하러 대륙을
바느질하며 강과 언덕 건느고 넘어 끝없이 뻗어가
는것이구나.

평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금지높은 찬양과 김조규의 시세계

-산문시 《전선주》에 대하여-

류 만

시인 김조규는 우리 시단에 잘 알려져있는 시인
의 한사람이다. 그는 해방전후 시창작활동을 적극
벌려 수백편의 작품을 썼다.

특히 그의 시작품가운데서도 최근에 알려진 해방
전에 창작한 산문시 《전선주》〔주체30(1941)년
12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령도하
신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노래한것으로 하여 그의
시작품에서는 물론 해방전 진보적시문학유산에서
특기할 한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카프〉 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 간벽지로 쫓겨가고있을 때 항일혁명대오안의
지식인들과 함께 북부국경지대의 작가들과 중국
본토의 적색구역, 사회주의소련에서 활동하던 우
리 나라의 망명작가들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
족해방위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혁명문학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혈전
에 혈전을 거듭하고있는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

아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
랑과 동정을 아낌없이 표시하였다.》

산문시 《전선주》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현실
을 직접 노래하면서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아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한 대표적작품이다. 이런면에서
《전선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항일무장투쟁에 대
한 지지와 공감을 노래하여 창작된 그 어느 작품보
다도 높은 수준에 놓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일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프로레타리아
문학단체였던 《카프》가 강제해산당하고 진보적
작가들에 대한 놈들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민문학》(전향문학)이 강요되던 일제암흑통치
의 마지막시기인 194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을 노래
한 《전선주》와 같은 작품이 창작되었다는것은 매
우 주목할만 한 일이다.

산문시 《전선주》의 창작은 해방전 시인의 생활
체험 특히 간도에서의 생활체험과 시창작활동과 밀
접히 련관되어있다.

해방전 그의 시창작활동은 처녀작을 발표한 주체
20 (1931)년부터 1940년대전반기에 이르는 10여

년간을 헤아리는데 그가운데서도 절반기간은 조국에서, 나머지 절반기간은 간도땅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한때 1930년대중엽 동인지로 발행되던 《단충》에도 관계하였던만큼 표현형식에서 모더니즘의 흔적을 남긴 시작품도 창작하였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 서정세계의 바탕에는 일제식민지통치로 빚어진 처참한 현실과 생활에 대한 폭로, 사람들의 불우한 운명에 대한 울분과 동정과 함께 부분적으로는 저항의 정신도 자리잡고있었다. 그의 이러한 시세계는 상징적형상의 수법을 빌어 모순된 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 웅여리를 터친 첫 시작품의 하나인 《검은 구름이 모일 때》에서 찾아볼수 있다.

《복풍》이 몰아오는 《검은 구름》, 《몇세기동안을 뭉치고 쌓인/ 검은 구름의 커다란 진군》에서 시인은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토로하면서 미구에 그 《검은 구름》이 소낙비를 쏟고 폭풍우를 몰아오리라고 예고하였다.

힘한 바람 거친 비가 산천을 휩쓸 때에는
가난한 무리가 삶의 뿌리를
깨뜨려진 력사우에 박으려 하고
사나운 짐승의 부르짖음같은 우뢰소리가 나는 곳
에서

혈뺏은 무리의 잠든 생명
싸움의 터전으로 행진하려니
친우여 새×× 건설하러 가두로 뛰어나오라
(××-나라, 시인이 밝힌것임)

소낙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두》로 사람들을 부르는 시인의 뒤흔에는 《가두》를 모순된 현실을 들부시는 전장으로 보며 《가두》를 통해서 《혈뺏은 우리의 잠든 생명》을 깨울수 있다는 주장이 안반침되어있다.

1930년대초의 엄혹한 현실에서의 체험세계를 담은 이 시의 서정은 음미할수록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 시를 포함함하여 조국에서 창작한 그의 시작품들에는 암흑속에서의 몸부림은 있었으나 아직은 광명의 빛을 찾지 못한것으로 하여 현실에 대한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개탄과 울분의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그는 주체27(1938)년 초봄에 간도에 갔으나 그곳에서 창작된 그의 시의 서정세계도 크게 다를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창작된 그의 시들을 살펴보면 보다 사실주의적경향이 뚜렷해지고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간도땅에서의 조선사람들의 가난하고 고달픈 생활과 불쌍한 모습이 시인자신의 체험과 합쳐져 그로 하여금 생활감정의 진실의 추구으로 떠민 결과라고 보아진다.

이 시기 그는 고향과 나라를 잃고 친지들과 작별하고 정처없이 떠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이역땅에서

의 생활의 불행과 고통, 설움과 울분을 토로한 시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운데서도 주목되는것은 역이나 렬차를 시적대상으로 하여 서정을 펼친 작품들이다. 주체29(1940)년을 전후해서 씌여진 《북행렬차》며 《연길역 가는 길》, 《대두천역에서》, 《3등대합실》, 《한교차역에서》 등이 그러한 작품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역이나 렬차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봉에 대한 기대와 반가움과 함께 작별의 설움과 괴로움을 련상케 한다. 그러나 해방전 시작품들에서의 역이나 렬차는 많은 경우 작별의 설움과 괴로움의 정서와 련결되며 있었다.

김조규의 시에서도 이것은 레외가 아니었다.

안개 짙은 밤
나는 그늘진 나의 청춘을 안고
북행렬차에 실려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노라
산속을 기여
해안을 달음질쳐
북관천리...

이렇게 시작되는 시 《북행렬차》는 한창 나이의 젊음을 꽃피울수 없어 시들어가는 청춘을 안은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서정적 주인공의 모습을 방불하게 그려보고있다. 《북관천리...》 렬차가 가고가는, 《그늘진 나의 청춘》이 가는 그 길에 밝은 별이 비쳐오리라는 기대는 없고 그저 작별의 설움이 짙은 그늘뿐이다.

시 《대두천역에서》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 온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있다. 시골역 작은 대합실에서 옥실대는 사람들, 이제 황무지에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이며 아기를 굶겨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어머니의 절통한 모습도 슬픈 정서로 노래되었다. 시골역의 작은 대합실은 그대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목숨을 건지려 이역땅에서 모태기는 겨레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하나의 축도이다. 시인은 시 《연길역 가는 길》에서도 《갈잎도 없》고 《고랑도 없》고 《아무도 없》는 만주광야의 허허 《별판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린듯 한 상실의 아픔과 먼 《정차장》의 《기적》 소리를 듣고도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나라잃고 거친 땅, 외진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겨레의 처참한 처지를 노래하였으며 시 《3등대합실》에서는 고향을 잃은 설움을 안은 사람들의 남행렬차에 대한 부러움을 노래하면서도 고향이라고 찾아가야 《언제 닥칠지도 모를/ 폭압의 채찍이 내》려지는 곳이어서 북행렬차를 타고 만주땅으로 밖에 달리는 갈곳없는 애달픈 신세를 한탄하였다.

이밖에도 간도에서 창작한 그의 작품들가운데는

시 《한 시인의 프로필》이나 《가야금에 부치여》, 《바다의 추억》 등과 같이 일제의 폭압 밑에서 신음하는 조국에 대한 애라는 심정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그날을 바라는 심정을 막연하게나마 노래한 작품도 있고 산문시 《〈다점알라라드〉 2장》과 같이 무권리와 천대속에 청춘을 그저 썩일것이 아니라 《땅속에서도 저 갈길 찾아흐르는 물줄기처럼... 너의 길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말하자면 자각과 각성을 안타깝게 깨우치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해방전의 김조규의 이러한 시작품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겨레가 당하는 운명과 생활의 비참한 처지를 폭로하고 상실과 작별의 고통과 설음을 토로하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일제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가슴을 치는 시인의 뜨거운 마음이 비껴있음을 우리는 본다.

이처럼 그가 조국에서 첫시를 쓸 때부터 이역땅에서 해방전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을 받기전까지의 그의 시세계에는 일제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안은 조국과 겨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흐르고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산문시 《전선주》는 바로 그의 시들에 흐르는 이러한 애국애족적인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특히는 간도에서의 항일무장투쟁현실에 대한 시인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하여 새로운 혁명적인 숨결과 기상이 힘차게 나래치게 되었다.

당시 시인이 간도에 와서 교편을 잡고 생활하면서 시를 쓰던 조양천과 룡정은 연길지방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이 크게 미치던 곳으로서 이곳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은 《전선주》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한 정서적바탕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1920년대에 혁명조직들이 결성되고 선진사상의 보급사업이 활발하던 룡정은 항일무장투쟁이 적극 벌어지던 1930년대에 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였으며 특히 조양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시여 당시 이곳에서 《봉춘당 약방의사 김춘봉》이라는 간판을 걸고 혁명사업을 하던 림춘추동지를 처음으로 만나시여 가르침을 주신 뜻깊은 곳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숨결이 거세차게 뿜어던 룡정과 조양천에서 시인이 생활한 나날은 보는것, 듣는것 모두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었으며 혁명조직과 혁명가들, 인민들이 벌리는 투쟁과 원군활동은 이전까지 그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속에서 현실을 체험하고 혁명

적영향을 받으며 생활하는 과정에 시인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야말로 《민족의 총아》,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올 참다운 애국자, 용감한 투사들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서도 얼음장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세차게 격류하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린 축적된 생활체험의 분화구를 터쳐 시인은 마침내 《전선주》의 서정세계를 뿜어올렸던것이다.

산문시 《전선주》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장엄한 현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한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져있으며 그들의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과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훌륭히 형상되어 있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가주는 일반적인 표상은 한겨울 눈내린 길거리에 우뚝 서있는 전선주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대륙의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간 전선주에 의탁하여 항일무장투쟁소식을 전하려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타끓는 절절한 심정의 토로로 안겨온다. 그러나 그러한 표상은 헤아릴수 없는 심연을 안고있는바 구체적인 서정세계를 음미해보면 시는 천, 만을 헤아리는 깊은 사연과 뜻, 영웅적인 대상을 시화하는 시인의 환희와 격정의 숭엄한 감정이 파도치고있음을 느낄수 있다.

시는 크게 세단락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볼수 있다.

시의 첫 단락에서는 추위속에서도 눈우에 서있는 전선주의 모습을 그리고있는데 그것을 두고 노래하는 시인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며 의미심장하다.

겨울의 찬바람에도 내리는 눈에도 끄떡없이 《장승처럼 우뚝 서》외롭고 처량하게 보이는 전선주,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그 전선주는 단순히 높고 쇠잔한, 오고가는 눈비를 다 맞으며 묵묵히 서있는 한갓 자연의 대상물만은 아닌것이다.

《...고정한 너의 <로고쓰> (리성)를 슬퍼함이나?》, 《...바람을 부러워함이나?》에서 보는바와 같이 슬퍼한다도 아니고 부러워한다도 아닌 이러한 수사학적물음이 주는 여운은 전선주는 분명 리성도 있고 이 《세상 더럽고 추악한 모든것》에 대한 혐오와 경멸감도 가지고있는 그런 존재, 말하자면 의식을 가지고있는 존재라는것이다.

우리는 의인화된 전선주의 이러한 형상에서 그에 의탁된 시인의 모습을 본다. 아니, 시인의 모습을 본다가보다 자유를 구속당하고 억제당한채 보고 느낀 모든것을 전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말도 터치지 못해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시인의 심장의 하소를 들으면 웅심깊은 그의 내면세계를 엿본다.

그리하여 시인은 마침내 자기가 잘 알고 마음속에 고이 묻어두었던,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더는 견딜수 없는 경이적이고 감격적인 소식을 《마음의 성채》를 열어제끼고 방방곡곡 뻗어간 전선주에 의탁하여 뜨겁게 전하는것이다.

시의 첫 단락에 이은 둘째, 셋째 단락에서는 바로 시인이 그리도 가슴속에 가득차 아뢰이고싶던 영웅적사변, 감동적인 사실,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에 대한 숭고한 이야기가 함축과 비약으로 웅심깊게 펼쳐진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장엄한 현실을 보며 백두밀림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항일투사들의 불굴의 모습을 본다.

시인은 가슴속에 하고싶은 하많은 이야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있고 의미깊게, 열, 백을 대신하는 하나로 펼쳐였다. 물론 이것은 하고싶은 말도 할수 없던 당시의 시대적환경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시인은 그 하나하나의 표현, 세부들에 성스런 항일무장투쟁현실과 항일투사들의 모습이 충분히 비끼게 하였다.

《눈보라 기승치는… 밤이면 의례 밀림》에서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와 거세차게 타오르는 《우등불》, 그것은 바로 《매맞아죽은 아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와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을 담아 울리는 《총소리》, 타오르는 《우등불》 인것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강도일제침략자들에게 부모처자와 고향도 다 잃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용약 항일대전에 떨쳐나선 항일투사들의 영웅한 모습을 본다.

시인은 일제적멸의 성스런 항일전장과 유격대원들의 모습을 《말없는 천년원시림》이 새겨안고있고 그들이 지펴올린 우등불에서 거목들이 《어깨를 비비며 불길을 일으키고 말라 시들은 락엽은 그 몸을 불에 던지고 나무가지들은 하늘높이 불꽃을 내뿜는》다고 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위업의 성스러움과 함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의 불길로 일제식민지통치를 짓부셔버릴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천한 기세와 불타는 투지를 상징적형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시인은 특히 시의 마지막단락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의롭고 위풍당당한, 승리의 신심과 락관념친 모습을 보다 숭엄하고 무게있게, 장엄한 정서로 품위있게 노래하였다.

여기서는 《총을 멘》 항일유격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잃어버린 고향땅의 한줌 흙》이 소중한 간직되어있고 그들이 《선혈로 흰눈을 물들이며》가는 《백두산 밀림속》의 길은 《조상네 옛 기억을 찾》기 위한 길, 일제에게 빼앗긴 고향과 조국을 찾고 조국해방의 성스런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신심에 넘쳐 노래하였다. 특히 둘째 단락에서의 밀림속에서의 《총소리》와 《우등불》, 《매맞아죽은 아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와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이 그 불길》에 이어 셋째 단락에서 보여준 《총을 멘 그의 아들 딸들》이 《고향땅의 한줌 흙을 가슴깊이 소중한 간직》하고 《백두산밀림속을 걸어가》는데 대한 시적형상은 백두의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총대높이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이 나라 수천수만의 훌륭한 아들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그들이 지닌 투철한 계급성과 열렬한 조국애,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품만한 정서로 노래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주름잡으며 강도일제를 쳐부시는 조선의 빨찌산대입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시에서는 첫 단락에서 전선주를 정황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다음단락들에서 《…그 소리를 전선주 너는 통신하며 밤새 뽕뽕거리는게 아니냐?》, 《전선주, 너는 그속 전하러 대륙을 바느질하며 강과 언덕 건너고 넘어 끝없이 뻗어가는것이구나》라고 노래함으로써 전선주에 의탁하여 항일유격대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온 나라, 온 대륙에 전하려는 시인의 절절한 념원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작품은 산문시로서의 정교성과 세련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짧은 산문시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연과 깊은 뜻이 담겨져있으며 하나의 표현. 문장마다에서 깊은 사색의 세계와 강한 여운이 느껴진다. 운률도 잘 살려 읽는다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읊어지는 시로서의 특성도 강하다. 특히 내용 전개에서의 설명이나 서술식문장 표현은 전혀 없고 체험세계의 모든것이 뜨거운 정서의 흐름에 실려 시적으로 펼쳐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비록 문장은 산문형식을 취하였으나 운률성과 음악성을 강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산문시로서의 높은 예술적경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시인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의로운 모습을 심장에 새기고 손에 총을 잡고 온갖 간난신고를 헤치며 일제와 싸우는 그들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암흑통치속에서도 밝게 비쳐드는 해빛이였고 고달픈 삶에 희망을 안겨주는 등대였으며 천고의 밀림속을 누벼가는 항일유격대의 장한 모습은 그대로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의 미더운 모습이 었다.

산문시 《전선주》의 창작은 바로 시인의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과 찬양, 그들의 투쟁에서 조국의 앞날을 보는 신심과 락관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산문시 《전선주》에 반영된것처럼 그가 얼마나

항일유격대를 신뢰하고 찬양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있었는가 하는것은 해방직후에 창작된 시작품들의 서정세계를 통해서도 반증적으로 잘 알수 있다.

해방후 첫 작품의 하나로 주체34(1945)년 10월에 쓴 시 《당신이 부르시기에》에서 시인은 일제식 민지통치의 긴긴 세월을 《깊고 어두운 밤》으로 묘사하면서 《질은 암흑속에 묻히여/ 억압과 천대의 채찍 사람들 머리위에 내릴 때/ 장백밀림의 눈덮인 긴긴 밤/ 우등불 태우시며 원쑤와 싸운 슬기로운 마음... 받아들여/ 3천만 겨레의 가슴/ 원쑤와의 싸움에서 더욱 뜨거워졌고/ 그 빛 받아들여 앞날을 내다보며/ 힘겨운 투쟁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니...**김일성**장군!/ 그 이름은 우리들 가슴마다에 타오르는 해불이였습니다》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항일의 령장으로 우리르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싸워 승리해온 항일유격대의 슬기로운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해온 시인의 고유한 체험세계가 짙게 배여있다.

이 작품에 이어 시인은 그 이듬해 4월에 창작한 시 《모란봉》, 6월에 창작한 시 《생활의 흐름》, 10월에 창작한 시 《기차》 등 여러 작품들에서도 《우리는 백두령봉의 해불을 우리러/ 힘겨운 싸움에도 굴할줄 몰랐으니》, 《기차야, 네 장하다/ 네가 항일빨찌산을 실어왔고》, 《이 나라의 참된 아들 딸들/ 장백산 넘나들며 항일의 불길 올리었고/ ... 원쑤는 쫓겨나/ 민주조국창건의 새 생활 열리었다》라고 토로함으로써 일제의 폭압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기, 민주조국의 건설과 새 생활의 창조 등 모든것을 영웅적항일무장투

쟁과 그 승리의 결과로 환희와 감격에 넘쳐 노래하였다.

시인이 이처럼 해방직후 시창작의 첫 걸음부터 조국의 새로운 현실과 생활을 대하면서 그것을 항일무장투쟁의 거대한 영향력과 생활력을 생활적정서로 자연스럽게 결부하여 일반화함으로써 해방후 시문학에서도 항일의 혁명전통을 노래하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한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게 된것은 해방전 항일무장투쟁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거기에서 받은 크나큰 충격과 관련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선주》의 서정세계는 결코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항일무장투쟁현실속에서의 체험에서 얻은 그의 시세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그것은 해방후 그의 시세계를 주도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산문시 《전선주》는 해방전 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하여 창작된 진보적시문학의 유산을 더욱 풍부히 하는데서 매우 의의있고 가치있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리찬의 시 《눈내리는 보성의 밤》과 《국경의 밤-》, 김람인익의 《XX안에서 봄을 맞는 님에게》, 《청색마》, 《빼치까》 등의 작품들이 알려졌는데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 김조규의 산문시 《전선주》가 새로 알려짐으로써 항일무장투쟁현실을 반영하면서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아》로 내세우고 찬양한 진보적시문학의 유산은 더욱 빛나고 풍부화되게 되었다. 특히 산문시 《전선주》는 그 어느 작품보다도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현실과 항일유격대를 직접 노래한 혁명성이 강한 작품인것으로 하여 해방전 진보적시문학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며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명언해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예술은 강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진 혁명투쟁의 무기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예술은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강연이나 해설담화 등과 같은 여러가지 형식의 정치사업이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예술도 그와 못지 않은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것은 예술이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격동시키기도 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기때문이다. 예술이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인다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새 생활을 창조해가는 실천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술이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선군승리 행진곡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조선을 찾으라
마치와 낮, 붓우에
총대가 준엄높이 서있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러면 보리라
저 하늘높이 휘날리는
자주의 기발
선군승리의 기발을
조선의 넋을 알았는가
백승의 기상떨치는 기발이여!

그대들은 보리라
선군의 기치높이
군대를 먼저 내세우는 나라
총대를 앞세우고 장정에 나선 나라
새로운 승리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나라를!

1

사람들은 잊지 않으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 같던 그날
조선의 수령
조선민족의 영웅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그날을
피눈물은 강물을 이루고
지구는 조선의 눈물로 젖었더라

해마다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재난은 겹쳐들고
홍작은 이 나라를 휩쓸었다
무서운 기아의 위협이
집집의 문을 두드렸고
닥쳐온 추위 엄동설한은
사람들의 몸을 사정없이 옥죄이였다
온 나라 인민이
재난과 광풍을 헤치며 몸부림쳤다
미국놈들 환성을 올렸다
-이제 조선은 끝장이다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것이다

양키들 미싸일을 겨누었다
태양의 도시 평양에

단숨에 이 나라
조선을 없애버리려고
짓누르는 어둠 캄캄한 밤
먹장구름은
희미한 조각달마저 가리웠더라
순간 무서운 정적을 깨트리며
번쩍! 섬광을 뿌리는 번개!
오! 선군
위대한 선군
드리웠던 어둠의 장막을 헤가르며
세상만물에 빛을 주고
이 나라에 승리를 가져온 선군이여

온 행성이 우러러보았다
세계의 명봉 정일봉
그우에 번쩍이는
선군의 번개를
그 빛발아래
대지의 모든것
생기를 가다듬었거니
조선의 목란꽃들
아름답게 피어나고
조선의 은방울꽃
한껏 향기 풍기였어라

조선이 낳은 절세의 영웅
천출명장의 단호한 선언!
-사탕없이도 살수 있어도
총알없이도 살지 못한다
-내 인민을 구원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리라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김정일**장군
굳은 맹세 다시시고
바람세찬 선군의 길을 떠나신다
정의의 기치 높이 드시고
선군대장정의 길에 나서신다

생눈길 헤치고 찾으신 곳
그 이름도 잊지 못할
다박술초소
병사들 감격에 목메여 노래부른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조선의 하늘 한껏 높아지는가
저 하늘에 비낀 아름다운 무지개
만사람의 가슴
한껏 부풀어오른다
만민의 앞길 밝히며
찬연히 떠오른

김정일 장군의 선군위용

오 선군이여!
사나운 폭풍도 격랑도 쳐물리치는
장엄한 불길이어!
천만대적도 쓸어버리는
위대한 불길이어!

2

사람들은 기억하리라
담대무쌍한 **김정일** 장군님의 장정의 길을
눈내리는 어두운 밤
가파로운 산고지의 전사들 찾아 걸으신
전선길, 전선길

철령의 굽이굽이
험한 길 그 얼마더나
눈보라 비바람에
야전복 날리시며
최전연초소의 전사들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주시였더라

최전연의 병사들
온 심장 용맹으로 불태우며
감격의 눈물 머금고 아뢰었더라
-장군님, 우리모두 항일의 7련대 되렵니다
혁명의 수뇌부 목숨으로 지키렵니다!
선군의 병사들 맹세다진다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함성
-**김정일**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병사들의 심장마다에
슬기론 백두산총대의 용맹 솟구친다
빨찌산 **김일성** 사령관
백두밀림에서 왜적 죽치던
그 용맹의 총대바람 인다

내 진정
경의드린다
조선의 영웅전사들의 기상
하늘을 찌를듯한 용맹의 기상에
병사들의 가슴을 불태우는것
그것은 《일당백》의 투쟁정신
그날의 **김일성** 주석
대덕산초소에 심어주신 정신

병사들을 거창한 위훈으로 부른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빨찌산의 정신

사랑하는 전사들을 찾으신 최고사령관의
사려깊은 안광
예지로 빛나는 시선
그 시선 전사들의 자동보총
전사들의 신발에도 밟았더라
전사들에게 부여주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안고 전사들
장수힘 키웠더라

선군시대의 병사!
퇴성처럼 울리는 부름이어!
자랑높은 칭호여!
이는 조국위해
한몸 내대는 병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선군병사들을 따라배운다

그 누가 말했느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이라고
아니 ! 아니여라!
내 말하노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그것은 조선의 오성산
선군의 기상 나래펼치고
무적의 힘 키운 산
선군승리의 길을 밝힌 산
천만대적도 한오리에 휘여잡는
신묘한 힘 키운 곳
조선의 오성산이여라

선군
그것은 《광명성1》호의 발사
래일의 《광명성2》호, 《광명성3》호...

선군
그것은 조선이 비껴든
무적필승의 장검!

그 장검 번개되어 내리치면
미국놈들 박살나리니
원수놈들 피할 자리 그 어디냐!

미국놈들에게 분노 터뜨리며
세계는 웨친다
-그렇다!
조선은 평화의 유린자들에게
천추를 내리리라!

질겁한 미국놈들
벌벌 떨며 살구멍 찾아
꼬리사린다

선군
그것은 이 나라를 일으켜세운
가장 큰 힘!
군인정신으로 사는 동력건설자들
강을 막고
발전소들을 일떠세웠고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되어
토지정리에서 기적을 창조했어라

총대는 사람마다의 심장에 가까운 그 무엇
부모형제 혈육들처럼 소중한것!
총대는 검은 장막 휘몰아내고
이 나라 온 가정에
웃음꽃, 행복을 가져왔더라

선군
그것은 평화로운 건설장에 쌓아지는 벽돌!
그것은 정다운 우리모두의 집!
그것은 아이들이 손에 든 아름다운 꽃송이!
선군은 아름다운 《아리랑》을 불러오고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나니
그것은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을 뿌리는 태양
세계적인 창조와 건설의 원천!

누가 조선을
《악의 축》이라 하느냐?!
누가 조선의 무서운 힘앞에
허장성세하느냐?!
조선의 선군
추상같이 대답한다
-군사적선택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타격방식이 있다!

선군의 기치
그것은 조선의 평화만을 위함이 아니여라
그것은 우리 행성의 안녕을 지켜주는 방패
그것은 악한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백승의
번개,
우뢰

선군은 천지를 다스리는
만능의 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는 화불
평화로운 생활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

조선의 총대에
감히 엿서려는자 누구냐?!
저 대양건너에서 불을 즐기는자들이나?!

저 일본땅에서 무모히 칼을 버리는자들이나?!
원썬놈들은 아직 모르고있다
네놈들 감히 엿서나가면
조선의 선군사상의 위력앞에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리!

조선의 총대 그것은
번개보다 더 강한것!
원썬들의 《보복》에는 진짜보복으로
강경에는 초강경강타로 대답하리라!
이라크전쟁
그것은 애송이아이들의 장난
철부지아이들의 뺨을 치는 격
미국은 명심하라
네놈들이 진짜 불장난을 하려 한다면
조선의 반타격앞에
쓴맛을 보게 되리라
불을 토하는 조선의 선군
《백악관》을 하늘로 날려보내리라
조선을 감히 어찌보려 한다면
미국의 존재는 끝장나리라

섬나라의 사무라이족속들
서슬푸른 백두의 총검
제놈들의 명줄을 끊던
지난 날을 잊은듯 하구나

조선에 태를 묻은 모든이들
정의의 위업위해 분연히
결전에 일떠서리라
죽음을 각오한 조선인민
이 세상에 당할자 누구냐?!
두려움없이 성전에 나서리라
김정일장군을 위하여!
선군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3

선군의 기치
마치와 낮, 붓
일심단결로 묶어세우며
인민들을 부른다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선군의 기치
이 행성의 인민들을 부른다
전쟁이 없는 세계
양키악마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로

최많은 미국양키들
복수의 징벌 피할 길 없으리
무서운 교통의 몸부림속에
영원한 저주속에
더러운 종말을 고하리라

부쉬의 해썩한 낯짝
못된 짓에서 살길 찾으려
경거망동하느냐?
저주로운 악마 부쉬
서슬푸른 조선의 장검
목을 찌를 때
죽음의 절망속에 몸부림치리라

그때 온 행성은
선망의 눈길로 우리르며
심장의 목소리 터치리라
-조선의 선군, 승리의 선군 만세!
조선이 낳은 위대한 영웅 만세!
선군의 기치여
창공높이 펄럭이라
그 빛발 온 누리를 밝히나니!
세계인민들이여
선군의 기치 높이 들고 나아가자!

조선의 351고지, 오성산은
머리숙여 인사드린다
선군정치의 창시자, 구원자이신
무적의 **김정일**장군께!
이 행성의 모든 벗들
온 세계가
그이께 감사드린다
선군의 영웅
정의의 거인
세계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평화의 대원수
김정일장군께!

조선의 승리
그것은 이 세상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에 대한 복수이거니
조선이 터친 승리의 함성
온 행성에 메아리쳐간다
오! 조선의 승리를 안아온
미짜일의 번쩍임이여!
휘몰아치는 총대바람이여!
선군사상은

온 세상사람들의 희망
그것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것!
선군사상
그것은 민족의 넋
영광과 용맹의 상징
력사의 정화
인류예지의 등불!
도도히 굽이치는 선군사상의 대하
그 흐름 기적의 힘 낳거니

통일된 조선이 터칠
《만세!》의 환호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

용감한 부대들, 무적의 군대 나아간다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대오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소리여!
세계는 경모의 시선으로 우리른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오늘도 선군의 기치 높이 드시고
오성산 명마루에
높이 서계시는 그분을!

그렇다!
선군은 영원한 승리
선군은 조선의 담력
선군은 조선의 기치
선군의 축포여
더 높이 오르라!
김정일장군님께
영광, 영광드리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희망
위대한 조선의 선군
그 위력앞에 원썬들은 박살나리라
저 하늘을 휘여잡은
선군의 회오리바람
양키놈들 마지막 한놈까지
망망대해 심연속에 처박으리라!

천하를 다스리는
조선의 **김정일**장군님이시여!
세계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평화의 대원수이시여!
준엄한 격전의 승리자
위대한 령수
선군사상으로 영광떨치시며
우리모두 한몸으로 지켜주신다!
병사들의 심장
용맹으로 불타고
창공높이 번쩍이는 선군의 번개
저 멀리 우뢰되어 울린다

자동보총 억세계 틀어쥔
병사들의 맹세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간다

-우리 총성으로 선군을 받들리라!
평화의 수호자, 평화의 대원수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사회주의조선을 위하여

성스런 선군기발을 지켜
죽음도 두려움없이
싸우리라

×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아름다운 나라 조선을 찾으라
그러면 들으리라
시대의 목소리
-조선의 선군
핵미치광이 미국을 때려눕힐 때
온 세계엔 평화가 깃들리!

붉은기여 세차게 휘날리라!
불멸의 주체사상
해불되어 타오르라!
선군이여 그 위력 더욱 펼치라!
선군은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존함을
선군-**김정일**!
김정일-선군!

영원히 영광떨치라
무적의 철의 대오
선군장정의 대오여!
미싸일과 총폭탄의 대오
담력과 용감성의 대오여!
김정일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정의의 기치 우러러
선군장정대오 우로 뻗!
신호나팔소리 울린다
선군기발 휘날리며
백승의 장정대오 앞으로!
새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장엄한 장정의 대오
원썬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고
자랑차게 휘날리리라
제국주의의 아성우에
위대한 선군사상의
붉은 기발을!

(필자는 로씨야시인임)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서 봉 제

살아생전 바라던것을
부러워서 기다리던것을
못이뤄 이루지 못해
옛 사람들 전설로 미루었건만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막바지 하늘아래 첫 동네
무봉의 천지개벽은
전설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입니다

산짐승무리들만 목을 추기던
태고의 작은 높은 무봉호로 펼쳐져
키높은 이깔숲은 팔긴 아지로
즐겁게 은물결을 휘젓습니다

백두명산의 들쭉나무도
호수가에 넋지시 손을 잠그고
긴 구룡다리에 이마를 대인듯
그림처럼 아름다운 두 마을이

호수가에서 정답게 추녀를 잡았습니다

새로 지은 양지쪽 유치원 넘어
넓은 교문이 부르는 번듯한 학교
흰부석의 드넓은 운동장엔
아이들의 공연을 꼭 보아주시겠다면
장군님의 그 약속을 안고 노래가 퍼집니다

행복의 그 노래 끝없이 울려
기쁨의 그 노래 밀림을 흔들어
사람들 온갖 시름 다 털어버린
무봉마을 부러운듯 산천은 귀를 강굽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전설아닌 무봉의 새 력사는
날과 달의 흐름속에
위인의 사랑을 자기의 노래로 부를것입니다
장군님실록을 배움의 교과서로 번저갈것입니다

영근이삭

변창률

논보라이는 밖을 내다보며 이윽도록 창가에 서있던 작업반장 전석근은 다시 책상에 마주앉았다. 책상우에는 1분조명단이 적힌 수첩이 펼쳐져있었다. 좁전에 1분조장 최정식아바이와 마주앉으며 퍼놓은 것이었다. 이제는 60나이가 된 아바이의 후임문제를 토론하려던 참이었는데 분조원 강영실아주머니가 숨가빠 뛰어왔었다.

《빨리 가시자요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시끄러운 일이라니?》

아바이는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오늘 진행한 개인세대 퇴비실사를 몽땅 다시 해야 한다는거예요. 조마다 들것에 담은 양이 같지 않고 집집마다 질도 각이하다면서...》

《누가?》

《누군 누구겠나요. 홍화숙이 아니면...》

《홍화숙이가? 음... 어쩐지 아침부터 실눈이 돼서 입술을 감쳐문제 미타하다 했더니... 하긴 잠시라도 너종구 나종구 하구 입다물고있으면 <홍말쟁> 이가 아니지.》

분조장은 성가시다는듯 머리를 저으며 일어섰다.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강영실을 따라서는 아바이를 바라보는 석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석근은 아바이의 후임으로 다름아닌 그 홍화숙이를 점찍고있던터였다. 그래서 아바이의 의향을 묻자던 참이었는데 ... 공교롭기란...

1분조원들의 이름을 짚어내려가던 석근의 원주필이 강영실의 이름에서 멎었다. 남자 못지 않게 일썃씨가 겹싸고 농사물계에 환한 녀인이다.

분조장의 말 한마디면 쉬는 날, 명절날도 가림없이 일터로 달려나오는 녀인, 하지만 분조농사를 맡기기엔 뭔가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왜서일가?... 최정식아바이가 뇌이던 말이 떠올랐다.

《분조장노릇을 하자면 모든 일에 앞채를 멜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이 두가지가 기본이라구 할수 있지. 곡식에 비유한다면 크고 잘 여물어야 옹근 이삭이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대로 하면 잘 여물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다시 명단을 짚어가던 그의 원주필이 홍화숙의 이름에서 멎었다. 아무리 보아도 적임자는... 하지만 분조원들이 찬성하겠는지? 더구나 최정식아바이가 《옹근이삭》으로 보겠는지...

석근의 눈앞에는 홍화숙과 관련된 지난해의 일들이 화면처럼 흘러갔다.

1년전 석근이 작업반장으로 임명된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소한무렵의 강추위가 계속되던 어느날 작업반선전실에서는 농장원모임이 있었다.

지난해의 영농사업이 총화되고 분조별 대렬편성이 끝난뒤였다. 올해 작업반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포치하고나서 석근은 좌중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 작업반사업에서 참고가 될수 있는 의견들을 기탄없이 제기해주십시오.》

새로 온 작업반장이 초면이어서인지 아니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보아서인지 제기되는 의견들은 그닥 신통치 못했다.

기가 꺾두룩한 트랙트르운전수가 일어나 룬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이자면 포전도로정리를 잘해야겠다고 했다. 량곡관리원아바이는 벼짚이나 복데기에 섞여나가는 낱알이 적지 않다면서 벼종합탈곡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했다. 탁아소책임자는 땀 나무가 떨어저가는데 빨리 대책해달라고 급한 소리를 했다.

《더 제기할것이 없으면...》하고 원주필을 놓으며 머리를 드는데 1분조쪽에서 한 녀인이 일어났다. 방금전 대렬편성때 3분조에서 1분조로 옮겨간 홍화숙이었다. 마흔안팎으로 보이는 그 녀인은 한창 여무는 대추알처럼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 눈코입귀가 꼭꼭 눌러박힌것이 얼핏보기에도 조련치 않아보이였다. 혹시 1분조로 옮겨놓은것이 불만스러워 일어난건 아닌가?

그를 지켜보는 석근의 귀가에는 엇그제 자기를 찾아온 3분조장이 하던 말이 되살아났다.

《...지금 우리 분조에 있는 홍화숙이때문에 내 머리털이 다 쉼 정도요. 엇저녁에도 그랬지요.》

거름상하차작업을 하던 애기엄마들이 실참에 탁아소에 젖먹이러 갔다가 하두 추운 날씨라 좀 늦잡았던 모양인지 작업총화에서 그걸 계산하지 않았다고 코를 드는게 아니겠소. 그래서 당신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그만한것도 리해를 못해 옴니암니 해서야 어떻게 분조의 화목이 이루어지겠는가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름 한차 못실은것은 물론 그 시간에 트랙트르가 태워버린 기름값까지 계산해야 한다는거요. 기가 막혀서... 분조장이 일을 시키느라하면 오늘은 비록 제몹을 못했

어도 본인들의 열성이나 또 앞일을 고려해서 적당히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소. 한테 이너자는 덮어놓고 벼룩이 간두 뜯어내구 좁쌀알두 쪼개자구 달르는데 난 신물이 났소. 오죽했으면 분조원들이 그한테 《홍말썰》, 《홍타산》이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소. 그를 내보내던가 내가 나가던가 마련이 있어야 하겠단 말이요.》

듣고보니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석근이도 여러해 분조장사업을 하면서 그러루한 일로 얼마나 많은 고충은 겪었던가

석근은 알아보고 대책하자는 말로 접수했다.

《그한테 걸려들지 말아야지 망신하기 십상이요.》

3분조장이 주의를 주는 소리였다.

석근은 난처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함께 손잡고 일해야 할 분조장의 제의를 무시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덮어놓고 들어줄수도 없고... 그래서 홍화숙을 한번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가 석근을 찾아왔다. 자기를 3분조에서 내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불안스럽기도 했다. 서로가 용납할수 없다면 여기에는 간파할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많은 생각끝에 그는 1분조장을 만났다. 년한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손꼽히는 분조장이며 리당위원인 그의 분조에 배속시키는것이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것이다. 더구나 쫓겨나는거나 같은 사람을 의논 한마디없이 떠맡길수야 없지 않는가.

《홍화숙이와 강영실을 바꾸어놓잔 말이요? 3분조장이 요구합니까?》

《...》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든 반대가 없는데 강영실이란은...》

《홍화숙아주머니가 뒤소리를 많이 듣는 모양인데...》

《아, 그래서가 아니요... 그가 우리 분조에 오는 것은 의견이 없소. 본인 의향은 모르겠지만...》

석근은 의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두사람의 견해가 이렇듯 차이날수 있는가. 석근은 강영실을 내놓지 않으려는 최정식의 진의도를 여러가지로 추측해보았다. 혹시 나이가 다된 자기의 후임으로 점찍고있는것은 아닌지...

이렇게 되어 홍화숙은 1분조로 오게 되었다.

반장사업 첫 시작부터 즐겁지 못한 일로 뇌리에 새겨진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제기된것두 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농장원들의 가동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고 결산분배를 공정하게 하는것이 선차라고 봅니다.》

오래동안 품었던듯 포박포박 울리는 그의 목소리

에 회의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요진통을 건드렸다는 암시가 침묵속에 배어있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회의지도나온 관리위원장이 책상에 바투 나앉으며 관심을 표시했다.

《지금 분조들에서 매일 로력일평가를 하고 작업반에서는 10일공시도 하면서 농사일을 등한시하는 현상과 투쟁도 하고있지만 정작 결산분배때 가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잘못된거라구 봅니다. 지난해에도 3분조의 어떤 농장원은 바쁜 여름철에 이런 저런 구실을 대고 한두달씩 제분장을 보고도 년말이 되자 긴요치도 않은 새끼를 꼬아서 년간 의무가동과 로력을 다했다고 땀때기를 했어요. 곡식 포기밑에다 거름을 묻어주고 물을 뽑아주어야 큰 이삭이 달리지 가동로력이나 많이 벌었다구 해서 농사가 잘되는건 아니예요.》

홍화숙이 3분조를 거들자 앞쪽에 앉은 3분조장의 얼굴이 금시 수수땀빛이 되었다. 전체 작업반이 모인앞에서 더구나 관리위원장의 면전에서 집계로 집어낸듯 3분조를 꼬집어들었으니 급체난 모양이었다.

무릎을 꿇으며 반쯤 잦아들었던 홍화숙이가 다시 일어섰다.

《한가지 더 있어요. 방금 탁아소 책임보육원이 땀 나무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처럼 분조가 다 돌림식으로 빗독촉하듯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분조장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로서는 농사일에 다몰리우면서도 외면할수 없는 탁아소 땀나무문제가 골치거리였던것이다. 책임보육원은 어디서든 분조장 빗갈만 보여도 땀나무를 독촉한다는 것이었다.

중간쯤에 앉은 책임보육원의 시선이 홍화숙과 주석단으로 분주히 오고갔다.

《아주머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석근이도 생각이 많던 문제여서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다구 봅니다. 탁아소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보육원의 시선이 갑자기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이 무슨 당치않은 소리인가?

《좀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방도를 말이요.》

석근의 어조가 저도모르게 실무적으로 울렸다.

《방도야 나무를 심어서 땀나무림을 만드는거지요.》 홍화숙이 혼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무를 심는다구? 어디다? 강녕이 밭에다?》

3분조장이 두손바닥을 펴들고 내흔들었다.

책임보육원은 홍화숙이쪽을 아예 등지고 돌아앉았다. 입이 쓰겁다는 표정이었다.

홍화숙은 개의치않고 할 말을 계속했다.

《탁아소뒤에 있는 석비레등성이에다 아카시아나무를 심지요. 탁아소에 인원이 작은가요? 보육원이 4명, 식모가 1명, 부업지를 관리하는 부대로력이 3명, 이 사람들이 봄가을에 한 열흘씩만 나무를 심으면 어딘가요? 한두해 품들이면 땔나무림 몇정보는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지요. 거기서 나는 사료로 염소도 기르고 꼴벌도 치면 고기와 우유 꼴까지 아이들한테 먹일수 있단 말이예요.》

홍화숙은 제 할 소리는 끝났다는듯 자리를 편안히 잡으며 앉았다. 그러니 탁아소 보육원들은 남의 등에 입혀 편안히 살았다는 소리가 아닌가? 더는 참을수 없는지 책임보육원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럼 우리 보육원들이 자체로 할수 있는것도 손만 내민다는건가요? 작업반에서도 같은 생각이라면 전 농산분조로 가겠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없이 조용해졌다. 석근은 종잡을수 없는 심정으로 회의장을 주시했다.

석근이도 탁아소뒤에 텃없이 등실하니 누워있는 번번한 둔덕을 보았다. 비죽비죽한 돌서덜사이로 아이들의 눈치치기로 얼음판처럼 다져진 흙배기들을 보며 철없는것들의 이마와 코를 터치놓기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잡초마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성이에다 땔나무림을 만든다?! 그럴듯해보이기도 했지만 그림의 떡처럼 허황하게 느껴졌다.

어색하고 따분한 침묵을 깨치며 관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주머니가 오늘 좋은 의견들을 제기했습니다. 땔나무림조성 그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인다운 관점입니다.》

관리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석근은 홍화숙이가 제기한 그 모든 잘못이 자기 탓이거나 한것처럼 얼굴이 화끈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물론 홍화숙의 말이 원칙적으로 옳다. 하지만 대중모임장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일이 바로 되고 집단의 화목을 존중하는 립장에서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사람들속에는 자기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한 요구를 제기하는 그런 인간들도 일부 있는 법이다.

그 순간 석근은 홍화숙이가 자신의 작업반장사업에서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음 한구석에 그늘을 드리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X

논모판에 부은 2계단 벼모들이 푸른 잎새를 펼치며 자라오르던 봄철의 어느 휴식날이었다.

농장관리일꾼들이 위주가 되어 탁아소 뒤편에 새로 조성한 아카시아땔나무림을 돌아보고난 석근은 건너편 야산기슭에 펼쳐진 만평틀 강냉이밭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오늘 아침 농업과학원 처녀연구사가 새로 육종하여 도입한 《ㄸ》종의 강냉이생육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던것이다. 연구사처녀는 토양구조와 경작조건이 가장 불리한 대상의 시험포전으로 1분조 만평틀을 정했었다.

그가 3분조모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모판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모판에서는 천마리도 넘는 오리무리가 관리공녀인의 회초리에 몰려 이리저리 쫓겨다니고있었다. 날개짓이 돌기 시작한 헛오리들이 먹이감을 찾느라 짓밟고 쑤셔놓아 두어개의 모판머리에 흙탕물이 떠돌고있었다. 좀더 치체했더라면 어린 모가 적지 않게 손상될번 했다.

《후여- 이 못된 놈의 오리새끼들... 원칙은 혼자만 아는것 같더니 무슨 심보로... 후여-》

관리공은 오리와 그 주인에게 한대중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알고보니 홍화숙이네 집 오리였다. 모판관리공은 지난해 여름철 가동을 새끼로 굶땀다고 홍화숙한테 덜미를 잡혔던 녀인이었다. 그때 홍화숙의 제기를 받고 관리위원장은 거의 마무리되었던 분배계산을 고쳐하도록 하였다. 매 농장원별로 가동과 로력일을 재확인, 재평가하는 바람에 반장, 분조장들이 얼마나 진땀을 뺐었는지 모른다.

《똥물은 개 겨물은 개홍본다더니 제 집 오리새끼는 중하고 농장벼모는 귀하지 않나?...》

반장이 들으라는듯 녀인의 지청구는 그칠줄 몰랐다. 아닌게 아니라 석근이도 속이 치밀어 견딜수가 없었다. 되게 문제를 세워야겠다고 욱벼르며 모판을 살피던 석근의 눈이 다시금 커졌다. 모판가운데로 굽직한 말뚝을 푹 박았다 뽑은듯 한 자리들이 띄엄띄엄 널려진것을 보았던것이다. 눈여겨보니 소밭자국이였다. 감탕양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것으로 보아 소가 들어갔던지 얼마 안지났다는것이 알려졌다. 어린 벼모를 들성들성 뜯어먹은 자리도 있었다.

(누가 소를 모판에?)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가까이에는 소그림자도 없었다. 모판관리공은 저쪽에 멀찌감치 서서 어물대고있었다. 오리를 내몰며 떠들 때 보아선 금시 일을 칠듯 싶던 녀인같지 않았다. 일부러 피하는듯 싶었다. 그를 불러 모판관리에 관심을 높여야겠다고 강조하고나서 석근은 만평틀로 향했다.

밭고랑을 오르내리며 어린 강냉이포기들을 살피

며 무엇인가 수첩에 적어넣던 연구사처너는 석근을 보자 반색을 했다. 강냉이의 생육상태가 평지발 못지 않게 좋다고, 여기 농장원들의 일본새에 탄복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냉이를 가을할 때까지 시험포전관리를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다음날 10일총화뒤끝에 석근은 농업과학원 처너 연구사의 연구사업을 잘 도와줄것을 강조하고나서 어제 3분조모판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소임자는 알수 없어 주의를 주는데 그치고 홍화숙은 이튿날을 찍어서 추궁을 했다.

《사실이야 그것도 약파지...》

비양기가 뻗 3분조장의 목소리였다. 그러자 창문 밑에 앉았던 프락포르운전수 명국영이가 통을 주었다.

《3분조장은 잠자코 있구려. 우정 그런것도 아닌데...》

《모르면 가만있소. 그 모를 키워 수확할 량까지 타산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의견이 있으면 정식으로 제기하시오.》

석근의 어성이 다소 높아졌다.

느닷없이 홍화숙이가 불쑥 일어섰다.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휴식날이라구 모판에 늦게 나온 관리공이 잘못이고 다음은 유독 3분조만이 방풍장이 껴져진 곳을 메꾸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래도 오리한테 잘못이...》

《누가 오리더러 잘못했다우? 모판에 오리를 놓아준 아주머니가 잘못이라느거지.》

3분조장이 통명스런 어조로 그의 말을 동강냈다.

《전 방풍장도 없이 모를 붓고 또 모판을 비운 3분조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

모두들 마주 보기만 했다.

《거 뭐 듣구보니 피장파장이로구만. 찌가지나 삶은 가지나 같구같수다.》

명국영이 긴목을 빼들고 그렇지 않느냐는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조막손을 가지고도 논밭갈이는 물론 나사를 풀고 조이는 수리작업까지도 귀신같이 해제끼는 고급기능공이었다.

맨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1분조장이 일어섰다.

《난 홍화숙아주머니의 말이 옳다구 봅니다.》

긴장해졌던 회의장이 갑자기 술렁거렸다. 옳다, 편견이다, 아니다, 그래야 정확하다...

석근은 아연해져서 아바이를 지켜보았다. 이 마당에서 누구보다 책임적인 발언을 해야 할 아바이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정말 뜻밖이었다. 숨털만한 약점이라도 붙잡으면 누구나 가림없이 따지고드

는 《홍말썰》이한테 아바이마저 겁을 먹었는가?

《어쨌든 근원을 따지면 3분조에 잘못이 있는건 사실이지요.》

아바이가 명백하게 찍어말하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결국 비판은 3분조장과 모판관리공이 받은 셈이 되었다.

《3분조장, 내 이럴것 같아서 입다물고 있으라는데 굶어부스럼을 만들더니만. 이게 무슨 망신이요? 오리한테 지는 사람도 있나?》

회의가 끝난뒤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국영이가 3분조장을 시까스르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했으나 석근은 따라 웃을수 없었다. 그 말은 마치도 석근에게 《당신하는 일은 왜 그 모양이요?》하는 소리로 들렸기때문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때리려다 맞은격이 되었으니 망신을 당한건 다름아닌 자기가 아닌가.

3분조장은 어이가 없는지 텅빈 선전실에 멍하니 앉아 일어설념을 못했다.

《일은 도깨비가 저지르고 벼락은 허수아비가 맞는다더니... 정신을 차리라고요. 물덤벙술덤벙하면서 오는비 가는비 다 맞지 말구요. 차라리 분조장이 구 뭐구 썩 견어치우던가...》 출입문밖에서 3분조장의 안해가 남편에게 하는 소리였다. 3분조장은 빈입만 찹찹 다셨다.

홍화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 태연한 자세로 걸어갔다.

《저렇게 물 한방울 새지 않으니까 집세간살이하는걸 좀 보라요. 아래웃방, 부엌할것없이 번쩍번쩍하게 꾸려놓고 팽동기, 색텔레비존, 록음기, 재봉기 없는게 없어요. 프락엔 어미돼지 두마리가 낳은 새끼돼지만도 스무마리가 넘지, 찢까는 염소만두 세마리, 토끼, 닭, 오리, 계사니, 칠면조가 한마당 우글우글하지...》

너인들이 앞서가는 홍화숙을 가리키며 주교받는 소리였다.

《그집 터밭농사는 어떻구요. 겨울엔 박막을 씌워서 부루, 썩갓, 배추를 키우고 봄엔 감자를 심었다가 하지무렵엔 고추를 옮기구 고추가울을 하고나선 마늘을 심구, 이런식으로 손바닥만 한 땅도 거저 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열사람들이 하는 일이 눈에 찰리 있겠어요. 그런 이악쟁이가 비판을 순순히 받아들일게 뭐예요?》

《3분조장이 잘못한거야 사실이지요. 저 뽕밭아래 만평들 강냉이밭을 보라요. 3분조가 부칠 땐 언제 한번 땅구실을 온전히 못했는데 올핸 1분조가 부치더니 벌써 김을 두번이나 돌려댔대요. 제 집일도 그 식이니까 집사람한테 바가지 굶는 소리만 들지요. 그러게 한가지가 열가지라지 않아...》

그들은 홍화숙이가 아니라 3분조장을 비난하고 있었다. 3분조장한테도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깊이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문제를 상정시켰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야 홍화숙이가 아닌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 놓고 경우를 따지는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다면 왜 3분조장을 비롯한 몇사람을 내놓고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를 두둔하는가? 말썽군, 타산쟁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말이다. 《오리사건》은 석근의 머 리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질줄 몰랐다.

×

첫 모내기를 하던 날이었다.

논판에 물을 대느라고 밤새껏 수로뚝을 오르내리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었던 석근은 포전방송소리에 화다닥 일어났다. 밖에 나서니 희뿌연 안개속으로 논두렁에 꽃은 기발들과 구호관, 속보판들이 내다보였다.

프락프르에서 밤샘을 한 운전수가 옷몸을 쑥 내밀고 씨레질한 논을 살피고있었다. 큼직한 버치속에다 짙은데기틀을 박아넣고 편안히 들어앉아 모를 뜨는 아낙네들뒤로 야들야들한 벼모춤이 벌써 두어발씩 줄지어섰다.

《농장적으로 제일 먼저 모내기를 시작한 5작업반 1분조농장원들을 축하하여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방송원의 목소리에 이어 씩씩한 취주악이 울려 퍼졌다. 북과 나팔, 손풍금을 댄 기동예술선전대원들이 나오고 리당과 관리위원회 일꾼들도 논머리에 나타났다. 농장의 모든 초점이 첫 모내기를 하는 1분조에 집중된셈이 었다.

석근은 은연중 발걸음이 빨라졌다. 벌 한가운데를 꿰치르고 뻗어간 철길뚝밑에서 1분조장이 홍화숙이와 말싱갱이를 하고있었다.

《아니, 혼자선 안되오. 모를 셋째도 그래, 모내는 기계에 모함을 섞기재도 그래, 게다가 풀어진 모춤을 손질하고 귀잡이보식까지 하자면 날구 뉘대도 혼자서는 안된단니까...》

홍화숙은 제 말만 고집했다.

《글쎄 혼자서 해보겠단니까요. 모뜨기가 딸리는 데.》

《아유- 못해요. 둘이서도 벵찬 일인데...》

옆에 섰던 은애 엄마가 손사래를 쳤다.

《만약 혼자서 해내면 어찌겠어요?》

홍화숙이 웃으며 물었다.

분조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 한번 믿어보라는 소리인데...》

분조장의 반성낙을 받아 홍화숙은 모판쪽으로 총

총히 달려갔다.

최정식은 미심쩍은 눈길로 그의 뒤모습을 따르다가 은애 엄마에게로 돌아섰다.

《믿어봅시다. 정 딸리면 다시 불일셈치고... 그럼 은애엄마는 모뜨는데로 가시우.》

홍화숙은 모를 나르는 청년을 붙잡고 보도랑을 가리키며 뭐라 하더니 모내는 기계가 들어선 논쪽으로 급히 멀어져갔다.

1분조논과 잇닿은 큰길쪽에서 승용차 벗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에서 내린 경영위원회 위원장과 파장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석근이와 인사를 나누고나서 모내기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총하없이 툼툼히 자란 모들이 빈틈없이 들어찬 벼모판들, 미장칼로 다듬은듯 곧고 매끈한 논두렁들과 유리판처럼 네모반듯하게 수평을 고루어놓은 논판들, 물이 구울려내리는 논고마다 알뜰하게 쳐놓은 물고바자들...

안개발이걸히고 해빛이 부서져내리는 논판에서 모내는기계가 푸른주단을 펼치고있었다.

뿌리를 깨끗이 씻은 벼모들이 열개나 되는 기계손에 물려 말큰한 흙에 나란히 줄을 짓는 모습은 마치 신기한 동화속의 세계처럼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만족한 모습으로 기계의 작업상태를 살피며 논두렁을 천천히 걸어갔다.

석근은 홍화숙의 일이 안심치 않아 가끔 뒤를 돌아 보았다.

인수로를 따라 모춤들이 줄지어 떠내려오고있었다. 홍화숙은 무릎을 걸어올리고 도랑에 들어서서 모뿌리를 씻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손에 여라문단씩 거머쥐고 침병거리다가 논두렁에 놓인 모함에다 던져 넣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량손으로 번갈아 던지는데도 모단들은 면바로 모함속에 날아들어갔다. 정말 기계같은 솜씨였다.

떠내려오는 모춤들이 보이지 않자 그는 허리를 폈다. 인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던 그는 물밑에 가라앉은 모춤들을 건져내어 량손에 갈라뒀더니 모판쪽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웬일인가싶어 석근은 눈더듬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이걸 보세요. 모를 이렇게 흙덩어리채로 뜨는법이 어디있어요? 이 흙덩이들이 나르고 씻고 쫓는데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가 말이에요. 이것때문에 량비된 로력을 쓴 사람한테서 똑똑히 계산해야겠어요...》

모를 뜨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목소리가 얼마나 쟁쟁한지 석근은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도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발동소리때문

에 듣지 못한듯 싶었다.

홍화숙은 다시 물길을 따라 내려오며 가라앉은 모들을 건져내어 흙을 씻느라 침병거렸다.

얼마 안있어 모들이 떠내러오기 시작했다.

《모가 내려가요. 좀 잡아주세요.》

홍화숙의 다급한 웨침에 석근은 황황히 도랑에 뛰어들었다. 어느결에 왔는지 경영위원회 위원장도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섰다. 잠시후에 그가 땀만 이마를 훔치며 다가왔다.

《수고합니다. 아주머니, 이 일을 혼자서 하는가요? 분조장이 노력이 딸린다고 혼자 시킨 모양이구만...》

《아닙니다. 원래 둘이 하라는걸 제가 혼자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풀어진 모춤들을 손질하며 그가 대답했다.

《그랬을 땐 무슨 타산이 있었겠지요?》

《사실은 품이 많이 드는 모뜨기에 한사람이라도 더 붙이자구 했었는데... 물도랑을 따라 내려오면서 모춤이 말끔이 씻어지리라고만 생각하고. 경영위원장동지까지 발벗게 해서 안됐어요.》

그의 말에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호탕하게 웃었다.

《시원한게 좋군요. 반장동무, 동무네 농장원들이 괜찮소. 일을 할줄 안단 말이요.》

그날 저녁 모내기준비정형을 료료해하느라 매 분조를 돌아보고난 석근은 작업총화에 모여앉은 1분조로 갔다.

농장원들이 분조장앞에 둘러 앉아있었다.

어두워오는 기미를 느낀 개구리들이 침병- 침병-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벌써 《개굴 개굴》하고 저녁합창회의 발성연습이 시작되고 있었다.

매 사람들의 로력일을 불러주던 분조장이 홍화숙의 차례가 되자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의논조로 물었다.

《아주머니가 오늘 수고가 많았는데 얼마로 평가해야겠는지 의견들을 말해보시우.》

분조장의 얼굴만 지켜볼뿐 모두가 조용했다.

작업복주머니에서 까만 비닐지갑을 꺼낸 홍화숙은 그안에서 손바닥안에 드는 자그마한 수첩을 꺼냈다. 별로 광택이 나는데 싶어 눈여겨보니 얇은 비닐로 여러번 감싼것이였다. 물속에 잠그어도 물한방을 스며들지 않게 정히 싸낸것이였다. 홍화숙의 로력일수첩이였다. 그 수첩때문에 3분조장이 곤경을 치른적이 있었다 한다.

어느 여름날 분조원들과 함께 논김을 때던 3분조장이 때아니게 쏘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물참봉이 되였다. 옷을 비틀어 짜입고서야 주머니에 들어있던 로력일평가계산서 생각이 나서 꺼내보니 며칠동

안의 계산서가 한줌의 종이떡이 되고말았다. 매일 통계원에게 집계되어야 하는 계산서를 며칠씩 묵이기가 일쑤였던 3분조장은 등이 달았다. 워낙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그였지만 스무명도 넘는 사람들의 며칠동안의 가동로력을 되살려낼 재간이 없었다. 좋은 머리보다 서툰 문서가 낫다고 따로 적어둔 수첩이라도 있으면 다시 계산서를 정리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없으니 야단이였다. 그래서 적당히 꾸며가지고 통계원에게 주었는데 내막을 알리 없는 그는 그대로 10일공시판에 공시했다.

하루가 지나서 홍화숙이가 찾아와 자기의 로력일이 두공수나 많아졌는데 확인해보라는것이였다. 다른 사람들도 작아졌거나 많아졌다는것이였다.

홍화숙이 꺼내놓은 로력일수첩과 대조해보니 모든것이 사실이였다. 그의 수첩에는 어느날 누구하고 무슨 작업을 했는데 로력공수는 얼마씩 받았다고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던것이다.

3분조장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가며 적당히 공수를 매겨주었던것이다.

홍화숙이의 로력일수첩에 의해 그것이 알려지는 통에 3분조장은 로력일평가와 공시를 바로 할데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리적인 초급일군회의에서 비판을 받았었다...

홍화숙은 그 수첩을 들여다보며 무슨 속구구를 하더니 머리를 들었다.

《두사람몫을 했으니까 그만큼 주어야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자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분조장도 분조원들도 눈을 크게 떴다.

석근은 어이없는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니 다 달란 말이지...》

분조장은 혼자소리처럼 되이며 분조원들을 쳐다보았다.

《제 생각엔 그것도 적다고 봐요. 그 일을 혼자서 보장했으니 하루종일 오죽했겠어요.》

아침에 홍화숙이와 함께 일하게 되어있던 은애엄마가 하는 말이였다.

강영실이기도 한마디 했다.

《홍화숙아주머니가 올리뛰구 내리뛰 단덕에 오늘 첫 날인데도 모내기계획을 넘쳐하지 않았나요. 저두 은애엄마의 의견에 찬성해요.》

《오늘같은 날에는 두공수 주어도 아깝지 않지요...》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자 1분조장의 검스레한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어리였다.

《자, 그럼 그렇게 평가합니다.》

홍화숙의 얼굴이 미소로 환해졌다. 분조원들의 한결같은 칭찬에 기분이 뚝 뚝 뚝...

그가 수첩을 펴들고 일어섰다.

《난 한공수뿐이고 나머지는 경영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과장동지뭉치예요.》

미소를 머금은 홍화숙의 얼굴이 발가우러해졌다.

《모쪼록 물도랑에 날라다 넣으면 떠내려오는 동안 뿌리가 다 썩어져 건져내기만 하면 되리라고 타산했는데 흙덩어리가 달린 모때문에... 다들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라고 무슨 뽕죽한 수가 있겠어요. ...》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석근의 마음도 한결 누그러졌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두뭉으로 평가합니다.》

분조장의 말에 홍화숙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안돼요. 그 로력공수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우리 분조 알곡생산계획에 맞물린 공수가 아닌가요. 나한테는 내가 번것만이면 돼요. 그이상엔 절대로 받을수 없어요. 난 그저 우리 분조 모내기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서 포기마다 실한 이삭이 맺히길 바랬을뿐이에요.》

싱겁이끝에 본인의 요구대로 한사람분인 1.5공수로 평가되었다. 드바쁘고 힘겨운 하루일의 피곤도 잊은듯 웃고 떠들며 마을로 멀어져가는 1분조원들을 바라보며 석근은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언제인가 3분조장이 홍화숙이를 두고 저 하나밖에 모르는 말썽군이며 타산쟁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가 아무 일에서나 남보다 타산이 많은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 하나의 체면이나 리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조와 작업반이라는 집단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것이 그의 진속이 아니겠는가. 그것과 어긋나는 일때문에 자주 마찰이 생기고 뒤소리를 듣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말도 하기싫어하는데 무슨 성미가 그렇게 돼 먹었는지...)

석근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었다.

X

드디어 가을걷이가 시작되었다.

석근은 강녕이가을부터 먼저 끝낼 계획밑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땅에 기울인 노력의 대답인듯 잘 익은 강녕이들이 연방 들이닥쳤다. 분조별로 구획을 지어놓은 창자앞의 넓은 마당에는 며칠여간에 강녕이사태가 났다. 나중에는 강녕이를 실은 트랙토르가 빠져나갈 통로마저 막혀버릴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반 탈곡장에서는 뜻밖의 일이 생겼다. 1분조에서 전날밤에 강녕이 두차를 탈곡장으로 실어보냈는데 부러놓은것은 한차밖에 안된다는것이였다. 한두가마니도 아니고 적재함높이의 두배나 되게 발을 치고 넘쳐나게 실은 이삭강녕이 한차가 없어졌다니 이 무슨 소린가?

석근은 급히 탈곡장으로 갔다. 얼핏 보기에다 스무차는 넘게 보이는 1분조장녕이무지앞에 홍화숙이와 강영실이 서있었다.

저편 3분조장녕이무지 옆에서는 3분조장과 마당관리원녀인(봄에 벼모판관리공을 하던 녀인이었다.)이 이쪽을 띄어보곤 했다.

《강녕이가 한차 없어졌다는게 무슨 소리요?》

낮색이 어두워진 홍화숙은 강녕이무지에 눈길을 박은채 대꾸했다.

《어제밤 분명 두차를 실어보냈는데 오늘 낮에 둘러보니 한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홍화숙이가 발견했다는건가? 대체 무엇을 보고?...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였다.

홍화숙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는 제앞의 강녕이 이삭무지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게 어제밤 만평들에서 들어온 강녕이예요. 거기서 두차가 들어왔다면 이만한 무지가 하나 더 있어야했는데 어디 있나 말이에요?》

석근은 묻는듯 한 눈길을 강영실에게 돌렸다.

강영실은 여전히 눈길을 떨구고 덤덤히 서있었다. 아무렴 밭에서 실어보낸 강녕이가 탈곡장에 왔겠지 다른데로 갔겠냐 하는 표정이였다.

《거 만평들 강녕이가 어쨌다고만 하지 말구 얼뎡한 소리만 하지 말고 똑똑한 증거를 내놓으란 말이요.》

3분조장은 뚝 번치고서서 울러메였다.

홍화숙은 아래 입술을 감쳐물고 강녕이무지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2분조와 4분조 무지를 거쳐 3분조 무지앞에 이른 홍화숙은 공지와 잇닿은 가녀에 두드러져나온 이삭 더미를 유심히 살피다가 물었다.

《이것이 어제 실은 강녕이인가요?》

마당관리원은 꼭지 않은 눈매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홍화숙이 이쪽으로 다가올 때부터 눈살을 찌프리고있던 3분조장이 물밖에 던져진 가물치모양으로 펄쩍 뛰었다.

《그럼 우리가 남의것을 실어다 놓았겠소? 보자 보자 하니까...》

홍화숙은 오금을 꺾고앉아 한이삭 한이삭 집어 들고 들여다보았다.

《실컷 보구려. 이삭에다 이름을 썼소, 냄새가 다르오? 정말 골아프게 그러누만...》

3분조장이 코웃음을 쳤다.

홍화숙은 목깃에 걸쭉던 연보라빛 수건으로 허리를 질끈 동이더니 이삭들을 한아름씩 꼬당겨 이쪽저쪽으로 헤쳐놓기 시작했다.

석근은 웬일인가 싶어 그리로 다가갔다. 강영실
이도 스적스적 따라왔다. 우물을 파듯 무지를 우묵
하니 헤쳐놓던 홍화숙이 강냉이 한이삭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나서 삼태기안에 놓았다. 희스무
레하게 바랜 오사리를 말끔히 벗겨내고 풀을 먹인
흰 명주오리같은 속오사리만 씌워져있는 류달리 큰
이삭이었다. 무지를 헤치던 그는 얼마 안있어 그 비
슷한것을 또 골라내었다. 이렇게 하기를 몇번... 하
나같이 멀쑥하고 탐탁해보이는 강냉이이삭이 삼태
기안에 반쯤 들어찼을 때 그가 별안간 허리를 폈다.

《찾았어요. 이진 우리거예요. 어제밤 두번째차는
여기예다 부렸군요.》

《아니 뭘보구 1분조거라는거요? 뭘보구?》

일쳐버리기라도 한듯 다가서는 3분조장의 옷자
락을 마당관리원 녀인이 잡아당겼다.

홍화숙의 눈이 한순간 빛났다. 그는 발치에서 류
달리 길어보이는 강냉이 한이삭을 집어들었다.

그 이삭은 오사리 끄트머리가 가는 풀대로 꾹꾹
동여져있었다.

《이진 내가 어제 만평틀 발에서 강냉이를 따다가
너무 실해서 알수를 세어보고 도로 오사리를 씌워
서 동여맨거예요. 연구사처녀에게 보이자구요. 열
여섯줄에 814알이었어요. 내 말이 틀리는가 세어보
세요. 한알만 틀려도 이 한차를 3분조 강냉이로 인
정하겠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확신에 차있었다.

홍화숙이가 강냉이이삭을 3분조장에게 내밀었다.
3분조장이 내키지 않는 손으로 받아들고 세여보
기 시작했다. 말그대로 지계다리도 건너갈만큼 크
고 말이발같은 알들이 빼곡한 강냉이이삭은 틀림없
는 814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3분조장은 썩한 눈으로 석근이만 마주 볼뿐 대꾸
를 못했다. 강영실은 얼굴이 수수떡빛이 되었고 마
당관리원녀인은 흘린듯이 강냉이이삭만 쳐다보았
다.

이때 트랙포트에 랭각수를 보충하러 물을 뜨러갔
던 명국영이 다가와 이 사실을 알고 피씩 웃었다.

명국영은 강냉이무지에 풀썩 주저앉았다.

《허 그러니 내 탓이요?》

사실은 어제밤에 1분조에서 막차를 싣고 들어 오
는데 비꼬치가 떨어지지 않았소. 그래서 난 부려 놓
고 비를 맞히느니 실어놓은 채로 박막이라든 씌워
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부릴 생각으로 한쪽옆이
흰히 트인 3분조 무지옆에다 차를 세웠던거요. 1분
조에 대자니 통로가 좁아져 이삭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갈수 없었던 말이요. 오늘아침 차정비도 할겸
일찍 나와보니 경비원들이 벌써 다 부리우지 않았

겠소. 그들도 농산분조를 돕자구 한 일인데 누구네
것인지 모르다나니 일이 별스럽게 되었던 말이
요.》

명국영의 뜻밖의 실토에 바빠난것은 강영실이와
3분조 마당관리원이었다.

어쨌든 탈곡장에 들어온 곡식은 마당관리원한테
책임이 있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었던것
이다.

《어쨌든 어제저녁보다 불어난것 같아서 분조장
한테 얘기하던 참이었는데...》

마당관리원이 변명조로 중얼거리자 분조장은 명
국영에게 눈을 흘기었다.

《그러면 그렇다구 말을 해야지 애매한 두꺼비 떡
돌에 치인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그 말에 명국영이 제편에서 큰소리를 쳤다.

그러는 사이에 홍화숙은 헤쳐놓았던 강냉이를 열
추 모아놓고 3분조 무지와 린접한 곳에 쭈그리고앉
았다. 한이삭 한이삭을 들어살펴가며 골라내어 풀
을 틔우고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3분조장이 다가
섰다.

《됐수다. 아주머니, 그럴것없이 내 곡상 한차 돌
려줄테니 어서 가보오. 공연한 수고말고...》

《그런게 아니예요. 이 강냉이는 <ㅈ>품종이고 3
분조것은 <고>품종이니 자세히 보면 한이삭도 섞
이지 않게 갈라낼수 있어요.》

그제야 마당관리원과 명국영은 깨도가 되는듯 마
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후 트랙포트가 강냉이무지옆에 와 멎었다.

운전칸에서 내린 명국영은 제먼저 삼태기에 이삭
을 무드기 담아 적재함에 휘뿌려던졌다.

《아주머니, 용서를 비는셈 치고 넉넉히 돌려주겠
다니까 그만 가보시우...》

홍화숙은 자리를 뜰 생각을 안했다.

《이쪽에 갈리놓은것만 실자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갈라냈다.

삼태기에 담긴것도 유심히 살피다가 어떤 이삭은
골라내어 3분조무지에다 옮겨놓았다. 남의것은 단
한이삭도 필요없다는 내심의 충동인듯 싶어 3분조
장은 화가 벌컥 치밀어 홍화숙의 손에서 삼태기를
나꿔챘다.

《뭘가 아직 내려가지 않아서 생색이요? 이렇게
당신을 주어야 씨원하겠소? 이거나 저거나 무엇이
다른가 말이요? 까다롭다는건...》

3분조장은 서리맞은 무우잎처럼 시퍼런 인상이
되어 발치앞의 강냉이를 와락 잡아챘다. 그 서슬에
좁전에 골라놓았던 큰 이삭이 저만치 굴러났다. 홍
화숙은 창황히 그 이삭을 집어들었다.

숨가진 물건이런듯 찬찬히 쓰다듬었다.

하얗게 질렸던 그의 얼굴이 차츰 익은 고추빛으로 변해갔다. 3분조장에게로 향해진 그의 눈에 물기가 그렇하니 고여올랐다.

《너무 지나쳤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 강냉이는 한이삭이라도 चु나거나 보태여져도 안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풀자구 우리 과학자들이 뼈와 살을 깎으며 연구해낸 품종인데 정확한 수확고를 알려줘야 그들의 연구사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알곡을 낼게 아닌가요. 이것이 소란을 피우고 까다롭게 구는것으로 되는가요...》

그의 두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소에 것처럼 이악스럽고 냉정하게 보이던 그의 눈물앞에 모두들 어쩔바를 몰랐다. 명국영이가 조막손을 들어 모자자리에 놀리운 머리칼을 쑥쑥 문질렀다.

《아주머니, 내 생각이 짧았수다. 난 그저 팔이야 풀어져두 가마안에 있는걸 하구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수다.》

3분조장은 땅이 꺼지게 긴 숨을 내그으며 머리를 떨구었다. 마음이 헤론 강영실은 불깃해진 두눈을 습뻑이었다. 주변의 일에는 무관심한듯 강냉이이삭만 부지런히 담아올리던 마당관리원이 갑자기 기력이 진한듯 풀썩 주저앉았다.

《진짜 못돼먹은건 나였수. 이번 일은 제쳐놓고라도 봄철에 있는 일도 그렇지요. 그때 오리방목하러 오던 홍아주머니가 벼포판에 들어간 소를 끌어내여 주인한테 찾아주자구 등넘어간 틈에 그 일이 벌어진걸 알면서도 제 고까운 생각만 하면서 여직껏 아닌보살하고 있었지요... 나야말로 저 하나밖에 모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쪽정이었수다...》

《!...》

석근은 새삼스런 눈길로 홍화숙을 바라보았다. 그런줄도 모르고 자신은 여태 그때의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오늘 일을 놓고도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석근이자신도 연구사를 잘 도와야 한다고 강조도 하고 원심도 써왔지만 저 홍화숙이처럼 이삭의 알수까지 세여가며 진심으로 돕지는 못했었다.

명국영이가 손을 뻗쳐 삼태기안에 골라담았던 강냉이 한이삭을 집어들었다. 이삭의 무게를 가늠하듯 몽�한 손바닥에 올려놓고 추측해보던 그는 오사리를 벗기기 시작했다. 한겹, 또 한겹... 줄사이에 배긴 수염까지 말끔히 뜯어낸 그는 그것을 해불 마냥 우뚝하게 세워잡고 앞으로 뻗쳤다. 다듬이방치처럼 미끈하고 단단해보이는 이삭은 한낮의 해빛을 받아 금빛 윤기가 돌았다. 땅에 심어 가꾸었다기보다 세심한 조각가의 손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듯 볼수록 탐스런 이삭이었다.

명국영이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잘된 이삭은 처음인걸... 매편마다 이런 이삭이 달리면 탈곡장이 그대로 난알산이 되겠군. 그때 밤낮 실어도 못다 나르겠으니 바쁜건 이 조막손이뿐이로군...》

《그때 가서 무지를 또 헛갈리면 안되겠어요!》

홍화숙이 밝은 어조로 하는 말에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언제 다투었던가 싶게 밝게 웃는 홍화숙을 부러웁게 지켜보던 강영실이 짐짓 입을 열었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모든 일이 바로 되게 하자구 것처럼 아글타글 한건데... 같은 값이면 웃는 낮으로 듣기 좋게 말해버릇 하라요. 그것때문에 애써 일하고도 아픈 말을 듣지 않나요.》

홍화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가셔졌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연히 중뿔나게 나서서 미움을 사지말자구... 하다가도 그런 나때문에 나중에는 이삭이 작아지고 쪽정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곤 했어요...》

그의 얼굴이 수집음을 타듯 발가우리해졌다.

《...그때마다 난 우리가 심어가꾸는 매 곡식포기마다 다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자면 나부터가 자나 깨나 농장원의 본분을 안고사는 마음으로 알알이 영글은 이삭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석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농장원들의 꿈이고 희망인 탐스런 열매는 저절로 차례지지 않는다. 저 홍화숙의 말처럼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자각과 아름다운 지향으로 매개 농장원들이 하나의 영근이삭이 되여야 할것이다.

밝게 웃으며 땀을 씻고있는 저 홍화숙이처럼...

×

어둠이 깃든지도 퍼그나 지나서야 1분조장이 돌아왔다. 털모자에는 성에가 하얗게 붙었다.

《...글쎄 퇴비실사를 여러조로 나누어 하다나니 들것마다 담은 량이 다르고 퇴비질평가도 제나름으로 하다보니 공정치 못했지요. 일전에 나두 그걸 생각은 했었지만 농사군회계에 그쯤이야 하고 스쳐버렸 댔지요. 홍화숙이가 그걸 꺼들었지요. 그래서 같은 규격의 맞들이를 만들어 수량확정과 질평가를 다시 하다나니 이렇게 늦었소... 그건 그렇구 반장동문 누굴 분조장 시켰으면 좋겠소?》

《글쎄요...》

석근은 일부러 딱한 대답을 피했다.

《반장동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그 홍화숙이가 적임자라구 보는데...》

《예?!》

《그러니 반장동문 반대라는거요?》

석근은 침묵을 지켰다. 아바이의 말을 통해 자기의 견해가 옳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우리 초급일꾼들이 사람들의 일본새와 마음

속까지도 정확히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눈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소? 협동경리가 남의 등에 업혀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자고 생긴 건 아니지 않소. 그런 면에서 난 그가 얼마든지 분조관리체의 원칙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분조를 이끌어나가리라 믿수다. 지금 우리 농장원들이 이런 사람을 초급일군으로 내세우길 바라고 있단 말이요.》

《고맙습니다. 실은 저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허. 그런걸 난 반장동무가 반대하지 않을가 하고 조바심을 쳤지요. 허허...》

석근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자기 역시 시대와 대중이 바라는 그런 일군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가슴을 쳤다.

그들이 선전실을 나서려고 할 때였다.

출입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3분조장이 들어서 는 것이었다. 그의 숨옷깃에서 은조각같은 눈가루들이 전등빛에 반짝거 렸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요? 날씨두 찬데...》

그는 아래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입을 열었다.

《내 지금 리당위원회에 들렀다 오는 길이요.》

《?...》

《분조장사업을 인제하게 해줄것을 제기했소. 그리고 홍화숙아주머니를 3분조장으로 보내줄것을 제기 했소.... 난 3분조에 그냥 눌러앉아서 이제부터라도 알찬 일본새를 배우고싶소. 하루이를 생각해본게 아니니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으면 하오. 부탁이요.》

3분조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어려있었다.

《허, 그럼 야단인걸, 난 홍화숙이를 놓아주지 못 하겠는데...》

1분조장의 말에 그는 열띤 어조로 대꾸했다.

《어찌겠소. 미운놈 딱한게 더 준다고... 날 좀 도와주시요.》

아바이와 석근은 마주보며 웃었다. 웃음끝에 가슴이 쩡 울렸다.

《아무래도 안되겠군. 강영실을 홍화숙이만 한 재목으로 키운 담에 분조장을 인제할수밖에...》

《!...》

잠시후 세사람은 희뿌연 어둠속에 잠긴 밖으로 나섰다.

여전히 맵짠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있었으나 그들의 가슴은 봄날의 훈향속을 걷는듯 후덥게 달아 올랐다.

고전시

북쪽지방을 순행 하면서 외 1편

정 문 부
역 권택무

국경 장강 두루 밟아가는 길 끝없어라
동서해 기슭에서 백산의 동쪽까지
새벽 얼핏 꿈에도 그리운 고향생각
북풍은 불어와 군복자락 뒤채기네

칼들고 망설이니 병든 학과 바위 같아
시름겨워하는차에 기러기 울며간다
곁에 있는 의원이야 이내 심정 어이 알랴
병인가 근심하여 수웅(약)만 들라 하네

온성에서

북극성 마주보게 높은 성 쌓아놓고
저 바다의 고래낙야 이 칼로 버히고저
바다물 술이라면 취하도록 다 마시며

백신을 잔삼아 벗과 뜻을 나눠보리
※ 이 시들은 정문부가 북평사로 있을 때
지은것이다.

붓대의 사명을 다하고자...

땡-땡-땡-

희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0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 차흐르는 그리움의
무한한 걱정으로 이 땅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까
창문가에 불밤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까

땡-땡-땡

그리움에 태업을 감은듯 우주의 새벽하늘가에 울
려퍼지는 평양역 시계종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찰니
다. 류다른 감회와 뜨거운 추억을 불러옵니다.

세월이 흘러흘러 어느덧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0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을 시작하신 40돐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선
포 30돐!

얼마나 정깊고 가슴아픈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사
변들로 가슴벅찬 한해입니까.

감회깊은 이 새해에 울리는 저 종소리는 우리가
터어린 붓대의 사명을 자각케 하여줍니다.

수령결사옹위의 붓대, 위인칭송의 붓대를 더욱
높이 그리고 씩없이 힘있게 달리라고 새해의 진군
길로 떠밀어주는듯 싶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글을 많이 써서 인민들에게 알려
주고 대대손손 길이 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 작가들이
《조선문학》잡지에 수놓아가야 할 창작방향과 목
표가 환히 밝혀져있습니다.

선군의 기치따라 날로 꽃피우는 내 나라, 내 조국
의 그 어디나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체취와 환하신
미소, 위대한 숨결이 가슴뜨거이 안겨옵니다. 수령
님의사상과 뜻이 어려웁니다. 수령님의 력사가 이
땅위에 영원히 흐르고 흐른다는 민족적공지로 가슴

부풀어오릅니다.

정말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의
혼연일체가 낳은 위대한 현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
께 계신다》**는 영생의 신념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
는 선군시대에 사는 작가로서 자기들의 붓대로 영
생의 위대한 진리를 노래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당
의 작가이며 **김일성**조선의 공민이라 하겠습니까.
붓대가 걸어온 지나온 력사의 갈피갈피를 헤쳐보아
도 붓대의 사명과 임무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문학으로 결사옹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편집부는 작가동지들이 지난해 선군의 기치
따라 혁명적인 작품창작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한껏 떨친 긍지드높이 새해에도 더 훌륭한 작품, 시
대가 약동하는 명작들을 창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수령결사옹위의 붓대를, 위인
칭송의 붓대를 씩없이 더 힘차게 달려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분이시였던가
를 실생활속에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인민
적감정을 형상적화폭에 담아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
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시대의 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훌륭히 창작해주기를,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인적풍모
에 대한 형상적폭을 넓혀 이 땅에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영생의 력사가 흐르게 하신 그이의 숭고한
충성과 도덕의 리세계를 과시하는 작품들을 보다
더 왕성하게 창작 해주기를,

하여 《조선문학》이 언제나 선군으로 들끓는 시
대의 숨결로 호홉하고 약동하는 잡지로 되게 하는
데서 우리모두 시대의 기수, 나팔수가 됩시다.

땡-땡-땡-

당의 작가, 수령의 작가라는 시대적임무, 공민적
자각을 가슴깊이 새겨주며 울리는 새해의 저 종소
리.

저 종소리에 마음을 담아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선군시대의 명작창
작으로 분발하고 또 분발합시다.

편집부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며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역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김정일

후세에 길이 전해질 선군시대의 문학작품을

《인생은 짧고 문학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생명력에 대하여 시사해주는 이 말은 시대와 시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길이 전해지는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들을 찬양하는 말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그렇듯 생명력이 있는 걸 작품을 써보려고 한생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 역시 명색은 작가인것만큼 그런 점에서는 예외로 될수 없습니다.

하나 돌이켜보면 저는 먼 후세의 인간은 커녕 동시대 인간들의 기억에서조차 인차 사라져버리는 단명한 줄작품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작가가 되여보려고 미친듯이 책을 읽고 습작도 하던 문학소년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 나이가 60대의 중반기를 넘어서고있으니 참으로 사람의 한생이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 《늦게나마 좋은 작품을 하나 남겨놓아야겠는데》하는 조급스러운 개인적욕망에다 《선군시대의 작가적사명을 다하여야 하지 않는가!》하는 공민적인 자각이 겹쳐진 창작적흥분속에서 저는 새해 2004년을 맞이하고있습니다.

2004년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40돛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저는 당원으로, 작가로, 《**김일성**상》계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저의 가슴은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대의 걸작품을 써보려는 한마음으로 불타고있습니다.

때마침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라남의 봉화》를 쓰고있던터여서 저는 2004년의 기념작품으로 어떻게 하나 그 작품을 꼭 세상에 내놓을 결심을 품고있습니다.

라남의 봉화는 우리 인민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령도의 령마루에 지펴올리신 21세기의 화불입니다. 따라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할 장편소설 《라남의 봉화》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뿐아니라 먼 후대들에게까지 길이 전해질 말그대로 불멸의 작품으로 형성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의 둔한 붓으로 그 위대한 불멸의 향도사를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겠는가?

털어놓고 말하면 저는 이러한 걱정과 불안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선군시대의 전형인 《라남의 봉화》의 주인공들처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간직하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못해낼것도 없다는 신심이 생겨 감히 높은 목표를 걸고 부지런히 붓을 달리고있습니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의 새 정치방식을 창조하시여 자주의 앞길을 빛나게 밝혀주고계시는 아버지장군님!

40년의 빛나는 령도사로 우리 나라를 정치의 강국,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모두의 운명을 맡아서 보살펴주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것이 바로 선군시대 작가들의 기본사명이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뜻깊은 이 새해에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풍모와 빛나는 업적을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총서작품을 비롯한 혁명적인 글들을 많이 써서 선군시대 작가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집니다.

《**김일성**상》계관인 백보홍

진격의 나팔소리와 같은 시를 쓰겠습니다

선군혁명의 기치따라 시인들은 종군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인들은 종군의 붓을 들고 1211고지와 351고지, 까치봉, 선조암초소 등에 나가 불과 불이 부딪칠듯 한 최전연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전투현장에서 시를 써서 고지우에서 전선시랑송모임을 진행하며 혁명적인 창작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들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인들의 최전연에서의 활동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병사들과 초소생활을 같이 해보면서 현실체험을 깊이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 달받은 즉시 다시 최전연으로 달려나가 병사들과 초소생활을 같이하면서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속에서 현실체험을 깊이하며 선군의 기상이 나래치는 시와 가사들을 써나갔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시인들이 언제나 시대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현실속에서 훌륭한 좋은 시를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선군시대의 한복판-최전연은 혁명적시문학창작의 원천지이며 생명선입니다.

나는 적진을 노려보며 총창을 쫓고 결사전의 순간 순간을 격동상태에서 살고있는 최전연병사들과 초소생활을 같이 하면서 수령결사옹위의 육탄전사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으며 현실체험이야말로 창작의 기본열쇠라는것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나는 장엄한 새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온 한해 최전연과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현장에서 살며 참으로 진격의 나팔소리와 같은 시를 쓰겠습니다.

나는 주체40(1951)년 1월 신천지구로 재진격하면서 시 《정양소앞을 지나며》를 써서 작가동맹에 야전우편으로 보낸적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날의 그 정신으로 최전연을 찾고 또 찾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종군시인으로 불같이 살며 혁명적인 시를 쓰고 또 쓰겠습니다.

시인 백하

첫걸음부터

위대한 변혁의 돌기를 새기며 강성대국을 건설해가는 가슴벅찬 또 한해가 시작됩니다.

이 한해의 첫 시작부터 첫 걸음부터 크나크게, 열렬하고 뜨겁게 시작하고싶은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올해는 봄의 풍경도 류다를듯 싶고 세월도 례년에 없던 환희를 터지도록 안을듯 싶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선포 30돐!

심장은 피를 끓이며 명작창작으로 힘있게 추동합니다.

천만대중을 기적과 창조예로 부르는 첫 걸음,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든 선군대오의 나팔수로서의 첫 걸음을 저는 명작창작으로 뻗겠습니다. 욕망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것이 명작입니다. 뚜렷한 목표와 결실있는 현실체험, 피타는 탐구와 사색의 결실이 바로 명작인것입니다.

실력전의 봉화는 이미 올랐습니다.

이 거창한 실력전의 마당에서 명작창작의 빈 구호나 웨치는 작가, 대오의 맨 마지막자리수나 채우는 작가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가 되기 위하여 저는 새해 첫 걸음부터 목표를 높

이 세우고 꾸준한 현실체험과 부단한 탐구와 사색을 해나가겠습니다.

목표도 명백하고 가야 할 길도 뚜렷합니다. 똑같은 세월의 돌기에 판에 밝은 작품이 아니라 싱싱하고 향기넘치는 선군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 당의 작가로서의 삶의 좌표를 새기렵니다.

더우기 올해는 아버지수령님서거 10돐이 되는 해입니다.

아버지수령님의 령전앞에 다진 맹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과 선군시대앞에 너나없이 해놓은 일, 떳떳한 삶의 자욱을 안고 살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원한 선군혁명동지, 영원한 동행자로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명작,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 건설으로 힘있게 떠미는 산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을 창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초소와 공장과 농촌에 첫 걸음을 새기는 작가, 배낭을 둘러메고 들끓는 현실에 제일 먼저 몸을 잠그는 작가, 끊임없는 창작적열정으로 낮과 밤을 모르는 작가로 살겠습니다.

한편의 시를 써도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

니》와 같은 수준의 시작품을 창작하는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직무와 의무로 시작되는 첫 걸음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혜에 감사와 의리와 충성의 마음으로

영원한 보답의 걸음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떤겠다는 것이 새해 첫 벽두에 다지는 저의 심장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시인 김 영 력

현실주제작품창작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의들을 다지곤 합니다.

이해에는 무엇을 할것인가?

나 역시 새해를 맞고보니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생각도 많아집니다.

지난해에는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하는 장편 소설창작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 올해엔 선군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현실물주제작품창작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신지 30돛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우선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단편소설을 사상예술적수준이 높게 창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전부터 써오던 무산광산청년광부들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을 완성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나로서는 아름찬 과제이지만 진지하게 달라붙어 기어이 끝을 볼 작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선군시대 작가로서,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으로서 뜻깊은 이 한해를 보람차게 장식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소설가 리 희 남

필봉에 더욱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새해, 해야 할 일에 가슴이 뻘뻘해지는 새해의 첫 아침에 조용히 뇌여봅니다.

《내 조국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자!》

평범한 말이지만 언제나 심장을 울려주는 말입니다.

이해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40돛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위대한 맹세를 룡남산에 새기신 그날부터 우리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력사의 40여성상은 오로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실 숭고한 의지로 온갖 험로역경을 헤쳐오신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날과 달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안으시고 선군의 머나먼 눈보라길을 걸고계시는 우리 장군님!

장군님처럼 우리의 조선을 사랑하자!

이것이 오늘 룡남산에 심장을 잇대고 사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활의 신조이며 삶의 지향입니다.

기교자체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우리모두의 심장에서 뜨겁게 교동

칠 때 우리가 창조하는 성격은 그야말로 억세고 아름다운 인간, 평범한 인간마저도 영웅으로 새롭게 일떠세우는 오늘의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될것입니다.

새해 우리의 분단에 태어나는 성격들이 그 어디에 있든 내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인간, 그 열정으로하여 새롭게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성격이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창조에 미숙하나마 저의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바치려 합니다.

저는 작가후비들을 육성하는 문학대학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내 조국의 분단을 떠낼 억센 기둥으로 키우는데 불타는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들의 사색의 갈피갈피, 생활의 순간순간마다에 자기의 인생과 조국을 하나로 련결시키는 법, 참답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법을 깨우쳐주겠습니다. 하여 그들이 쓰는 한편한편의 글들에 시련속에서 더욱 아름답다와진 인간, 투쟁속에서 더욱 강해진 조국이 비끼게 하겠습니다.

뜻깊은 이해, 우리의 심장마다에서 불타는 사랑과 우리의 투쟁으로 더욱 아름답고 후더워질 내 조국의 새해를 축하하며...

문학대학 교원 최 련

설날아침에

리 정 욱

새해가 왔다. 희망으로 가슴부푸는 새해...

엣그제 내려 소복이 쌓인 눈으로 하여 더욱 환해
진듯 싶은 설날의 거리...

거리도 사람도 새해를 맞는 기쁨에 한껏 들떠있
다. 축등이 높직이 걸린 가로등밑을 수집게 말을 주
고받으며 다정히 걷는 처녀총각이 있는가 하면 어
느새 부모들의 손을 뿌리치고 저멀리 앞서달리며
눈덩이를 만들어 던질내기를 하는 아이들도 보인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웃음, 웃
음꽃이 피어있다...

이날아침,

나도 역시 이 풍경속의 한사람이 되어 거리를 걷
고 있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55돐을 맞으며 새로
게 일신된 영광거리는 그 이채로움과 특색있는 봉
사망들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섯살난 딸에는 부모들과 함께 걷는것이 그리도
좋은지 아까부터 그냥 뽀박질을 한다. 등뒤에서는
지방에서 온듯 한 두 늙은이의 싱갱이질이 끊길줄
모른다.

《언제 이런 거리가 일떠섰는고?》

《령감, 일떠선게 아니라 새롭게 꾸렸다고 둘째가
편지에 쓰지 않았습데까?》

《아니 분명 새 거리야. 새것하구 꾸린것하구 어
디 같은가?》

《고집두 참, 좀 자세히 보시우. 망신하지 말고
...》

《암만 봐두 새 거리야...》

보매 평양역을 방금 나선듯 싶은 두 늙은이는 연
방 사방을 둘러보며 제가 옳다고 우겨댔다. 이것 또
한 설날아침의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 아닐수
없다.

《주체성》, 《민족성》이라는 글발을 머리에 이
고 우뚝 솟은 고층살림집이며 은근하고 품위있는
타일을 몸에 두르고 오고가는 손님들을 반겨맞는
여러 봉사망들...

나의 가슴은 왜 이리도 부푸는것인가 거리도 그
거리, 사람들도 모두 평범한 그 사람들이건만...

단순히 아름답게 장식한 거리와 활기로운 사람들
의 모습때문일가?

나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거리를 둘러보았다.
이 아침의 시원한 공기가 쿡- 폐부를 찌른다.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지난해는 어떤 해였던가. 새해정초부터 미제와
맞선 준엄한 해가 아니었던가. 오만해질대로 오만

해진 미제는 우리 공화국과 맺은 모든 공약들과 약
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우리를 고립압살하는
길로 나아갔다.

우리는 전 세계에 대고 대답했다. 우리는 핵무기
전과 방지조약에서 완전탈퇴하며 미제와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것이라는것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았다. 어떻게 될것인가.

그야말로 총포성이 없는 전쟁을 치르었다.

고기덩이를 본 승냥이마냥 이라크전쟁에서 《승
리》하여 더욱 기고만장해진 미제는 여전히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한 로골적인 전
쟁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바로 그런속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거리가
일떠서지 않았던가.

정말 꿈만 같다.

평범한 날의 창조물과 준엄한 날의 창조물은 같
은 값으로 재일수 없다. 이 어렵고도 힘겨운 날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최전연의
높고낮은 산발들을 오르내리시며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가림없이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행
복의 거리여서 이 거리를 걷는 우리의 마음 이토록
뜨겁고 눈물겨운것이 아니겠는가.

문득 떠오르는 수령님에 대한 생각, 수령님께서
생전에 이토록 훌륭히 변모된 이 거리를 보셨더라
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것인가. 아마도 인민을 위해
또 하나 큰 일을 해놓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태
양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래도록 이 거리를
거니시였으리.

올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우리 결
을 떠나가신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하기에 설날아
침 행복의 거리를 걷는 우리의 마음 수령님께로 사
무치게 달려가는것 아닌가 이것은 나 하나만이 아
닌 이 거리를 지나 만수대언덕을 찾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생각이리라.

수령님을 생각할 때면 장군님을 생각하게 되고
장군님을 그리워할 때면 수령님을 추억하게 되는것
이 이 땅에 사는 천만인민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
거늘.

소복이 쌓인 헛숨같이 포근한 눈송이들을 바라보
는 나의 생각 더욱 깊어만 간다.

흔히 말하기를 평범한것에 위대한것이 깃들어있
고 위대한것에 평범한것이 깃들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는다. 가

장 준엄하고 엄혹한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인민 모두를 향하여 펼쳐진 자애로운 품을 본다. 우리 인민의 존엄과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생활과 휘황찬미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이 따사롭고 뜨거운 태양의 품을 본다.

어네션가 까르르-웃음이 터졌다. 여러문명의 조무래기들이 눈사람을 만들어놓고 눈이며 코며 입을 만들고있었다. 빙 둘러선 애들이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성화를 먹이고있다. 우습강스럽게 코며 입이 그려질 때마다 웃음이 터진다.

명절을 장식한 기발이며 꽃테프들이 그 웃음에 받들려 한들한들 춤추는듯 싶다.

오늘에도 래일에도 이 땅에는 이런 생활이 흘러갈것이다.

미제가 제아무리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기승을 부려도 전쟁의 불구름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위협해도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이 땅에는 웃음꽃이 차고넘치고 행복으로 충만된 생활이

줄기차게 흐르는것 아니라.

오늘의 정세는 의연히 준엄하고 엄혹하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선군정치에 있어 오늘에도 래일에도 우리 생활은 더 아름답고 굳건하고 휘황찬란하리라는것을.

불어오는 바람결에 가로수가지마다에 소복이 쌓였던 눈가루들이 꽃보라마냥 흩날린다. 희망찬 새해를 축복하며 하늘가에 흩날리는 눈보라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축복의 첫눈우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며 걸음을 내짚었다.

노래가 울린다.

푸른 꿈 키워준 그 손길 없다면
내 마음 날개없는 새와 같으리
장군님 안겨준 따사론 사랑이
나의 희망 꽃피웠네
아 축복받은 나의 삶이여
나의 삶이여

내 너처럼

곽 명 철

졸업을 하고
이 교문을 나설적엔
너와 나 다름없었건만

광철아!
모교로 돌아오는 걸음만은
너와 나 하나같이 앓구나

모교가 앞가슴에 달아준
그날의 환송의 꽃송이
오늘은 금별의 메달로 빛내여
대둘에 척 새겨놓고
교정에 군복차림 그대로
보란듯이 의젓하게 서있는
김광철, 나의 동무야

너에게라고 위훈의 기회가
특별히 따로 차례졌으랴
언제나 장군님의 전사임을 자각하고
동지를 위해서는
자기의 뼈와 살도 서슴없더니
마지막 한순간마저
동지를 위해 웃으며 바쳤구나

네 비록 걸어서 모교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장군님 태워주신

위훈의 꽃수레를 타고 돌아왔으니
자랑이면 이런 자랑
영광이면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으랴

이름없는 학교의
출석부에만 오르던
어제날의 평범했던 너의 이름
오늘은 우리의 장군님
나라의 크나큰 위훈의 폐지우에
금별로 새겨주셨으니

내 어제날 너의 동창생이었다고
감히 부르기조차 서슴어지누나
네가 선 위훈의 그 언덕이
너무나도 아득히 높아만 보여

허나 광철아
내 어제날 너의 동창생이었듯
내 래일에도 어엿한 너의 길동무가 되련다
나도 **김정일**장군님을 위해
이 한목숨 아낌없이 다 바치리라
아 이 땅의 모든 삶이 부러웁게
사랑하는 모교와 함께 있는 너처럼
내 모교로 돌아오는
참된 걸음새를 갖추리라

샘은 깊은 곳에서 솟는다

리 라 순

1

변정관의 무거운 눈길은 정문앞에 세운 커다란 전망도에서 오래도록 움직일 줄 몰랐다.

《천주산사이다공장 개진확장도》... 흰 구름이 떠도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두드러지는 생산직장건물과 그옆의 부속건물들, 종업원식당이며 탁아소,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꽃밭과 덩굴 나무울타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채색된 전망도는 지금 현실속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공장과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연 끝을 보게 될가?...)

벌써 몇번째나 자신의 마음속에 던져보는 물음이었다.

어느한 공장의 당위원회에서 사업하던 변정관이 여기 사이다공장의 당비서로 부임되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을 겪다나니 사이다공장은 생산이 멎어있는 상태였다. 세심한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듯한 낡은 건물들이며 못쓰게 된 기계설비들, 절반이상으로 줄어든 종업원들과 부족되는 기술력량... 더우기 난감한것은 그나마 공장을 이끌고 나가던 지배인과 오랜 기사장이 거의 같은 시기에 년로보장을 받고 집으로 들어간것이였다. 변정관보다 한발 먼저 젊은 구지운이 새 지배인으로 와 있었지만 그도 사이다공장의 경영활동에 대하여서는 거의 경험이 없었다. 공장의 실태는 그래도 설마하던 변정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그의 부임후 처음으로 열린 공장참모회의 공기는 매우 침울했다.

《우리 맨 주먹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는게 아닐가요?》

공장을 원상복구하여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의제로 시작된 회의에서 구지운지배인이 던진 첫말이였다. 그때 수첩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고있던 설계기사 최명옥이 반발하듯 머리를 들었다.

《전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보는데요.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크고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느스름한 눈매에 맺고 끓듯 포박포박 그루박은 최명옥의 목소리는 중년녀인같이 않게 흥분되어있었다. 변정관은 새삼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아마 정열적인 이 녀인의 성격으로서는 음달아래 박꽃처럼 해말쭉한데다가 목소리마저 가냘픈 지배인의 의견

이 아주 못마땅한듯 했다. 그러나 구지운은 여전히 머리도 들지 않은채 중얼거렸다.

《나도 하자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재, 설비, 로력... 구체적인 타산이 서야 계획을 세우고 내밀게 아납니까? 난 주먹구구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 불며 음료라는거야 까다롭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건데...》

변정관은 구지운의 주장이 리해되였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장수의 목적으로부터 써오던 음료는 그 유용성으로 하여 오늘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중식품으로 되였다. 그 가지수만 하여도 수백가지가 넘는 음료는 같은 조성이라 하지만 그 배합비율과 배합방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본래와는 전혀 다른 음료가 되거나 자기 고유의 독특한 맛을 잃게 되는것이다.

사이다 역시 이런 엄격한 요구와 기술공정을 지켜야 하는 음료들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변정관은 그 어려움보다도 공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두 사람의 립장이 하자는대로 모아진것이 무엇보다 기뻐했다.

변정관은 이곳 사이다공장 당비서로 임명받던 날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날씨가 무더워지니 인민들에게 사이다를 공급하지 못해서 맹물을 마시게 하고있다고 가슴아파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이다야 공급해주지 못하겠는가,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준절하게 지적하시였소. 우린 그래서 동무를 그곳으로 보내는거요.》

변정관은 목이 메였다.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어떻게 하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오직 하나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웠을뿐 청량음료가 없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인민들 자신조차 큰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음료문제에까지 이토록 마음쓰시고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 아닌가.

그때 변정관은 자기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빼근하게 느끼며 기어이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리라 굳게 결심하였었다....

마지막으로 변정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전 우선 동무들부터 믿고싶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확장공사는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이다공장을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는 공장으로, 제일 선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수 있는 그러한 공장으로 꾸려놓아야 합니다.》

변정관의 단호하고 드립없는 목소리에 구지운과 최명옥의 뜨거운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이날 참모회의에서는 지배인이 자기 사업과 함께 공사를 위한 자재보장을 책임지고 최명옥은 기계설비들을 복구완비하는 기사장대리사업을 맡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비서동지!》

등뒤에서 날아온 당돌한 목소리가 변정관의 사색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니 공장청년동맹비서 장현란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가름한 닭알형의 얼굴에 별빛같은 눈을 가진 처녀는 어찌선지 입술을 꼭 깨물고있었다. 무슨 불쾌한 일을 당하여 성난듯 한 인상이 었다.

《?!...》

《정말 속상해죽겠습니다. 우리 청년돌격대가 뭐애들 놀음입니까? 나오고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잘라먹고...》

변정관은 인차 운동선수같이 미끈한 체격에 얼굴이 검실검실한 한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그 <미남자> 요?》

《비서동진 절더러 그를 책임지고 교양하라지만... 전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이젠 그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정관은 저으기 놀랐다. 그가 알기에는 청년동맹비서 장현란과 《미남자》로 통하는 주병갑이 서로 가깝다는것은 온 공장이 다 아는 비밀이었다. 눈이 꽤 높을것 같은 현란이 병갑을 마음에 둔데는 전 기사장 김제환아바이의 각별한 관심속에 음모기술을 배운다면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을뿐 아니라 여가시간에도 늘 기술서적을 들여다보며 탐구에 몰두하곤 했던 정열적인 그 청년의 지향을 높이 보았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언어불통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물론 변정관도 병갑이가 이전과는 달리 책도 쥐여버리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말밥에 오르고 있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처녀가 속상해하는것도 알고있었다.

무엇이 생활에 대한 그 청년의 지향과 열정을 흐려놓았는가. 또 무엇이 그로록 열렬하고 뜨겁던 현란으로 하여금 오늘에 와서 그 청년을 멀리하게 만들었는지?... 변정관은 엉켜돌아가는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짓고는 사람좋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보라구, 청년동맹비서로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한 처녀로서는 통할수 있지 않을까?... 난 그래

졌으면 하요.》

눈을 내리깔고있던 현란이 머리를 들었다.

《전... 너는 그 동무와 마주설 생각이 없습시다.》

남달리 긴 속눈썹으로 하여 진하게 그들이 진 그의 두눈에는 무엇인가 억제하는듯 한 피로운 빛이 숨겨져있었다.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보일세라 다시 눈을 내리깐 처녀는 간다는 소리도 없이 오던길로 황황히 되돌아갔다. 그 어떤 알수 없는 목직한것이 변정관의 가슴을 짓눌렀다. 순조롭지 못한 공사전망우에 또 다른것이 덮쳐워지는듯 한 불안한 예감때문이었다. 이것이 혹시 그들 둘사이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전망도앞에서 물러난 변정관은 공무반의 장아바이를 찾아갔다. 그를 만나 답답한 속을 터놓으면 한결 마음이 개운해질것 같아서였다.

현란의 아버지인 장아바이는 30여년간 이 공장과 함께 살아온 오랜 공로자로서 변정관이 부임해온 첫 날부터 말없이 뒤에서 떠밀어주고 고무해주고있는 구역대의원이었다. 변정관은 어려울 때마다 사심없이 마주앉곤 하는 이 로장을 마음속으로 무척 존경하고있었다.

아바이는 공무반이 아니라 불이 꺼진지 오랜 어둑검검한 보이라실에서 깨진 동판들과 쇠조박들을 손달구지에 싣고있었다.

《로보수에 쓸것들입니다.》

비서를 띄여본 장아바이는 짧게 한마디하고는 하던 일을 그냥 계속했다. 변정관도 말없이 그의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마침내 손달구지가 다 차자 아바이는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덩구는 벽돌장우에 얹으며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는 부시럭거리며 담배를 꺼내 피워물었다.

《좁전에 명옥기사가 왔됐네. 낡은 설비들을 개조하는 문제를 두고 무던히 속을 태우더군. 두 아이를 가진 너인의 몸으로 고생을 하지. 험치 않은 일이지요.》

변정관도 알고있었다. 공장을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개건확장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수십가지의 새로운 설계업무와 그 제작을 위한 기술지도까지 다 맡아안고 집에도 퇴근하지 못하고있는 명옥기사였다.

《아바이,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제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은게 아닐가요? 돌격대에서도 일이 시원치 않습니다.》

변정관은 내친김에 병갑이와 현란의 일도 털어놓으려고 했으나 잠자코 말았다. 괜한 일로 아버지인 그의 마음에 그늘을 던지고싶지 않았다.

잠자코 듣고있던 장아바이가 마침내 변정관의 무릎을 무릅없이 툭 치며 입을 열었다.

《내 듣건대 비서가 여기 오기전엔 손탁이 드세기로 소문났다는데... 그게 완력 하나로 된것이겠나.

믿지 못할 말은 때려몰지도 못한다네. 물론 애군들도 몇이 있지요. 그러나 굶단 잘 잡아주면 무서운 줄 모르고 곧추 내달릴거네. 문제는 이 공장에 대한 파악이 있고 경험있는 기술자가 우리에게 적은 거네. 그게 제일 걸린거지요. 옛날부터 힘장수가 피장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겠소.》

《그럼 이전 기사장 김제환아이를?!》

《바로 맞혔네. 고생하는 명옥기사를 위해서도 그가 꼭 필요할것 같네.》

변정관은 장아바이와 헤어져 돌격대작업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하루사업총화를 하면서도 장아바이의 그 말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알아본데 의하면 김제환은 오래동안 이 공장에서 기사상으로 일해온 공로많은 기술일군이였다. 그는 기계공학에도 조예가 깊을뿐아니라 다년간의 경험으로부터 화학과 식료공학의 정교한 결합체라고 하는 음료기술에 남달리 정통한 인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그가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면서 국가의 투자가 보장되지 않자 점차 판록있는 기술일군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뒤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한데 그나마 계획을 메꾸려고 생산하던 교 당사이라는 오히려 구매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겨우 유지되던 그의 체면마저 바닥에 떨어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낡고 무능한 일군으로 낙인되어 사임권고까지 받게 되었던것이다.

변정관은 창밖에서 와!- 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환성에 고개를 돌렸다. 청년돌격대원들이 일하는 야간작업장이 환히 밝았다. 전기가 온 모양이였다. 전기사정이 긴장하여 하루에도 여러번씩 정전되곤 하였던것이다. 삽질소리. 웃음소리, 웅웅 돌아가는 혼합기소리가 숨죽였던 공장구내에 그 어떤 활력과 생기를 부여주는것 같았다.

변정관은 급히 사무실의 등잔불을 불어끄고 전기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방안이 눈부시게 환했다. 변정관의 가슴속에 서리서리 엉키던 어둠도 금시 물러가는것 같았다.

2

세멘트공장에 간 지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비서 동무, 실었습니다.》

변정관은 밀도끝도 없는 그의 《실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공장개건확장공사에서 가장 절실한것이 세멘트였다. 국가계획에 물려있어도 몇달씩 애를 먹이는 세멘트를 녀자같이 꼽살하고 유약해보이는 지배인이 단 한주일만에 해결했다는 소식인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터지고 부르튼 입술을 추기며 눈물이 글썽하여 《실었습니다.》 하던 지배인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수고했습니다. 지배인동무, 여기 우리 돌격대 처녀들도 오늘 새벽까지 생산직장건물축조를 완전히 끝냈다고. 허허... 어서 돌아와주시오.》

몇마디 더 주고받고 전화를 놓은 변정관은 큰 시름을 던듯 싶어 걸상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던 공사가 아직도 이런저런 애로는 남아있지만 일정대로 자기 궤도를 따라 멈춤없이 힘껏 굴러가고있는것이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돌격대 단발머리처녀들은 아찔한 발판에 올라서서 망치로 벽을 쫓고 무거운 블로크를 들어올리는 힘겨운 작업을 용케 감당해나가고있다. 여기에 가정부인들이 자기 살림을 세대주들에게 맡기고 밤낮으로 합세해나섰다.

이제는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던 세멘트도 해결되였다. 설계실의 일도 뜻대로 추진되고있다. 그러나 변정관은 불현듯 걸상에서 등을 뻗다. 아침에 만났던 최명옥기사의 어린 딸애가 생각났던것이다. 아버지가 싸준 어머니의 아침밥을 들고 온 그 애는 변정관에게 안겨 울먹이며 물었었다.

《비서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엄마는 나보다 설계를 더 고와한대요. 정말이나요?》

그때 변정관은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던지 생각나지 않았다. 분명한것은 그 어린것의 눈물을 웃음으로 만들만 한 대답을 못했다는것이다.

(그래, 걸린 문제가 다 풀린것은 아니다.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사실 장아바이를 만났던 그날 그는 김제환을 찾아갔었다. 현대 김제환은 집에 없었다. 대동강에 밤낚시질나갔다는것이다. 안주인은 변정관이 사이다 공장에 새로 온 당비서라는것을 알게 되자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로 해서 속썩이고있는 자기의 서글픈 심정을 터놓았다.

《난 여태 령감이 없는 집에서 밤을 새우는데 슬관 됐어요. 그래도 공장일에 정신없이 돌아갈 땐 기다리는게 기뻐지요. 하지만 요즘은 곁에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게, 어휴...》

녀인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눈굽을 찍었다.

변정관은 밤새껏 기다려봐야 그를 만날수 없다는것을 알고 쪽지편지를 남겨놓았다.

《공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오랜 로동계급 출신의 김제환동지가 저희들을 도와주리라 믿고 도움을 청합니다. 공장에 다시 나와주십시오. 당비서 변정관.》

하루, 이틀... 그는 오지 않았다. 갖가지 억측이 그를 괴롭혔다. 혹시 그 녀인이 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뜻밖의 일로 그의 공장걸음이 지체되는것은 아닌지... 그러나 나홀썬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자 변정관은 참지 못하고 다시 그를 찾아갔다.

대낮이였다. 변정관이 그 시각을 택한것은 김제

환의 낚시질시간과 맞물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출입문에는 아이들의 놀음장기도 한 이상한 표적이 붙어있었다.

《문을 두드리지 말것, 주인없음!》

한동안 표적을 들여다보던 변정관의 눈길은 서서히 굳어졌다. 매글줄마다에서는 완고하고 행정한 집주인의 얼굴이 보였던것이다.

김제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이다공장에 대해 뚜렷한 반감을 표시했던것이다. 변정관은 어쩔수없이 그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돌아오고 말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 변정관은 자제력을 잃었던 그 때의 자신을 후회하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물려서서는 안된다. 끝장을 볼 때까지!)

변정관이 김제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무렵이었다. 마침 김제환은 낚시대와 들고 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제 변정관입니다.》

순간 고집스럽게 다물려진 김제환의 입귀에 깊은 주름살이 패였다. 환갑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허리가 꼳꼳하고 위엄스러운 틀진 체구, 상대를 제압하는듯 한 쌀쌀하고 거만한 눈빛...

변정관은 이런 류의 사람은 한두마디의 말에 쉽게 설복되지 않을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을 느꼈다.

《난 이미 공장에서 나온 사람ियो.》

예상대로 그의 첫마디는 거칠었다. 그가 몸을 돌려 방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변정관도 주저없이 따라 들어갔다. 마주앉은 두사람의 어성버성한 분위기를 늑장쳐주려는듯 안주인이 얼른 더운 차잔을 들고 올라왔다.

《구기자차라우. 령감이 제손으로 만든건데 하고부 마셔보시우.》

발그레한 감빛이 도는 구기자차는 집에서 만들었다고 믿을수 없으리만치 잘 정제되고 맛도 각별히 향기로왔다. 역시 로련한 음료기술자의 솜씨가 달랐다. 이런 음료기술자와 함께 일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욕심이 새삼스레 치밀어올랐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는 아바이도 아실겁니다. 하루빨리 개건공사를 끝내고 생산을 시작해야했는데 당장 기계속에 빠고 음료기술에도 유능한 기술자가 부족해서 애를 먹고있습니다. 공장이 자체기술력량으로 생산을 정상화할 때까지 아바이가 나와서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김제환은 차간만 기울일뿐 아무 반응도 없었다. 자기는 이제 공장일에 아무 관계도 없다는 무언의 속대사였다. 변정관은 초조한 기분을 누르며 참을성있게 덧붙였다.

《은 공장이 아바이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순간 김제환의 댕땀한 눈에 불꽃같은것이 튀겨나왔다. 그는 불편을 눈에 띄게 푸들거리며 벌컥 역증을 내었다.

《나를 기다린다?! 무능하다고 서둘러 들여보낼 땀 언젠데? 난 사이다공장소리만 들어도 신물이 나는 사람ियो.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변정관은 아연하여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김제환이 생산중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데 대하여 제 나름의 울분은 가지고있을테지만 이렇게까지 모질게 나올줄은 상상밖이었다. 저 사람이 과연 거의 한생을 사이다공장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이전의 그 기사가장이 웅단 말인가?

변정관은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그는 자신이 분별을 잃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참을수 없었다.

《중습니다. 아바이립장이 그렇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오. 인민들에게 사이다를 공급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도 당신이 마음 편히 살려 한다면 은 공장사람들이 아니, 스스로의 량심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변정관은 더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집을 나섰다. 등뒤에서 안주인이 뭐라고 찾는 소리도 그는 듣지 못하였다.

이른 봄밤의 싸늘한 령기가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 부딪쳤다. 순간 그는 열어붙은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느닷없이 공장청년동맹비서 현란의 목소리가 고막을 울린것이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번에 정신이 드는것 같았다. 자기 역시 김제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은셈이었다. 무엇때문에?... 마음의 교감이 없이는 심장의 문을 열지 못하는 법이다.

변정관은 자기가 이대로는 돌아설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다시 그의 집문을 두드리기는 주저되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저절로 손목시계에 눈길이 갔다. 지금쯤 집에는 사위될 사람이 부모들과 함께 와있을것이다. 오늘 저녁이 바로 의대를 졸업하고 진료소에서 의사로 있는 만땅의 약혼식날이었던것이다. 안타깝게 창박을 내다보고있을 딸과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안해는 여러날째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변정관에게 오늘날은 꼭 집에 들어와달라고 전화를 걸어왔던것이다.

(이제 돌아서도 되겠는데... 그럼 김제환은?...)

변정관의 머리속에는 안타깝게 뛰어다니고있는 최명옥기사와 음료기술자인 김제환의 고집센 얼굴이 엇갈렸다.

그때였다. 살림집현관으로 허우대 큰 김제환이 나오더니 술취한듯한 걸음으로 어디론가 비척비척 걸어갔다. 여겨보니 낚시대도 없는 빈몸이었다.

어느사이 그의 그림자는 수림을 이루고있는 천주산기슭에서 얼른거렸다. 크지도 않은 밋밋한 천주

산은 사이다공장과 너무나도 인연이 깊은 산이었다. 변정관의 가슴은 그 어떤 류다른 예감으로 두근거렸다. 저도 모르게 그는 김제환의 뒤를 따르는 자기를 의식했다.

김제환은 사이다공장의 젓줄기라고 할수 있는 천주산골짜기의 작은 샘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네모반듯하게 미장을 하고 바닥에는 정갈한 조약돌을 깐 샘에서는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는 맑은 물이 쉬임없이 솟구치고있었다. 변정관은 왜서인지 눈굽이 뜨거워왔다. 김제환이 여기를 찾은 이유가 충분히 감득되었던것이다.

《김제환아바이!》

변정관의 속삭임에 고개를 푹 떨구고있던 김제환이 놀란듯 머리를 들었다.

《아니, 비서동무가?!》

《제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김제환은 자리를 약간 비켜앉는것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후- 무거운 한숨을 내뿜었다. 마음속 변민과 피로움이 다 담겨져있는듯한 한숨이었다.

《이 샘터에 자주 오시겠지요?》

변정관의 은근한 물음에 김제환은 다시한번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요. 마음이 기쁜 때거나 또 쓸쓸할 때마다... 헌데 오늘밤은 별스레 더...》

변정관은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김제환은 역시 이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천주산샘을 마셔온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참 이 샘에 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다면데 그 이야기나 좀 들려주십시오.》

변정관의 스스럼없는 청에 김제환은 어쭙게 웃어 보였다.

《그야 당비서도 다 알고있을텐데.》

《그래도 아바이야 한생을 이 샘과 같이 살아오셨으니 아예 몸에 뱉을게 아닙니까. 공장에 새로 입직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그 사연을 들려주곤 했다던데요.》

《허허... 해주곤 했지요.》

김제환은 물끄러미 별빛이 어린 샘을 굽어 보았다. 그다음 조심히 두손으로 샘물을 떠마시고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 옛날부터 맑고 시원한 천주산의 이 샘은 약효가 특이하여 들것에 돌려왔던 병자도 한두번만 마시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발로 일어나갔고 자식없던 녀인들도 이 샘을 마시고는 귀한 옥동자를 낳곤 했다고 한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력대 평양성의 감사들은 이 약샘을 관가의 소유로 하고 높은 값으로 팔아 폭리를 얻곤 했다. 결국 돈있는 양반부자들은 마음껏 그 샘물을 마실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엄두도 낼수 없었다. 그런데 이 땅을 빼앗은 왜놈들은 아예 샘두리에 철조망까지 둘러치고 조선사람이라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어느해인가 한 녀인이 열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려고 밤에 몰래 철조망을 넘어간 일이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왜놈들은 《조선정이나 황국신민들이 마시는 약샘을 감히 더럽혀?!》라고 고아대며 사냥개를 풀어놓고 달려들었다. 녀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여보게 비서. 그 녀인이 누군줄 아나? 바로 현란이의 할머니일세. 장아바이의 친어머니이지.》

《그랬군요...》

변정관은 쓰라린 사연을 들은 아픔속에서도 대를 두고 이 사이다공장을 지키고 받들어나가는 장아바이네 부녀의 진정이 뜨겁게 가슴에 미쳐왔다. 조국이 해방된후 이곳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장아바이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피맺힌 사연을 들으시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라고, 이곳에 사이다공장을 세워 우리 인민모두가 이 약샘을 마음껏 마시면서 무병장수하도록 하자고 절절하게 가르치시였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이 사이다공장의 첫 기초를 박은 사람들중에는 장아바이뿐만아니라 김제환도 있었다.

《비서동무, 이 늙은게 해임이나 됐다고 엇드레질한건 아니요. 나때문에 그 귀한 사이다공장이 멈춰서고 수령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실 그래서... 이제 쓸모없이 되어버린 자기자신에게 화를 냈던거요. 자기자신에게!》

축축히 젖어든 김제환의 두눈은 별빛에 번들거렸다. 자신에 대한 자책과 뼈아픈 회오의 눈물이었다. 그러면서도 김제환은 석연치 않은 의혹을 톡 털어놓았다.

《헌데 빈주먹뿐인 공장실정에서 무슨 수로, 무얼가지고 원상복구도 아닌 개건현대화를 하겠다는거요?》

변정관은 그의 의혹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낡은 기계설비들과 식량난에 부딪쳐 떠나가버린 적지 않은 기능공들 거기에다 지금 당장은 국가투자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실태를 너무도 잘 알기에 김제환은 공사전망을 쉽게 믿을수 없어하는것이다.

《아바이.》

변정관은 김제환의 손을 더듬어 꼭 잡았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공장사람들을 믿습니다. 사이다라는 음료가 샘물에서 그저 만들어지는것이겠습니까. 우리 생산자들의 깨끗한 량심의 샘에서 만들어지는것이지요.》

김제환은 변정관을 처음 대하기라도 하듯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총각애들처럼 한쪽으로 애써 빚어넘긴 총센 머리카락이며 정력과 강단이 내비치는 네모질사한 철색얼굴, 마디마디 힘이 느껴지는 결단성있는 목소리... 오랜 생활체험은 김제환에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한번 결심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완강한 기질의 일꾼이라는것을 느끼게 한것

같았다.

김제환은 여전히 자기 손을 잡고있는 변정관의 손목을 힘주어 잡았다.

《아무래도 내 당비서동무를 믿어야 할가보요!》

3

변정관은 한순간의 방심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낳을줄 몰랐다. 말썽많은 병갑이와 현란이사이애 끝내 일이 터졌던것이다.

일은 보이래개조작업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한 낮에 돌격대의 한 처녀가 허기져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작업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고 침울했다. 바로 이때 어디가서 만나절이나 출근을 안하고있던 병갑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시들하니 나타났던것이다. 현란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지금 몇시예요?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아예 판매 가고 말란 말이에요. 동무같은 건달군은 필요없어요!》

《뭘, 건달군?!》

자기를 지켜보는 술한 돌격대처녀들앞에서 수치감과 모욕을 느낀 병갑의 술진 눈섭이 사납게 치켜올라갔다.

《동무까지 그렇게 본단 말이지. 건달군이니까 이제 싫어졌다?! 좋아, 다신 동무 눈앞에 안나타나겠소!》

이 한마디를 내뱉진 병갑은 히 빙 돌아섰다.

변정관이 그 광경을 본것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실려간 처녀돌격대원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을 때였다. 보이래문짜를 걷어차며 뛰쳐나오던 병갑은 변정관과 어깨를 부딪치자 비칠거리며 주춤 멎어섰다.

《도망치자는건가?》

서늘한 변정관의 질문에 병갑은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습니다. 알아주는데 가서 일하자는겁니다.》

변정관은 궁색스러운 변명을 할줄 모르는 이 청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비겁하군. 처녀와 다투고 쫓겨간다? 건달군딱지까지 붙어가지고... 그럴듯 하오.》

《사람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험악하게 이지러진 병갑의 얼굴에는 분함과 억울함이 엇바뀌여 지나갔다. 변정관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에 나딩구는 ब्ल록장에 걸터앉았다. 허기져 실려간 처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지금 눈앞의 작업장에서는 헛병아리 같은 처녀들이 ब्ल록를 찍느라고 땀흘리며 뛰어다니고있다. 아마 손들이 부르터서 말이 아닐것이다. 현대 이 녀석은... 변정관은 현란의 일로 해서

도 속이 언짢았다. 사랑은 할수 없다하더라도 그야 청년동맹비서가 아닌가.

변정관은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해 씹씹거리는 병갑에게 무겁게 한마디 던졌다.

《사내라면 제가 망쳐놓은건 책임질줄도 알아야지.》

병갑은 도전하듯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럼 비서동진 절 붙잡아두겠다는겁니까? 어째서요?》

《이 확장공사엔 남자로력이 절실히 필요하오. 앞으로는 더할거요. 그렇다고 해서 동무를 막아나서는건 아니요. 왜냐면 천주산사이다는 샘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만들수 있기때문이요. 우리 사이다공장으로동계급이라면 그런 너절한 딱지를 달고는 그 어디에도 가려고 하지 않을거요.》

잠시 고개를 숙이었던 병갑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송합니다. 내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를 막지 마십시오!》

병갑은 말을 마치자 결쾌있게 작업장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여러권의 책을 열구리에 낀 김제환이 변정관의 곁으로 다가왔다.

《비서동무, 저 녀석을 소원대로 보내주는게 어떻소?》

변정관은 놀랍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실 저 병갑의 어머니는 우리 공장의 고급기능공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만 병을 얻어 들어가고 말았소. 그게 가슴에 걸려 대신 아들을 여기에 들여보냈지... 툭툭하드라니 내옆에 끼고 돌기 두 했지만 한번 우뚝뻐를 쓰면 아예 돌아서지 않는 성미라오. 괜히 마음쓸게 있소? 원래 약전에 미쳐 몰아가던 녀석이니 그런 부분에 가서 발전하는것도 좋지요.》

《그렇단 말이지요...》

김제환은 병갑이에 대한 논의는 다 끝났다는듯 생각에 잠겨있는 변정관에게 학습장한권을 펴놓았다.

열핏보니 《기능공양성학습과정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설비조립도 그렇고 질높은 음료를 생산하재도 종업원들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기에 좀 짜보았는데 어디 봐주시오.》

변정관은 새삼스럽게 그에 대하여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김제환은 공장에 나온 첫날부터 아무 보수없이 설비조립전반을 총괄하고있으면서 거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장의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자기의 음료기술을 아낌없이 넘겨주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아바이, 정말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강의까지 하면 그 몸이 견디겠습니까?)

《허허. 요즘엔 로친한테서까지 떠받들리우니 한창시절로 되돌아온 기분이요.》

《그래요?! 하하...》

김제환과 헤어진 변정관은 블록을 찍는 일판에 뛰어들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만 같아 일손도 흥겨웠다. 그러나 얼핏 눈에 띄운 병갑의 찌프러진 얼굴을 보자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제환은 그를 내보내고 말자고 한다. 현란은 결을 주지 않고 배척한다. 하지만 자기대신 아들을 공장에 내보낸 병갑의 어머니뜻은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운것인가!...)

그날 저녁이었다. 연합당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변정관은 거리에서 자그마한 꾸레미를 든 장아바이를 만났다.

《마침일세. 바쁘지 않으면 나하구 좀 저기 들렀다가세.》

장아바이는 더 다른 설명도 없이 앞서 스택스적 걸음을 옮겼다. 아바이의 얼굴은 그닥 밝지 못했다. 변정관은 선선히 그를 따라섰지만 갈마드는 의혹과 어리둥절한 기분을 떨어버릴수 없었다.

한동안 앞서걸던 장아바이가 불쑥 멎어서며 몸을 돌렸다.

《여보게 비서, 비서두 얼마전에 제기된 신소가 병갑이의 소행이라고 보나?》

전혀 생각지도 않던 질문이었다. 그자신도 연합당에 제기된 그 신소내용을 알고있었다. 새로 온 당비서가 공장실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방대한 공사를 벌려놓아 사람들을 고생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공장사람들이 그 신소자가 분명 건달군인 병갑이라고 점찍고있었다. 물론 변정관자신은 처음부터 그런 신소를 두고 개의치 않았다. 험치 않은 일을 벌려놓고보니 이런저런 의견들도 없지는 않았던것이 다.

미처 대답을 고르기도전에 장아바이가 뒤를 이었다.

《병갑이 그 녀석이 성격은 좀 거칠고 속에 있는 생각이라면 아무때나 통통 내쏘긴 하지만 남을걸고 드는 너절한짓은 안하네. 눈이야 바로 배긴 녀석이 지.》

무엇인가 더 말을 할듯싶던 장아바이가 불현듯 변정관의 팔굽을 치며 앞을 가리켰다.

《가만, 저게 지배인이 아니우?》

그가 가리키는 야간음식대에 눈길을 돌린 변정관은 지배인의 호리호리한 몸매를 알아보았다. 며칠전 생산용역탄을 실으러 떠났던 지배인이었다.

《지배인동무!》

변정관은 반가운김에 큰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런데 음식 몇가지를 사서 가방에 쑤셔넣던 구지운은 당비서와 눈길이 마주치자 당황하여 얼른 너인

들 사이에 몸을 감추려고 했다. 그들이 다가가서야 구지운은 얼굴이 너자처럼 빨개져서 어물어물 중얼거렸다.

《비서동무가 못볼것을 보았구만요. 사실은 집사람이 병원...》

구지운은 못할 말을 한것처럼 제김에 놀라 말끝을 삼켜버렸다.

《뭐요? 병원?!...》

변정관으로서의 처음 듣는 소리였다. 가슴이 뜨끔했다. 가장 가까운 지배인의 가정사정조차 전혀 모르고있었으니... 문득 운전사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지배인은 차에만 올라앉으면 졸군 한다네. 그리고 깨어나선 <먹을게 좀 없나?> 하는게 첫마디지.》

약한 체질에 밤낮으로 뛰어다니다나니 늘 잠이 모자랐을것이다. 거기에 안해까지 입원해있으니 언제 끼니인들 제대로 예웠으랴. 지금도 너자처럼 희고 깨끗하던 구지운의 얼굴은 윤택없이 꺼질해있었다. 변정관은 자기가 지금껏 공사진척정형은 따지고 들면서도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생활에는 너무도 무관심했다는 자책감에 지배인을 바로 볼수 없었다. 그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추처럼 매달려있던 병갑의 일이 그의 생각에 비집고 들어섰다.

(그렇다면 병갑이도 혹시 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닐가?...)

변정관을 대신하여 장아바이가 슬며시 지배인의 등을 떠밀었다.

《지배인, 어서 병원에 가보게. 그 다음 꼭 쉬라구. 실어온것은 우리가 어련히 부려놓지 않으리.》

참하게만 보이던 구지운의 표정이 정색해졌다.

《아바이, 나야 지배인이 아닙니까. 내가 하루밤 쉬면 공장건설도 하루밤 미루어질게고 그러면 사이 다생산도 그만큼 늦어질게 아닙니까. 격정마십시오. 제 인차 돌아서겠습니까.》

멀어져가는 지배인의 뒤모습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우며 그들 두사람은 오래도록 서있었다.

장아바이가 변정관을 이끌어간 곳은 뜻밖에도 시내주변의 단층마을인 병갑의 집이었다. 자리를 펴고 앉고있던 병갑의 어머니가 사이다공장 새 당비서라는 소개에 서둘러 일어났다.

《우리 병갑이가 공장일에 말썽을 일으키군 해서... 볼 낮이 없습니다.》

초약달이는 냄새가 구석구석 배인 방안은 어둡고 눅눅하였다. 어델 보나 알뜰한 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것이 한눈에 알리었다.

그런데 이런 집안살림과는 달리 창밀에 놓인 책상우에는 여러가지 희귀한 약전설비들과 전자부속품들이 한가득 쌓여있어 사람들의 눈을 끌고있었다. 호기심을 느낀 변정관이 그앞으로 다가가자 어머니

병시중을 들고있던 병갑의 어린 누이동생이 새되게 소리쳤다.

《다치지 말아요. 우리 오빠한테 혼살나요!》

변정관은 어린애치고는 몹시 날카로운 그 목소리에 주춤 손을 움츠렸다. 그 목소리에는 광적이라고도 할 책상주인의 애착과 그 누구도 그것만은 함부로 다칠수 없다는 절대적인 관념이 못박혀있었다.

(그래서 김제환이 병갑의 전망문제에 대해서 말했었구나...)

그는 병갑이를 보내주지 않기로 결심한것이 옳았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었다. 현대화의 높은 요구를 내건 래일의 공장에서는 다름아닌 병갑이 같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것이다.

변정관은 죄스러운 표정을 지워버리지 못하고있는 병갑의 어머니에게서 구체적인 가정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병갑은 어머니까지 알아늑게 되자 하루아침에 어린 두 동생을 말아안은 가정의 세대주가 되었다. 살림도 지탱하기 쉽지 않은데 철없는 어린 녀동생은 맨발이라고 울었고 남동생은 책가방이 없다고 투정질이었다. 동생들은 점심밥이 없다고 학교에서 도망치기가 일쑤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들을 울려놓거나 남의 집 닭장을 열어놓아 복닥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어제는 어느 집의 창고유리를 뚫다가 경비원에게 혼찌검을 당했는데 오늘아침에는 남의 집 터밭을 짓이겨놓아 형인 병갑이가 대신 드살찬 아낙네의 갖은 야단을 맞아야 했다. 바로 현란이와 다툼 오늘날에도 일을 치고 돌아가는 동생을 찾아오느라고 늦었던것이다.

《음-》

변정관은 틀어진 주먹우에 입술을 꼭 눌러대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언제한번 가정사를 빗대고 자기를 변명한적이 없는 병갑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잠자코 앉아있던 장아바이가 슬그머니 들고 온 꾸레미를 풀어놓았다. 뒤키로그람 남짓한 흰쌀이었다. 아바이는 사양하는 병갑이 어머니에게 쌀을 밀어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긴 변정관을 힐끗 돌아본 장아바이는 혼자소리처럼 뇌였다.

《우리 딸년때문에 마음쓰게 해서 안됐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 다 아네. 이미전부터 우리 현란이가 저 병갑이와 남다른 눈치였는데 보다싶이 저런 경우에 몰리니까 그만 앵돌아졌지. 내 그래 된옥을 퍼부었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게 사람이 아니라구.

...항차 청년동맹비서라는게 사람들앞에서 무슨 추태냐고 했더니 글썽, 오히려 그 애가 하는 말이 <제가 큰소리치기가 쉬웠는줄 알아요?> 하지 않겠나. 허참...》

변정관은 묵묵히 아바이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어느 책에선가 본 《사랑하는 사람만이 욕할 권

리도 있다.》는 문구가 기억났다. 어째선지 무심히 보았던 그 문구가 오늘따라 새로운 의미로 떠올랐다. 아끼는 사람에게 던지는 그 《욕》은 아름답것이다.

그런 아픔은 지금 현란에게도 그것을 감수하고있는 병갑에게도 있을것이다. 아니, 크기는 각이하더라도 우리 종업원 누구에게나 제나름의 아픔이 있을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일떠세우고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지 못한다면 사이다는 결코 나올수 없다. 변정관은 자신의 사업에서 적지 않은 빈구석이 있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의 생활상 그늘을 가셔주어야 할 책임도 절감하였다. 변정관은 장아바이의 굳은 손을 잡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바이, 힘들어도 우리 메기양어장과 오리사 그리고 온실같은 후방기지건설을 함께 내밋시다.》

장아바이의 적동색얼굴이 환해졌다.

《웁네. 일감이야 배로 늘어나겠지만 모두들 성수가 나 할거네. 비서가 좋은 궁냥을 했구만.》

《원, 아바이두... 그것때문에 아바이가 절 여기로 데려온게 아닙니까.》

두사람은 마주 보며 후련히 웃었다. 그들은 온밤 새로운 공사량이며 물고기종자, 새끼오리확보 등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했다. 그것은 다음날로 공장참모회의에 정식 제출되었다.

4

한주일만에 공장에 들어선 변정관은 그사이 공장의 면모가 눈에 띄게 달라진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기본생산직장건물은 눈부신 외장재도색까지 끝내여 전망도의 그림보다 더 화려하게 보였고 구내길의 포장도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었던것이다. 이틀전 지배인과 장거리전화를 통하여 변정관은 이미 생산직장들에 설비들을 들여왔히기 시작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공장종업원들은 하루빨리 사이다를 생산할 일념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온것이다. 그자신도 입술이 부르르고 두눈은 충혈되어있었다. 그 한주일동안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메기공장들과 오리목장들에 대한 당일군참관사업에 참가해서도 일정이 끝나면 따로 떨어져 종자확보사업과 양어기술을 습득하느라고 언제한번 눈을 붙여보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실수는 없었다. 공장에 제기된 술한 자재를 보장하느라고 출장 밖에 나가 살다싶이 하는 구지운지배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있는 그의 안해를 찾아가려고 언제부터 벌려왔던것이다.

집에 전화를 걸어 안해에게 면회준비를 부탁해놓은 변정관은 방금 불을 지핀 새 보이라에 들러보았다. 눈길에 흰 타일을 붙인 보이라스일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였다.

조종실에서 화력조절을 하고있는 병갑은 보호창을 들여다보며 이글이글 타래쳐오르는 불길을 살피고있었다.

《어떻소. 잘되오?》

지금껏 활기에 넘쳐있던 병갑의 얼굴은 들어선 사람이 당비서임을 알아보자 곧 심드렁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럭저럭 돼갑니다.》

그가 끼고있는 새 장갑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현란이가 마련해준것인지도 모른다. 변정관은 왜선지 그렇게 믿고싶었다. 며칠전 현란을 만나 담화하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현란이, 요즘 병갑동무가 통 말을 안하는데 대해서 동문 어떻게 생각하오?》

한동안 입술을 깨물고있던 현란은 새침해서 대꾸했다.

《그도 사람인데 공장에서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집까지 보수해주었으니 더구나 비서동지가 동생들 문제때문에 학교출입을 적게 했습니까? 그러니 뭐가 생각되는게 있겠지요.》

《아니, 그 동문 괴로와하고있소.》

《웅당 그래야지요. 하지만 아직도 속이 트인 사내가 되자면 멀었어.》

랭담해보이는 처녀의 눈빛...

《현란인 심장이 좀더 뜨거워야겠어!》

변정관은 낮은 소리로 한마디 했지만 문제가 처녀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느꼈었다.

청년비서로서의 현란은 자기 사업에서 빈틈이 없었다. 그런데 청년동맹원인 병갑이와만 마주서면 대뜸 쌀쌀하고 차거운 처녀로 되어버리곤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현란이 여전히 병갑을 사랑하고있다는 표현인 동시에 그 사랑의 성취는 결정적으로 병갑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변정관은 짐짓 엄하게 질책했다.

《그럭저럭이라는 말자체가 난 마음에 없어. 완전무결하게 되어야지. 일도 그렇고, 사랑에서도 그렇고. 동무야 사내가 아닌가.》

마침 변정관의 안해가 급히 준비한 음식꾸레미를 들고 나타났다.

《자요. 샌님같은 지배인이 매운것은 딱 질색하기에... 어디 봐주시우.》

변정관은 음식꾸레미를 들여다보고는 혀를 찼다.

《원참, 당신두. 지배인이 아니라 그의 부인면회란 말이요.》

《에구, 모르는 소리. 함께 살면 안덕들도 남편 입맛을 닮아간다니까요. 우리 집은 뭐 안그렇소?》

《허허.》

변정관은 무작정 마음이 즐거워 더 타발하지 않고 준비시킨 차에 올랐다.

공장구내를 막 벗어나려는데 언뜻 장아바이 모습이 차창에 비껴들었다. 사무청사앞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태우고있는 아바이는 뭔가 무던히 속을 쓰고있는 표정이였다.

《세우시오.》

변정관이 다가가자 그는 기다리기라도 한듯 담배를 비벼끄며 웃음을 고개짓해보였다.

《좀 올라가보우다. 명옥기사가 설계를 못하겠다고 나왔습다.》

변정관은 대뜸 그것이 김제환과의 마찰때문이라는것을 감촉했다. 그들사이의 상서롭지 못한 관계는 별치 않은 의견 불일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었다. 개조된 보이라에 온도를 높이기 위한 송풍기를 설치하는데 그 작업을 감독지도하던 김제환이 설계된 원형판대신 자체로 만든 사각판을 쓰도록 지시한 일이 있었다. 원형판보다 바람량이 약한 사각판을 써서라도 설비조립을 빨리 끝내려고 했던것이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명옥은 당장 조립해놓은 판을 해체하고 원래 설계대로 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며칠밤을 새워가며 판을 련결한 로동자들은 불만스러워 했다.

《자, 이거 도대체 누구말을 들어야겠어? 복잡하구만.》

《한공장에 기사장이 둘씩이나 되니 그럴수밖에...》

그 소리를 들은 최명옥은 자기의 인격이 무시당 한듯한 도욕감에 참지 못했다. 하여 그들사이에는 심각한 언쟁이 벌어졌었다.

변정관이 2층설계실에 들어섰을 때 최명옥은 책상에 엮드려 울고있었다. 그옆에는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입상기설계가 나뒹굴고있었다. 입상기라는것은 상자에 사이다를 넣는 자동장치로서 최명옥이 큰 마음먹고 달라붙은것이였다.

남편에게 살림을 맡기고 어린 딸애가 날라오는 밥을 받아놓으며 설계완성에 몰두해온 최명옥이 그렇게도 애착을 가지고있던 설계를 내던진채 울고있는것이다.

《어찌된 일ियो?》

비로소 등뒤에 당비서가 와있다는것을 깨달은 최명옥은 얼른 눈굽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간 고개를 쳐든 그의 눈빛은 몹시 차겨웠다.

《전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정관이 미처 대꾸도 하기전에 최명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잇달랐다.

《지금 우리 공장에는 기사장이 둘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오른댔어요. 전 못하겠습니다. 김제환아바이를 다시 들여보내든지, 저를 보통 설계원으로 남겨두든지 결심해주십시오.》

알고보니 최명옥의 기계식입상기설계를 김제환이 부정한것이 문제로 된것이였다.

좁전에 설계실에 들린 김제환은 완성되어가는 설계를 무뚝뚝하게 대충 훑어보았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고 믿소?》

《뭐라구요?! 어쨌서요?》

잠시 머뭇거리던 김제환은 더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고 돌아섰다. 의혹과 함께 까닭모를 모욕을 느낀 최명옥은 와락 뛰쳐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겁니까?》

김제환은 고통스럽게 입귀를 씹룩거렸다. 무엇인가 그를 괴롭히는것 같았다.

《아직은... 확실한 방도가 없소.》

한동안이 지나서야 힘겹게 대답하고난 그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최명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있는 그였다. 헌데 코코마다 자기를 방해하는것만 같은 김제환이 이 설계에까지 물음표를 던진다고 생각하니 어떤 깨끗치 못한 의도를 추구하는것만 같아 분한 감정이 치받았던것이다. 끝내 손상당한 자존심과 억울함으로 하여 최명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두서없는 최명옥의 이야기에 변정관은 심중해졌다. 공장의 기술집단을 떠받든 두 기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것은 공장자체의 균형을 파괴하는 결과에로 이어질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아직 명백치는 않지만 김제환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데는 그로서의 타당한 과학적론거가 있을것이다. 그런데 최명옥은 덮어놓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그러니 동무를 돕자고 김제환아바이를 불러내 온것이 오히려 덧짐으로 되었던 말이지. 물론 그에게 잘못이 없을순 없소. 하지만 난 자기 안목의 척도로만 사람들을 재는 동무의 사고방식에는 결코 찬성할수가 없소. 그도 사이다를 만들자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럼, 비서동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은 최명옥은 넘어질듯 비칠거리더니 그만 얼굴을 짜낸채 설계실을 뛰쳐나갔다. 변정관은 그 자리에 선채 움직이지 못했다.

뜻밖이었다. 자기의 견해가 최명옥에게 완전한 납득은 주지 못하더라도 리해는 되리라고 믿었던것이.

다.
(이번에도 언어가 통하지 못했는가? 무엇때문에?...)

변정관은 이대로 병원으로 갈수 없었다. 그는 급히 김제환을 찾아갔다.

변정관이 아무말없이 그의 곁에 다가가자 김제환은 제 먼저 입을 열었다.

《명옥기사를 만났겠지요?》

고개를 끄덕여보이는 변정관을 바라보며 김제환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난 그의 물음에 선뜻 대답할수가 없었소. 왜냐

면 그 기계식은 내가 한때 해보다가 실패하고만 방식이기때문이였소. 입물개가 고정되어있기때문에 병아구리직경이 미세하게 차이만 나도 물지 못하고 떨구거나 병목자체를 깨버리게 되오. 난 명옥기사가 실패한 입상기의 결합을 극복할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지켜보았는데 결국은...》

《그럼 혹시 다른 착상을 가지고있는게 아닙니까?》

《있긴 있지요.》

《그런데 왜 제때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김제환은 변정관의 눈길을 피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흡반식은 전자구성요소가 대단히 복잡한데다가 또... 명옥기사를 밀어놓고 가로채는것 같아서...》

변정관은 뚫어지게 김제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 숨이 차올랐다. 따져보면 김제환을 크게 비난할것도 없는듯 싶었으나 어쨌선지 그의 말이 귀에 거슬렸던것이다.

(가로챌다구?!...)

《그게... 아바이의 진정이였습니까? 우리에게 네뿔, 내 뿔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가 말입니다.》

《아니? 비서동무, 그건 무슨...》

《내 말을 마저 들으십시오. 아바이는 명옥기사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 공장에 다시 나온 자기 명분을 먼저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공장일을 네뿔 내뿔으로 갈랐단 말입니다. 맑은 썬터에 마음을 비쳐보군 하는 아바이가 말입니다...》

무엇인가 말하려던 김제환은 변정관의 상기된 얼굴을 보자 입을 꼭 다문채 눈길을 떨구었다.

변정관은 머리를 숙이고있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왜 이 공사를 벌려놓았습니까. 그건 우리들이 인민을 위한 사이다생산을 당앞에 책임진 로동계급이기때문이 아닙니까. 사이다만 생산할수 있다면,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릴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병원으로 달리는 차에 몸을 실은후에도 변정관의 머리속에는 김제환과 최명옥의 일이 사라질줄 몰랐다.

샘은 땅속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른다. 만약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층속의 암반과 무수한 자갈이며 모래의 려과를 거치지 못한다면 그 샘은 이 땅의 만물을 살찌게 하는 맑은 생명수로 될수 없을 것이며 샘이라는 그 의미자체도 상실하고 말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기술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뿔이라는 흐린 때를 건져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지향과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질 좋은 사이다는 결코 나올수 없는것이다. 변정관은 자신이 바로 땅속의 보이지 않는 지층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한생 흐려지지 않도록 깨끗이 정제해주는 려과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변정관은 김제환이 제기한 착상을 해당 심의기관에 보내어 그 과학성과 실용성을 충분히 검토받았다. 하여 김제환의 착상은 정식기술협의회에 제기되었고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된 새 입상기는 열렬한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기술협의회에서 김제환은 자기의 모든 기술자료들을 최명옥에게 넘겨주며 뜻밖의 제기를 하였다.

《난 이 설계를 최명옥기사가 말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변정관은 그 순간 최명옥의 눈가에 핑 고이는 맑은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김제환을 오해하고 타매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오의 눈물이었다...

협의회가 끝난 즉시로 설계에 들어간 흡반식입상기는 예상외로 빨리 진척되어갔으며 며칠후에는 일부 부속도면들이 완성되어나왔다. 벌써 지배인은 제작에 필요한 L형강을 구하려 강선으로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김제환이 우려했던것처럼 전자설비 구입과 복잡한 그 제작을 맡아할 기술자와 입상기판 결부위에 쓰일 수백종의 치차가공이 걸린 것이었다.

김제환은 단마디로 전자기술자문제는 우에 제기하여 해결받아야겠다고 했지만 변정관은 여유있게 웃으며 그를 제지시켰다.

《왜 우리 공장의 보배는 보지 못합니까.》

《우리 공장의 보배라니?》

《난 저 병갑동무가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바이도 언젠가 그에 대해서 제게 귀뜸했지요? 우리 믿읍시다.》

한동안 미간을 모으고 주저하던 김제환이 결심한 듯 번쩍 고개를 들었다.

《까짓거! 한번 인입해봅시다. 아니, 인입하겠소!》

주견이 강한 김제환이 혹시 반대라도 하면 어찌나 우려했던 변정관은 자기 심정을 리해해주는 그가 고마와 두손을 덥석 잡았다.

《이젠 됐습니다! 허허.》

변정관은 후련한 마음으로 방직기계공장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입상기제작에서 또 하나 걸리고있는 관절부위의 치차들을 자신이 직접 깎아올 결심인것이다. 그 공장은 변정관이 선반공으로서 첫 로동생활을 시작한 곳이었다. 생산계획에 물려있지 않는 치차가공을 그곳 일군들과 교섭하기도 험치 않을것이고 밤에만 기대를 리용해야 하므로 그것 역시 쉽진 않을것이다. 그러나 변정관은 그 일만은 누구에게도 맡기고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배낭을 메고 조용히 공장정문을 빠져나가던 변정관은 개건확장도둑에서 무엇인가 싱겁이를 벌리는 처녀총각을 띄어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현란이와 병갑이었다.

《전 요즘 동무가 입상기자동화를 위해 얼마나 애

쓰고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문 꼭 해낼거예요. 전 믿어요!》

《진달군인 이 주병갑이 언제 현란이 눈에 그렇게 비겼는지 모르겠는걸?... 힘에 부치는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난 벌써 조립작업에 착수했소.》

《흥. 그 공적으로 공장에서 땃땃이 나갈 <자격>을 얻겠군요.》

변정관의 귀에도 그 말은 따갑게 들렸다.

그런데 의외로 병갑은 사내답게 껄껄 웃어제끼며 시원스레 대꾸하는 것이었다.

《웁소! <자격>을 얻자는거요. 한 처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말이요!》

변정관은 어둠속에서도 저 혼자 흐뭇하게 웃었다. 기계공장을 향한 그의 걸음은 어느때없이 갑절 흥겨워졌다.

×

드디어 개건확장공사가 끝나 첫 사이다생산이 시작되었다. 흐름선을 타고 줄지어 쏟아져나오는 사이다병들이 흡반식입상기에 물려 자동적으로 상자들에 쌓일 때 공장구내에 떠들썩한 환호성과 함께 기동에 술선동대의 취주악환영곡이 터져올랐다.

그가운데 처녀들이 걸어준 꽃목걸이에 싸여 환하게 웃고있는 김제환과 최명옥, 주병갑의 얼굴이 유별나게 안겨왔다. 그옆의 장아바이는 현란이가 들고나와 불인 커다란 속보판앞에서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흐뭇하여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있었다.

사이다상자가 쌓이는것을 보며 노상 입을 다물줄 모르던 지배인이 변정관의 팔굽을 잡고 흔들었다.

《비서동무, 이젠 됐습니다. 저렇게 사이다가 줄지어 나오는것을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배인의 두눈은 축축하게 젖어오르고있었다.

변정관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목소리도 저으기 같았다.

《그렇지요. 그래서 모두가 저처럼...》

변정관은 다시한번 울고 웃으며 얼싸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맑은 사이다처럼 깨끗이 러파되고 정제된 참인간으로 나서게 된 저 사람들!...

수천척지하를 뚫고 솟아나는 깨끗한 샘물처럼 시련의 암반과 고난의 자갈층을 지나며 온갖 흐림과 미세한 티까지도 걸어낸 맑고 깨끗한 인간들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실 자격을 갖추는 것이며 그이앞에 주저없이 나설 참인간이 되는것이다!)

변정관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릴 환희의 그 시각을 향해 지배인과 김제환, 최명옥, 현란이와 병갑이만이 아닌 온 공장종업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있음을 뜨거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날개

강 일 주

날셀무렵의 숲속이다. 뿌옇게 흐린 재빛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떨어진다. 벌써 근 열흘째나 하늘은 저렇듯 시뻘뻘동해서 때없이 구질구질 비꽃을 떨군다. 차라리 바깥으로 퍼붓는것 같다른가 아니면 폭포처럼 쏟아진다는가 했으면 속이 후련하기라도 하련만 이진 지겹게 때없이 줄금줄금 내릴뿐이다. 이런 비는 산천뿐아니라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함뻍 적시는 법이다.

해묵은 락엽을 헤치며 경아는 그만에야 허리를 펴며 호- 한숨을 가늘게 내그었다. 나무잎사귀에 맺혔던 무거운 비방울들이 경아의 비옷을 후둑후둑 때린다.

벌써 석달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모태기는 철무를 생각하니 마음속은 저 비에 젖은 산천처럼 그저 무겁기만 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은 경아는 희뿌연 재빛하늘을 배경으로 한결 더 질푸르러진 산발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호- 하고 또다시 한숨을 무겁게 내그었다.

정말 막막하기만 한 이 마음, 나는 정말 어쩌면 종단 말인가,... 정녕 철무동무를 일으켜세울 힘이 나에게는 없단 말인가,... 내 의술이 부족해서일가, 아니면 내 정성이 모자라서일가,... 옛말에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 했건... 아니, 나로서는 할수 있는것, 그이상 더 하지 않았던가...

경아는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손등으로 닦았다. 고개를 들어 아스라하니 창공을 향해 높이 치솟아오른 거목을 이윽도록 바라보다 고운 눈을 꼭 감으며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비방울들이 나무잎을 후둑후둑 때리는 소연한 소리다운 숲속을 콕 채운다. 경아는 그 소리를 넋없이 여겨듣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뇌이었다.

(아, 어머니, 난 정말 어쩌면 좋아요?...)

의학대학으로 떠나던 날 경아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했었다.

《경아야, 이젠 너도 다 자랐으니 모든걸 너 혼자 결심하고 행동해야 한다. 대학시절은 사회생활, 아니 일생의 기초를 쌓는 시기이다. 중요한건 대학기간 될수 있는것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거다.》

경아는 어머니의 말을 명심하고 그렇게 했다. 《될수 있는것》 많이 읽고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버지없이 근 10년세월 오직 경아하나에게 기대를 걸고 모든 정을 쏟아부은 어머니의 말은 숲

직하고 순박한 그에게 있어 그만큼 의의가 크고 중요한것이였다.

그런데 대학생살의 나날이 흘러감에 따라 경아는 어머니의 곡진한 당부에 어딘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될수 있는것》, 어머니의 이 소박한 《철학》은 경아에게 어느정도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주고있었고 자신에 대한 요구성도 자의대로 조절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금 살폈을 때 경아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학습과 생활을 《될수 있는것》 열심히 하고있는 사이에 다른 동무들은 자기를 까마득히 앞서나가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자기처럼 《될수 있는것》이 아니라 분초를 쪼개가며, 그야말로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학습하고 생활하는것이였다. 경아는 자기도 그들처럼 하기로 결심했다.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공부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자각과 열정, 자신에 대한 엄격한 요구, 선구자적인 안목과 혁신적인 태도... 힘에 부치였다. 그래도 경아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다.

인물끓고 조용하고 그저 성실하기만 하던 경아는 열정적이고 이악한 처녀로 새롭게 변모되어갔다.

하여 경아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고향도시의 병원에 배치받아 일하면서도 경아는 《할수 있는것》 모든 힘을 다하여 생활하는것을 변함없는 생활의 신조로 내세웠다. 인간이 자기의 육체적, 정신적힘을 깡그리 쏟아부어 집단과 사회에 유익한 존재로 된다는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이런 경아였기에 두번씩이나 학교추천을 남에게, 양보하고 심심산골의 외진 통신초소를 군사복무 전기간 떠나지 않은 사랑하는 애인의 소행을 값높은 것으로 여길수 있었으며 그런 애인을 가진 행복감으로 하여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절대적인것》으로 간주했던 경아의 신조가 허물어졌다.

그날 경아는 애인인 리철무와 함께 눈속에 잠긴 바다가의 공원을 거닐었다.

《들었소, 경아동무?...》

열정적이면서 무뚝뚝한 철무는 언제나 이렇게 불쑥 이야기를 시작하곤 하였다.

《뭘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자체로 큰 발전소를 건설한다누만.

우리 공장에서도 발전소건설에 나갈 돌격대원들을 선발한다는거요.》

《그래서요?...》

《우리 둘이 함께 돌격대에 나가자는거요.》

경아는 그만에야 그 자리에 굳어졌다.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어서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성벽같은 철무의 네모진 턱을 쳐다보는 경아의 머리속에서는 여러가지로 얽힌 생각들이 땀을 치기 시작하였다. 룡일거야, 그저 한번 해보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는가...

《왜 말이 없소? 돌격대에도 의사들이 필요할텐데...》

대답을 재촉하는 철무의 목소리, 그러니 룡도 아니고 잘못 들은것도 아니었다.

《철무동무!》

경아의 부르짖음은 언 대기속에 굳어졌다. 달빛 어린 철무의 억실억실한 두눈에 차고넘치는 절절한 기대와 믿음이 그의 입을 막은것이였다.

《어쩔 그런 결심을... 동문 그 결심을 하기전에 내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가면 홀로 계실 우리 어머니생각을 해보거나 했어요. 어쩔...》

검푸릿한 하늘에서 하헌달이 고개를 기웃하고 묵묵히 걸고있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속에 잠긴 그들이 눈을 밝는 빠그극소리뿐, 교요가 깃들었다.

《꼭 가야만 하나요?》

한참만에야 경아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정적을 깨뜨렸다.

《경아동무가 싫다고 해도 난 기어코 데리구 갈테요.》

이건 논의할 여지없이 이미 다 결정된 문제처럼 막 《강요》하려 드는 판이다. 이런걸 두고 기가 차다고하겠지...

《저... 꼭 돌격대에 가야만 하는가요? 철무동무야 이제껏 조국보위초소에서 성실하게 복무해오지 않았나요. 학교추천도 두번씩이나 양보하면서 말이에요. 또 제대되어서도 공장에서 손꼽히는 혁신자로 이름떨치고... 할수 있는것 다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할수 있는것 다 하는것으론 안돼, 그이상, 최대의 힘을 다해 일해야 할 때요.》

이상한 론리다. 《할수 있는것 다 한다》에는 여지가 없는것이다. 그야말로 《다 한》것이다. 그렇다면...

격해오른 철무의 목소리가 경아의 그 《신조》를 허물어버리며 차거운 밤대기를 흔들었다.

《경아동무, 물론 지금은 모든것이 어렵고 곤란한 때요. 너나없이 모두들 시련의 고비를 헤쳐가고있

지. 하지만 우리 주저앉아서는 안돼. 할수 있는것, 가능한것이 아니라 그이상, 있는 힘을 다해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거요. 우리 힘의 한계점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 조선청년이란 말이요. 조선청년!》

철무는 질고섰던 버드나무를 탕 쳤다. 푸르스름한 달빛에 반짝이는 눈꼬치들이 달아오른 경아의 얼굴에 살풋이 내려앉았다. 자연과의 그 부드러운 접촉이 왜선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보면 결국 경아가 자기의 생활신조로 내세웠던 《할수 있는것》에도 역시 커다란 빈구석이 있었다. 말하자면 《가능한것》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였다. 하지만 인간의 힘에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아는 《힘의 한계점》을 무시하는 철무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원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서보다는 언제나 경아 자기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높은 곳에서 있는 철무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처녀의 가혹한 마음에서 그렇게 결심한것이였다.

언제부터인지 경아는 철무를 산처럼 아득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의 눈으로 본 자기를 그려보고 그대로 하려는 버릇이 생겼다.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이때에 군복을 입은 철무라면 어떻게 하였을가, 그가 바라는 처녀는 어떤 처녀일가 하고 생각해보고 그대로 하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철무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아닌 《자기》를 보게 되였다. 이상한 일이였다. 하긴 거기에 무슨 이상한것이 있단 말인가. 사랑이란 바로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그 순간도 경아는 철무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것이라는 일종의 타성을 버릴수 없었던것이였다.

모든것은 생활이 증명해줄것이였다. 인간의 힘에 《한계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벌써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였다. 중요한것은 철무와 경아, 자기가 이 언제나 하나이며 함께 있다는것이였다.

《됐어. 경아동무만 곁에 있으면 난 무서운게 없어. 날개달린 룡마가 될거요.》

철무의 결결한 웃음소리가 저 멀리 밤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이렇게 되어 그들은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대렬에 나란히 서게 되였다. 철무는 중대장으로, 경아는 의사로...

발전소건설장에 당도한 첫날부터 철무는 무섭게 일했다. 마치 인간에게 《힘의 한계점》이란 있을수 없다는걸 증명하려는듯, 아니 시위하려는듯 밤낮을 이어가며 뛰고 일했다. 길을 넘게 쌓인 눈을 쳐내고 굳은 바위돌을 깨내야 하는 기초파괴전투장에서조차 경사급한 산비탈을 뚫아야하는 통나무생산전투장에서조차 목고며 마대를 메고 달리는 길담기전투장에서조차 언제나 제일 빨리 달리고 일손을 겹치게 놀리는 철무를 볼수 있었다. 그가 휘두르는 도끼

며 함마자루에서는 휘파람소리가 이는듯 했고 그가 메고 달리는 마대는 말그대로 집채만 했다. 어느덧 건설장에서는 철무가 책임진 중대가 제일 일을 제끼는 중대로, 언제나 앞장에서 나아가는 중대로 공인되게 되었다.

그러느라니 기계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철무의 부리부리한 두눈엔 피발이 가실새 없었고 두툼한 입술엔 피딱지가 앉았다. 억대우갈던 그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져갔다.

경아는 안타까와 어쩔줄 몰랐다. 무슨 사람이 저렇게 일밖에 모른담, 자기 몸도 좀 돌봐야지 저러다 쓰러지면 어쩔려구... 슬며시 옆으로 다가가 팔소매를 당기기도 했다.

《약을 바르자요, 네?!》

대답대신 터갈라진 손으로 피딱지 앉은 입술을 뽁뽁지르며 피식 웃는다.

《살간지럽게 약은 무슨 약?...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경아동무랑 동무들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내 걱정말고 자기 걱정이나 하오. 거 좀 보오. 얼굴이랑 말이 아니군 그래! 아니 그 손엔 웬 봉대가?...》

경아는 열려 제 손을 등뒤에 감추었다. 철무의 눈으로 보는 《경아》가 되려는 사이에 어느덧 자기도 혁신하고있는것을 몰랐던 그였다.

아무튼 철무의 일본새에는 모두들 그저 혀를 내두를뿐이었다. 어떤 청년들은 철무의 발은 땅에 닿을 새없이 훨훨 날아다니는다고 했고 어떤 처녀들은 저 제 대군인의 발은 그저 발이 아니라 날개라고 했다.

그 《날개》가... 아, 창공을 날으던 그 《날개》가 그만 부러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철무의 《날개》가 꺾인지도 어느덧 석달이 가까와온다. 지난봄 뜻밖의 돌사태때에 위험에 처한 동무들을 구원하고 쓰러진 철무는 의식을 잃고 치료대에 업혀갔다. 원래 참나무처럼 단단하고 억센 그 인지라 인츰 의식을 회복했으나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수가 없었다. 다리에 마비가 온것이였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다 끝내 드러눕고만 철무의 눈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릴 때 경아도 돌격대원들도 터져나오는 울음을 씹어삼키며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날부터 경아와 돌격대원들은 철무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과 정성을 다 바쳤다.

경아는 때식을 잊고 병원들과 유능한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험한 산발을 헤치며 약초를 캐왔다. 밥을 새우며 전문분야가 아닌 고려치료책들을 구해다가 읽고 연구하였다. 제 손으로 침혈을 잡고 침과 뜸을 놓았다.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시며 아침저녁

으로 뜨거운 찜질을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정성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철무의 영양보충을 위해 산짐승들과 물고기를 잡아오고 수백리 길을 달려가 희귀한 약재를 구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은 크게 차도가 없었다.

모처럼 모셔왔던 도병원의 유능한 로박사가 철무의 상태를 간간히 진찰해보고 가늘게 한숨을 내쉴 때 경아는 그만 왈칵 울음을 터뜨릴뻔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애절한 기대를 가슴속 한구석에 품었건만...

박사선생을 바래주고 들어와 침대옆 결상에 시름겹게 앉아 한숨만 토해내는 경아를 보고 철무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경아는 대답대신 고개만 가로 저었다.

《그런데 왜 그리 시리죽은 인상이요?》

《...》

《내 병때문에?... 괜찮아, 아까 그 선생님도 말했지. 신심을 가지구 꾸준히 치료해야 한대구. 하루이틀에 나을 병같으면야 벌써 일어났게. 그러니 너무 마음쓰지 마오.》

고개를 외로 틀고 눈굽에 고이는 눈물방울을 찍어내던 경아가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요. 아무래도 내 힘으론...》

《그러지 말라니까. 경아동무야 그야말로 할수 있는것 다하지 않았소.》

철무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경아가 떨리는 가슴을 한손으로 꼭 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이봐요,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는것이 좋잖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다니?...》

《아무래도 쉬이 나을것 같지 않은데 집으로 가서 안정치료를...》

청아의 말은 철무의 격한 목소리에 끊기우고 말았다.

《그만하오,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뭐 돌아간단구?》

그래 이 철무가 눈이 시퍼래서 요깃 병에 쫓기워 돌아간단 말이요?!... 말도 안될소리!!》

광대뼈가 두드러진 불원이 푸들푸들 떨리고 불끈 들어진 주먹엔 검푸른 피줄이 툭 불거져올랐다. 황황 불타오르는 눈길은 금시 경아를 태워버릴것만 같았다.

《철무동무, 진정해요. 그만 진정...》

경아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을 싸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의 무능이 안타까왔고 자기의 사랑의 힘이 연약함이 서글펐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우에도 꽃을 피운다 했거늘 자기의 정성이 과연 모자랐단 말인가. 돌우에 꽃을 피우는 그 정성은 하늘만큼 높을가 바다만큼 깊을가. 그 높이와 깊이는 자기가 생각도 못할 그렇게 아득한 곳에 있는걸가. 아니, 난 내가 할수 있는것을 다하지 않았는가. 지어 그이상의것도 다했어. 그런데, 그런데... 아, 창공을 훨훨 날으던 억센 새의 날개를 다시 달아줄 그런힘, 그런 기적은 과연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인가... 경아는 자기 마음속과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경아를 이윽도록 지켜보던 철무가 저으기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울지 말라구. 그리고... 큰소리 칠 나를 용서해 주.》

《철무동무!》

경아는 철무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차라리 절 꼭 때려줘요. 저같은게 무슨 의사구 무슨 애인이겠어요. 이 못난일 꼭 때려줘요, 네?!》

철무는 경아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틀어쥐며 말했다.

《그러지 말라구, 울지 말라니까...》

한참만에야 진정한 경아는 눈물젖은 뺨을 닦으며 안타깝게 물었다.

《철무동무, 그러니 전 어쩌면 좋아요?》

철무는 손을 뻗쳐 경아의 눈가에 난 눈물자국을 닦아주었다.

《경아동무, 난 절대로 여기를 뜰수 없소. 발전소 건설이 끝나기전에는 집으로 돌아갈수 없는 몸이란 말이요.》

《?...》

경아는 흠칫 놀라 굳어졌다. 그럼... 왜선지 온몸이 졸아드는듯 했다.

쿵쿵 울리는 발파소리에 집안이 드르륵 울린다. 현장에서 울리는 방송차의 힘찬 노래선물이 들려온다.

《경아, 군사복무기간 내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오? 그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 초소에 한번 모시는것이였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초소에 모시고 그이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기념사진도 찍고싶었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겠소?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어버이장군님을 직접 만나뵙는 그이상 영광과 행복이 또 어데 있겠소.

난 그래서 여기 발전소건설장으로 온거요. 군사복무기간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여기서 이루고싶었소.

이제 여기 심심산중에 언젠가 서고 거기서 나온 전기로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 인민들의 살림이 유족 해지면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난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발전소도 꼭 찾아주시리라 믿소.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다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이신데. 그런데... 뭐 날더러 집으로 가라구?! 인생의 참행복을 버리구, ...

다른 사람도 아닌 경아가 어쩌면 그럴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힘을 줘야 할 경아가 아니요!》

《철무동무!》

경아는 나직이 뇌이였다. 목이 콕 메여올라 더 큰말을 이룰수가 없었다.

철무는 격해서 부르짖었다.

《아니, 난 그럴수 없어. 난 꼭 다시 일어나.》

《철무동무, 절... 절...》

경아는 더는 앉아있을수 없어 그만 방안을 뛰쳐나왔다.

병실뒤 산중턱의 호젓한 썸물가에 앉은 경아의 생각은 깊어갔다. 처녀의 남모르는 심중의 고백을 언제나 친절히 들어주는 썸물이었다. 비쳐드는 해살에 썸물속의 금모래알들이 바글바글 끓는다.

경아는 작은 두손으로 뛴뛴 가슴을 꼭 누르며 이윽도록 앉아있었다. 철무의 가슴속에 바위처럼 든든한 그 가슴속에 아아한 산악처럼 드눌지 않는 굳은 신념이 간직되어있을줄 여적 모르고있는 자신을 타매했다. 힐난했다. 저주했다.

못난이, 맹꽁이... 나같은게 무슨 정성의 꽃을 피워 그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오직 우리 장군님만을 그리고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받들어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피를 끓이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발전소언제보다 더 억센 신념의 보좌를 곳곳이 세운 그런 사람에게 《불치》의 꺼먼 락인을 함부로 찍으려 들다니, ... 차라리 그 드센 주먹으로 이 못난일 꼭 때려주기라도 했으면...

경아는 입술을 악물고 일어섰다. 그렇다.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벌디디고 일어셔야 한다.

경아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을 따라세우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일으켜세우고야 말리라는 결의의 빛이 가득 어렸다.

그날부터의 치료는 단순히 의학적인 범주에만 국한된 치료가 아니였다. 그것은 병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전투》였다.

철무도 결코 가만 누워만 있지는 않았다. 담가에 누워 공사장에 나가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는 격동적인 연설도 하고 삽이며 곡괭이, 함마자루같은 것을 만들어 공사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애썼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다. 경아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철무의 몸에서는 현저한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전부터는 발끝이 저린 감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것은 다리에 신경이 통하기 시작했다.

다는 징조였다.

하지만 철무가 자기 발로 이 땅을 짚고 일어설 그 날은 과연 언제인지...

경아는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나약한 생각에 빠져있던 자신을 질책하며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락엽을 들출 때마다 들크무레하면서도 쉬저근한 락엽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한동안 약초를 캐나가던 경아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오늘도 날이 개이지 않으려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으련만 비방울은 지겹게도 그냥 부실부실 떨어진다.

경아는 또다시 한숨을 토해냈다. 동실한 어깨가 언덕처럼 솟아올랐다가 내려앉는다.

먼 산밭쪽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경아의 쌍꺼풀진 눈이 갑자기 커졌다. 발전소건설장으로 들어오는 길로 달려오는 승용차들을 본것이었다. 뽕안 비의 장막속에 더욱더 뚜렷이 보이는 승용차! 한대... 두대... 석대...

경아는 머리를 흔들며 이마우에 드리운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을 털었다. 두눈을 습벅였다. 틀림없다. 승용차의 행렬이다.

가슴이 후두두 방망이질한다. 혹시?!... 크나큰 행운에 대한 예감으로 숨이 꺾 막힐것 같다.

아니, 아니야. 경아는 부정했다. 이 비내리는 날의 이른 아침, 계속되는 비에 마구 범벅이 된 진창길... 이런 날에 어찌... 그래도 혹시...

아니 분명해, 우리 장군님이 분명해. 밤낮으로 이어가시는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 쪽잠, 췌기밥... 날마다 들어온 혁명일화들이 머리속을 번개처럼 스친다.

차츰 비발이 설핏해진다. 뿌잇한 운무의 장막속에 가리워졌던 모든것들이 차츰 뚜렷해진다.

드디어 언제건설장에 닿는 승용차들!

제일 앞차의 문이 열린다. 아!... 그이이시다.

심장이 터질듯 세차게 뛴다.

어느새 비가 멎었다. 그토록 지겹게 내리던 비가 순간에 딱 멎었다.

그래, 그이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장군님! 그이께서만이 이처럼 신통한 자연조화를 일으키실수 있는 것이다. 오직 그이께서 만이...

경아는 산을 내려달리기 시작했다. 바구니도 호미도 다 잊은채 종주목을 부르짖고 내달린다. 비에 젖은 숲속을 마구 헤치는 얼굴이며 웃이며 함박 젖는다. 뜨거운 격정과 환희에 마음도 젖는다.

벌써 저 아래쪽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만세를 부르며 언제쪽으로 내달린다.

경아는 문득 굳어진듯 멈춰섰다. 혼자 누워있을 철무가 생각난것이다. 방향을 꺾어 다시 내달리기

시작했다. 금시 심장이 튀어나올것만 같다.

철무동무! 장군님께서 오셨어요. 동무가 것처럼 그리던 아버지, 것처럼 뵙고싶어하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셨어요... 철무동무가 얼마나 기뻐할까?! 너무도 아름다운 행복에 그저 훗훗 날지는 않을까... 그 순간 경아는 철무가 일어날수 없는 몸이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있었다.

《철무동무!》

와락 문을 열어제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모대기던 철무가 부르짖었다.

《경아! 저게... 저게 무슨 만세소리요?》

해불마냥 황황 타오르는 철무의 눈길, 경아는 젖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오셨어요.》

《뭐, 장군님께서?...》

《철무동무, 장군님께서... 글썄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동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네?... 것처럼 그리워하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철무동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 어쩔... 어찌면...》

경아는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철무가 격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울긴 왜 우는거요. 날 좀 일으켜주요. 어서! 빨리! 내 손을 좀 잡아달라니까?》

경아는 떨리는 두손을 내밀었다. 철무는 경아의 손을 꼭 잡고 이를 앙다물며 옥 힘을 쓴다. 으드득 이발갈리는 소리가 난다. 조금 일어날듯 하다. 아! 피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도로 주저앉는다.

《제발 그만해요. 그러다 어찌자고...》

《가만있어!》

철무의 얼굴이 무섭게 이지러진다. 다시한번 옥 힘을 쓴다. 온몸의 기운을 단번에 다 뿜는듯 한 소리를 지른다. 고통스럽게 변하는 얼굴, 이마에 맺히는 주먹같은 땀방울들, 화들화들 떨리는 두손...

아, 드디어 일어서기 시작한다. 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섰다. 두발로 땅을 짚고섰다. 입술을 깨물며 발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화락하니 젖었다.

경아는 그저 놀라기만 해 굳어졌다.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이런 꿈도 있고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도 또 있는가.

아, 위대한 사랑, 위대한 품을 그리며 생의 순간순간을 열정으로 태우는 고귀한 녀! 그 힘이 이런 기적을 안아왔구나.

《땀해, 경아. 날 좀 부축해주요. 아니, 아니야.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부축을 받으며 나서다니!》

밖에 나섰다.

해살이 짙 퍼졌다. 두터운 구름장을 가르고 천지

만물을 밝히는 밝은 해살, 푸른 수림, 와와 소리치는 물소리, 귀따갑게 지저귀는 산새들, 폐부로 깊이 스며드는 정신한 아침대기, 머리가 다 핑 돈다.

아!...

눈부시게 밝은 해살이 빛나는 하늘에서 새 한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은다.

아! 저 새! 창공을 거침없이 날으는 억세인 날개!

...

아, 어버이장군님! 이 땅의 천만자식모두를 다 품어안아 억센 나라를 달아주시고 그 나라를 마음껏 펼칠수 있는 푸르른 창공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장군님!

장군님은 인민을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주시고 인민은 장군님을 그리며 따르는, 장군님과 인민이 하나의 마음되고 한피줄이 되어 한가정을 이룬 복발

은 이 시대에 그 무슨 불가능이 있으며 그 무슨 기적인들 없으랴!

경아는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거대하고 묵직한 것이 든든히 들어앉는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그 어떤일에 부닥쳐도 주저함없이 뚫고나갈 크나큰 힘이 솟구쳐오르는듯 했다.

《철무동무!》

《경아동무!》

그들은 온몸에 뻗쳐오르는 억세인 기운을 느끼며 힘차게 걸음을 내짚었다.

한줄기 상쾌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결을 타고 산 굽이너머에서 우렁찬 만세소리가 들려온다.

철무와 경아는 만세소리가 울려오는 곳으로, 그리운 장군님의 품으로 달려갔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들에 내리는 눈송이

리 창 식

하늘가득 날리는
새해의 눈송이
들에 내리는 눈은 정을 실어오더라

남먼저 벌에 나선 분옥이와 나
걸차게 제껴가는 두엄무지우에서
두 심장 저도 몰래 후끈해지라고
종일토록
종일토록 이쁜 마음 깊어지라고
내리는 눈은 정을 실어오더라

들판가득 푸짐히도
쌓이고 쌓이며
내리는 눈은 꿈을 실어오더라

우리 서로 나누는 고향의 래일속에
이해엔 덩실하니 새집들이 솟고
노을빛 아름다운 양어장도 생기라고
앞내가엔 분옥이 버들초리 휘저으며
떠들썩 오리때도 몰고오라고
내리는 눈은 꿈을 실어오더라

하염없이 흘날리는
눈송이 눈송이
꿈많은 가슴마다에 나뭇기는 이 설눈
천리 먼 전선길에서 장군님도 맞으시겠지

뜨거운 그 생각
이 마음 적시며
내리는 눈은 소원을 불러오더라

선군의 해빛안고 휘뿔어진 대지에
이해엔 높이높이 로적가리 쌓아놓고
전선너머 저 멀리 첫 편지를 띄우자고
두별농사 보고싶어 장군님 오시면
이삭다발 정히 안고 우리 선참 달려가자고
내리는 눈은 소원을 불러오더라

산에 들에 끝없이 함박눈은 내리고
불타는 우리 심장은 식을줄 모르고
하많은 생각속에 간절한 소원속에
내리는 눈은 새봄을 안고오더라
내리는 눈은 행복의 가을을 안고오더라

고려시기 《리상촌》을 그려본 작가 진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은 자기의 매 력사발전단계마다 자랑찬 민족문화를 창조하였으며 후세에 길이 전할 귀중한 유산을 남겨놓았다.

진화는 12세기말~13세기초 정중부의 무신란으로 고려봉건국가의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고 인민들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창작활동을 벌린 진보적인 시인의 한사람이다.

진화는 충청남도 홍주 려양현사람으로서 성은 진이고 이름은 화이며 호는 매호이다.

대대로 량반인 가문에서 4형제의 맏아들로 태어난 진화는 어려서부터 봉건유교적인 가정교양을 받으며 자기의 동생 진온과 함께 문학에 뜻을 두고 시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와 노래를 잘 지었으며 특히 시 짓기경쟁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것으로 하여 당시 시인들속에서 이름이 높았다.

진화의 《도원의 노래》(7언고시)는 량만적호소성과 사실주의적생동성이 강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그의 대표작이라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량만주의작가는 자기가 념원하는 생활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을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미래의 훌륭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였습니 다.》

진화는 무신정변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있는 고려봉건국가의 사회계급적모순속에서 그 옛날 하나의 리상사회로 전해오는 《무릉도원》에 대한 전설에 기초하여 자신이 꿈꾸던 리상촌의 모습을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보이고있다.

동해의 푸른연기 풀잎우에 삼삼하고
향기로운 란초기초 남산우에 무성하다

진나라의 모진 법을 피하여왔다는
여기가 바로 선경이란 말인가

시인은 동해바다가의 아름다운 산촌을 하나의 선

경으로 묘사하면서 경치좋고 살기좋은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이름난 무릉도원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계속하여 자기가 꿈꾸던 리상촌 《무릉도원》의 모습을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 있듯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내물 후미저 산허구로 흘러나고
땅중고 물이 흔해 이랑마다 옥토로세

삽살개 짖는 소리 한낮은 늦었는데
꽃은 나뭇겨 봄바람은 건듯 부네

복숭아나무 심어놓고 고향생각 잊었다네
책을 불태운 그 뒤일은 알리 없네

꽃피고 잎이 지니 봄가을 알리로다
아이를 얼리면서 모든일 다 잊는듯

배사공이 이곳에 한번 갔다 돌아온후
아득할사 천년만년 다시 찾지 못한다네

이처럼 시인은 시내물이 산허구로 흘러들고 땅이 기름져 이랑마다 옥토인 곳, 삽살개의 희롱으로 하루해가 기울고 봄바람에 꽃잎이 나뭇기는 이러한 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무릉도원을 천만년이 지나도 찾지 못한다고 노래하고있다.

그는 보았는가 우리 땅 강남마을
대로 사립엮고 꽃은 울타리라

달밤에 시내물 졸졸졸 흐르고
나무엔 산새들 지저귀네

시인은 자기가 꿈꾸던 리상촌의 모습을 단순히 꿈으로가 아니라 《무릉도원》의 리상촌인 자신이 살고있는 강남마을의 모습, 달밤에는 시내물소리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정다운 산촌의 전경을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다만 한스럽구나 이 땅 백성들
살림살이 나날이 쪼들려만 가는데

고을관리들 세금내라 쌀내라
문을 두드리며 날마다 성화로세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만 굴지 않으면
우리 나라 산마늘은 모두가 도원일세

시인은 시의 후반부에서 봉건통치배들이 백성들을 못살게만 굴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농촌은 어디가나 무릉도원이라고 자기의 낭만적인 사회적리상을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부시켜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이 시는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이 시가 량만주의작가들의 시작품들이 그리하듯이 당대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몇몇 무신통치배들의 비인간성에서 찾고있는것이다.

이 시작품의 제한성은 또한 인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모진 학정을 비판하는데만 그치고 그 학정을 없애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도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것이다.

그것은 시의 마지막련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이 시속에 숨은 뜻 있나니
그대는 버리지 말게 나의 이 노래를

관가의 문서에도 적어넣어두고
자손대대로 이 뜻 전하여주게

이처럼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리상사회인 무릉도원의 세상을 관가의 문서에도 기록해두고 자손대대로 무릉도원이란 어떤 곳인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게만 하고 바로 그러한 무릉도원을 현실과 대치시키면서 리상적인 사회를 주로 자연적인 요인과 결부시키고있는 결함을 발로시키고있다.

그러나 진화의 시 《도원의 노래》는 당시 인민들의 아름답고 소박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펼쳐보이면서 모진 학정을 만들어내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으로 일정하게 지향한데 그 의의가 있다.

진화가 《도원의 노래》에서 동경한 《살기 좋은 사회》는 공상과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의 묘사는 중세문학의 사상적내용과 량만주의적묘사의 풍부화에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문학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오 영 석